



정답과 해설

고등국어

상 1~5단원

정답과 해설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008~010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토의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③			

01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대학의 학과나 직업을 선택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찾아보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직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적성을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지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를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③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일 수 있다.
 ⑤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해 볼 수 있다.

02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과정이다. 외부적 조건인 사회적 인정, 경제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적성과 관련 없는 진로를 선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⑤는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②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가치관에 맞는 분야에서도 진로 및 관심 분야를 찾아볼 수 있다.
 ③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탐색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기 전에 관심이 있는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03 <보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읽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책을 읽는 목적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것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통해 해당 분야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한 책 읽기 활동에서의 읽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②, ⑤ 해당 분야에 관한 최신 정보나 청소년기에 준비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모둠에서 책 읽기를 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화 독서를 할 때 적절한 읽기 목적이다.
 ③ 이미 광고 및 홍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광

고 및 홍보 분야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는 것을 읽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도서 청구 기호를 활용하여 서가에서 책을 찾을 때에는 찾고자 하는 책 주변에 유사한 내용을 지닌 책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의 차례를 살펴보거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면 자신이 검색한 책이 아니더라도 읽을 만한 책을 발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컴퓨터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책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책 찾기 과정이 시작된다.
 ② 검색한 책의 도서 청구 기호를 정확히 적어야 서가에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④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인지 살펴보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⑤ 모둠 구성원들이 고른 책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하면 책 선정하기를 할 때 편리하다.

05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고를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를 안내한 책(ㄱ)을 읽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개괄적인 정보를 소개한 책(ㄴ)을 읽으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고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세부 분야를 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고를 때는 책 내용이 자신의 지식수준에 맞는지를 고려하여 수준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교 전공 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담고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로 책 읽기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ㄷ). 또한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읽을 책으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ㄹ).

06 모둠이 선정한 책들 중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를 때, 모둠 구성원들이 어떤 책을 선택하였는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골라야 한다.
 ②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③ 책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고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⑤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활동이므로, 정한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07 독서 일지는 책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책 한 쪽을 읽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독서 일지를 기록할 때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적어 두면 친구들과 과 함께 토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독서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언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읽었는지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읽기 방법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③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를 적어 두면 책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④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두면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08 모둠 구성원들과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 주고 서로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책 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토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책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을 준비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책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할 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책을 더 읽고 싶은지 추가 독서 계획을 밝힐 수 있다.

② 자신이 읽은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③ 자신이 읽은 책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⑤ 자신이 읽은 책이 자신과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책을 추천할 수 있다.

09 책을 다 읽은 뒤에는 자신이 쓴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한 발표하기를 할 수 있다.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들 때에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며 듣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친구의 발표를 듣고 책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지 어느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다.

② 책 내용을 왜곡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

③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해야 발표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④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발표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다른 분야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비교하며 들으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0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책 내용과 관련하여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토의의 과정을 통해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사고의 깊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11 추가로 읽을 책에 대해 더 조사하는 활동은 독서 일지를 작성한 후 친구들과 독서 일지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책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이는 (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친구들과 책 읽는 목적을 정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③ (나)에서는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활동이 필요하다.

⑤ (다)에서는 책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 등을 독서 일지에 기록해 두는 활동이 필요하다.

12 예지는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봐야 함을 깨달았

다고 말하고 있다. 정연은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겠지만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서준은 사람보다 똑똑하고 강한 기계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토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예지는 “처음엔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 중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진로가 있을까 해서 읽기 시작했어.”라고 하며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② 서준은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토의 참여자들은 공동 관심 분야인 과학 기술 분야에서 각자가 읽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정연은 “과학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한다면,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 같아.”라고 하며 과학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할 때 성찰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3 예지는 토의 주제를 알리면서 서준이부터 이야기해 보자고 말하며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밝히는 것을 통해 예지가 로봇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예지는 “읽다 보니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라고 하며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밝히고 있다.

③ ‘로봇에 대한 책도 찾아 읽고’라는 예지의 말을 통해 예지가 새로운 독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예지는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 중 관심을 가질 만한 진로가 있을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였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로봇에 대한 책을 찾아 읽고 싶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말을 통해 예지가 아직까지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책을 읽고 토의 활동을 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다(ㄱ). 또한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도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ㄷ). 그리고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고, 친구들에게 진로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ㄴ).

오답 풀이 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진로를 정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진로를 비교하여 더 좋은 진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ㄷ. 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진로 탐색에 있어 독서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15 예지는 토의가 끝나면 로봇에 관한 책을 읽어 보고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그려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친구들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진로 및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큼 도움이 되는 책은 진로를 탐색하는 데 보탬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책이 예지의 진로를 확정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심화하기 위해 책을 더 찾아 읽어 보는 것이므로 로봇에 관한 책을 읽겠다는 예지에게 로봇 공학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권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다.
- ④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할 때는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책을 골라야 한다.
- ⑤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할 때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단원 평가

본문 011~012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① 07 ③

01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인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이 있으면서, 광고 기획자라는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여 독서를 하려고 한다.

02 ‘책 읽고 공유하기’ 단계에서는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권하는 책을 찾아보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하는 것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 선정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진로 및 관심 분야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 적성에 맞는 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할 때에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뿐만 아니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도서관에 가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 선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④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과정에서 독서 계획을 세우거나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03 서가에서 책을 찾을 때 청구 기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중 분류 기호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의 주제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분류 기호가 주제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도서관의 책들은 청구 기호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므로, 검색한 책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관의 청구 기호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도서관 열람실에 비치된 컴퓨터 검색대에서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여 책을 검색하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

④ 자신이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지,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은지, 한 학기 내에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서가에는 보통 비슷한 내용을 다룬 책이 함께 꽂혀 있으므로, 차례를 살

펴보거나 책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며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준 등에 맞는 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04 ㉠에서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영상 광고와 지면 광고의 제작이 어떻게 다른지, 저자와 같은 진로를 밟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또한 ㉡에서 학생은 책을 읽고 광고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새롭게 알게 된 점’에 해당한다.

05 이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광고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성찰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광고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즉, ④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학생의 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학생은 저자가 꿈을 이룬 과정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책의 내용 중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이 광고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성찰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학생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책의 내용 중 아쉬움을 느낀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06 예지가 로봇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사람을 돕는 따뜻한 로봇을 만들고 싶었다는 어느 로봇 공학자의 강연을 들은 일 때문이다. 또한 예지는 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로봇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답 풀이 ② 예지는 독서를 통해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과학 기술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③ 정연은 독서를 통해 로봇이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겠지만 그 결과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을 전하면서,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정연은 독서를 통해 인공 지능을 지닌 로봇이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 결과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

⑤ 서준은 독서를 통해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적정 기술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07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책을 읽고 토의하는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에 적절한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각자 읽은 후 책의 내용을 공유하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책을 읽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④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 정리하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

004 정답과 해설

⑤ 책을 읽으면서 작성한 독서 일지와 주어진 질문을 바탕으로 자신과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적어 발표해 볼 수도 있다.

(2) 글로 쓰는 나의 꿈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014~016쪽

01 ⑤ 02 ② 03 ㉠: 정서 표현 ㉡: 예상 독자 ㉢: 인쇄 04 ⑤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 상
호 작용 ㉢: 대화 ㉣: 사회적 행위 12 ③ 13 ② 14 ⑤

01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자신이 지닌 배경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며 다양하게 글을 해석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예상 독자가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있을지 예상해 보고 그것을 헤아리며 글을 써야 한다. ⑤는 글을 읽을 때 독자가 고려할 점이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주제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글의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② 자신이 쓴 글을 읽을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글의 내용과 표현이 달라지므로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③ 왜 이 글을 쓰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글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④ 글을 발표할 매체를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02 글쓰기를 계획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매체와 같은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글의 주제가 광고인의 다양한 업무 분야와 광고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일이므로 광고 원리에 대한 설명은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교자는 학교 학생들이 보는 매체이므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어 써야 한다.

③ 학교 학생들이라는 예상 독자의 지식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④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처음-가운데-끝'으로 글을 구성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⑤ 학생들이 진로에 관해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글의 주제에 따라 광고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일을 제시하도록 한다.

03 쓰기 맥락을 분석할 때는 먼저 글의 목적이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정서 표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 독자에 대해서는 나이, 성별, 대상을 고려하여 흥미나 배경지식 정도를 분석해야 한다. 또 글을 발표하려는 매체가 인쇄 매체인지, 영상 매체인지, 인터넷 매체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한 쓰기 맥락을 글에 반영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

04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집약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최근 시사 자료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 기관에는 그 분야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과거의 자료도 보존되어 있고, 관련 서적이거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문 서적과 같은 인쇄 매체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도 높다.

② 인쇄 매체는 책에서 해당 부분을 찾으며 읽어 봐야 하기 때문에 정보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③ 인터넷 매체는 정보 검색이 수월하고 짧은 검색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④ 인터넷 매체에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해야 한다.

05 자신의 배경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글을 쓸 때 아무런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독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특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글의 주제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되,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③ 글로 쓸 내용과 관련된 인물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도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④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배경지식)과 알고 싶은 내용(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도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06 수집한 자료에서 글에 활용할 내용을 선정할 때 반드시 예상 독자의 취향에 맞는 내용의 자료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자료뿐만 아니라 새롭게 알 필요가 있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를 골라야 한다.

② 자료의 내용은 공정해야 한다.

③ 자료는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활용해야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7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쓰면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더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설명문, 논설문, 정서를 표현하는 글 등 글의 종류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②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는 보통 글의 끝부분에 제시한다.

③ 글의 구성 단계에 맞게 조직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연결해야 한다.

④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8 가운데 부분에서 광고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일을 제시할 때는 광고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전문 서적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비전문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처음 부분에서 사례를 제시하면 글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② 광고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가운데 부분에서 광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광고인의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

④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글쓰기의 포부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⑤ 예비 광고인으로서의 다짐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속담 등의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09 고쳐쓰기를 할 때는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얻은 내용이 잘 종합되었는지, 매체의 특성이나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에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해야 한다. 글 제목은 중심 내용이나 주제가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목에서 글을 쓴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

10 글을 고쳐 쓰고 친구들과 돌려 읽으며 공유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와 생각이 다른 부분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글쓰기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언어 예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매체에 글을 올리기 전에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 고쳐 쓸 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② 자신이 쓴 글을 짝과 바꾸어 읽어 보고 고쳐쓰기를 할 수 있다.

③ 친구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적을 때에는 언어 예절을 지켜 바람직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④ 친구들이 자신의 글에 남긴 의견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누고 그러한 반응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글의 잘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파악하기 쉽다.

11 글쓰기는 그 글을 읽을 독자를 예상하며 글을 쓰고, 독자는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 글을 수용하는데, 이는 글쓰기와 독자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글을 쓰는 것은 글쓰기가 독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2 로봇 공학 분야와 다른 공학 분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로봇 공학 분야가 다른 공학 분야보다 어렵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중심 내용에 맞게 제목에서 자신의 꿈이 로봇 공학자임을 밝히고 있다.

②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소개할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가운데 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끝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 당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로봇 공학자로 성장해 나갈 자신의 미래를 응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자신과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3 이 글은 로봇의 구성 요소,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글에 쓸 자료를 선정할 때는 글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ㄱ은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하고 관련 지식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다. ㄴ은 이 글에서 로봇 공학 전문가인 홍○○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ㄴ. 이 글에 로봇 공학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ㄹ. 끝부분에서 글쓰기는 로봇 공학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로봇 공학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잡지 기사는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14 예상 독자가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면 전문적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로봇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글 시작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이 글은 2, 3, 4문단에서 지나치게 긴 문장이 사용되었다.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면 글의 흐름이 명확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③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잘 종합하여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때에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017~018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쓰기는 글쓰기와 독자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01 예지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할 것이라고 한 점,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겠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학교 학생들만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것이라고 했다.

② 요즘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면 독자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하고 독자들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④ 책을 읽고 알게 된 자신의 꿈을 알리는 글이니까 주제는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로 정해야겠다고 했다.

⑤ 자신과 관심 분야가 비슷하거나 로봇 공학자가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독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02 예지가 쓰고자 하는 글은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로봇 공학자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예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② 예지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는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예지는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따라서 이 주제를 더욱 구체화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예지는 로봇 공학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정보보다 개괄적인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적절하다.

03 인터넷 매체는 불특정한 다수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따라서 친근하고 편안한 말투를 쓰는 것이 인터넷 매체의 장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는 글,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인터넷 매체는 인쇄 매체와 달리 글꼴이나 독자 간에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③ 인터넷 매체는 인쇄 매체와 달리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을 수시로 점검하고 고쳐 쓸 수 있다.
 ④ 인터넷 매체는 독자의 의견이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서로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04 친구들과 글을 공유한 후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을 고쳐 쓰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친구들이 말한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중 아쉬운 점을 중심으로 고쳐 쓸 방향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선정한 다음,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글에 어떻게 반영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③ 자료 수집하기 및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책,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 중 글의 목적이나 주제, 독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자료들을 선정해야 한다.
 ④ 내용 조직하기 및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처음-가운데-끝'의 구조에 따라 짜임새 있게 내용을 조직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해야 한다.

05 수집한 자료 중 글에 쓸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쓰기 맥락을 고려했는지, 자료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했는지를 판단하고 글로 쓰기에 적절한 정보만을 선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지를 따지는 것은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②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것은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③ 글을 전달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인지를 따지는 것은 내용 전달 방법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④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최신의 자료인지를 따지는 것은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06 글쓰기는 4문단에서 앞으로 로봇 공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그 전망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로봇 공학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7 독자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글의 제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08 글을 쓰는 사람은 예상 독자의 요구나 반응 등을 고려하며, 글을 읽는 사람은 글쓴이가 쓴 글을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다. 이렇듯 글을 통해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는 쓰기 활동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임을 보여 준다.

(3) 시각 상과 촉각 상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20~026쪽

-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② **06** 문답법
07 ⑤ **08** ① **09**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배경지식 **15** ⑤ **16** ③
17 ⑥: 일반적 ⑥: 시각적 경험 **18** ③ **19** ② **20** (1) 시각 상 (2) 촉각 상 **21** ③ **22** 촉각 상 **23** ② **24** ③

01 이 글은 글쓴이가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쓴 설명문이다. 이 글에는 초상 갈래에 관한 사실 정보만 제시되어 있을 뿐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서술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프로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우르비노 대공 부부」 그림을 제시하여 프로필 초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나)에서 서양과 동양의 초상화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글의 처음 부분에서 파리의 테르트르 광장 이야기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2 글을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떠올려 보거나(ㄱ), 제목 등을 통해 전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ㄷ)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나. 책을 읽기 전에 책 내용을 미리 다 듣는 것은 올바른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어려운 내용이라면 보다 집중하여 세밀하게 읽는 것이 좋다. 한번 훑어보는 것은 매우 가볍고 쉬운 내용을 읽을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03 프로필은 서양에서 많이 그려지기는 했지만, 서양의 유일한 초상화 제작 기법은 아니다. (나)의 '서양에서도 정면 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을 통해 서양에서 정면 상이 그려진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한다.
 ② 프로필은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것이다.
 ③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정면 상 초상화가 발달했고 프로필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⑤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에 서양에서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04 이 글의 독자는 글을 읽으며 “서양에서는 측면 상을, 동양에서는 정면 상을 주로 그렸구나.”라고 하며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의 질문처럼 정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질문을 만들며 읽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궁금한 점에 대한 자료를 찾으며 읽고 있지 않다.
 ③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④ 글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질문을 만들고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지는 않다.

05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 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갈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동양에서는 주로 정면 상으로 초상화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 초상화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③ 동양에서는 정면 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 주는 대표적인 초상 갈래였다는 점으로 보아, 측면 상이 아닌 정면 상이 동양인의 특징을 잘 포착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얼굴의 특징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 측면 상이 발달한 것이며, 동양에서 인물의 앞 얼굴을 실루엣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 상이 발달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동양권에서도 정면 상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06 (다)의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과 옆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예시를 들어 동물이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을 지님을 강조하고 있다.

07 ‘전형으로서의 면’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대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면이다. 말과 물고기의 경우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며, 도마뱀은 위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물은 하나의 이미지 면, 즉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이 전형으로서의 면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읽는 중 활동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거나 주요 내용을 기록하여 읽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책을 더 찾아 읽을지 계획하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그림 자료와 글을 연관 지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③ 글을 읽는 중에 만난 어려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가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④ 글에서 비교하고 있는 두 대상의 차이를 메모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⑤ 글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려 보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09 백인과 흑인의 경우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더 잘 드러나고, 측면 상이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쉬우며,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측면 상을 주화에 새긴 전통이 있었다는 점은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에 해당한다.

10 고대 이집트 벽화가 정면 상과 측면 상을 함께 그리는 혼합 형식으로 그려진 것은 인체의 각 부위를 떠올렸을 때 대표적인 이미지가 측면인 부분과 정면인 부분으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인체의 특정 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인체의 각 부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면을 그린 것이지, 그리기 쉬운 방법에 따라 인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④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로 그리는 것이 당시 미술의 새로운 풍조였

는지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모습이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은 아니다.

11 ㉔는 인간이 네 발로 보행할 때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옆면을 의미한다. 나머지 넷은 모두 정면 상과 측면 상의 두 가지 이미지 면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은 측면과 정면이다.

② ‘혼합 형식’은 측면 상과 정면 상이 섞인 형식을 의미한다.

④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인간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⑤ 전형의 면이 두 개라는 것은 곧 인간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측면과 정면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12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 즉 부분 측면 상으로 그리는 것은 원근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인체의 실제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느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부분 측면 상은 인간의 두 개의 이미지 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하였다.

②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동서양 모두 부분 측면 상이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④ 원근 표현에 따라 그리면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원근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의 형태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처럼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쉽다.

13 동서양 모두 부분 측면 상을 발달시켰는데, 흥미로운 것은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그렸다는 사실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주인공이 부분 측면 상으로 그려지면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촉각 상에 토대를 두고 그림을 그렸다. 즉 고대 이집트 벽화는 부분 측면 상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다.

오답 풀이 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을 원근에 의한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사물의 객관적 형태와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촉각 상에 토대로 둔 그림을 그렸다.

②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을 원근에 의한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근법적 표현으로 인체를 그리는 것을 꺼렸다.

③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 속의 주인공이 내세에서도 이승과 같이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④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일지라도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이게 그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촉각 상을 토대로 사지의 객관적 형태가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그렸다.

14 (사)의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과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독자는 (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였을 것이다.

15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은 시각 상에 대한 설명이다. ⑤는 시각 상의 개념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촉각 상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 보면 같듯, 보이는 것과 관련 없이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③, ④ 시각 상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보는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다.

16 <보기>는 글을 읽는 중에 한 활동으로 글에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찾으며 읽으면 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읽기 전 활동으로 적절하다.

④ 읽은 후 활동으로 적절하다.

⑤ 읽는 중 활동으로는 적절하나, <보기>에서 활용한 읽기 활동은 아니다.

17 (차)에 따르면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이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즉 촉각 상에 기초한 그림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는데, 이렇게 시각 상에 기초한 그림은 특수한 표현이라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고 하였다.

18 ㉠은 촉각 상에 기초한 그림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은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시각 상에 근거한 표현이다. 따라서 ㉠에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뒤에 있는 사물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없다. 이를 통해 공간 표현을 할 때 시각적 사실성을 무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책거리 그림은 서가의 책, 벼루 상자 등을 그린 우리나라 민화이다.

⑤ 사물 하나하나를 촉각적 진실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 촉각 상에 토대를 둔 그림이다.

19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에서는 시각 상을 중시하여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였다. 고대 이집트 벽화는 대상에 따라 시각 상 또는 촉각 상으로 다르게 표현하였고, 이집트 벽화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대상의 신분에 따라 그림 그리는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고대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을 그림에 담았다.

③ 농부나 무희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는 시각 상에 가깝게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

⑤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는 정면과 측면을 병합하여 촉각 상에 가깝게 그렸다. 현대의 추상화 역시 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점·선·면·색채에 의해 표현한 그림이므로 촉각 상을 중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 (1) 이집트 벽화 중 「악사와 무희」에서 악사는 순수한 정면을, 무희는 순수한 측면을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시각 상에 토대를 두고 그린 것이다. (2) 촉각 상은 시각 상에 비해 고대 이집트인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라고 하였다.

21 (파)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는 대로 그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집트인들은 세계의 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고유 인식을 반영하여 그림 그리는 방식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과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은 인간이 지닌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미술의 보편적 기능에 대한 화가들의 생각이 각자 다를 것이라는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농부나 무희 등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시각 상으로 그려졌는데,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철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는 시각 상 역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고대 이집트 벽화가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보다 더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말할 근거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며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감상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즉 시각 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2 이 글의 끝부분에서 글쓴이는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각 상보다는 촉각 상에 바탕을 두고 미술의 의미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이와 같은 미술 관련 글을 읽으면 미술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술 이론 글만 읽고 미술 실기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읽고 나면 시각 상과 촉각 상을 고려하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③ 이 글의 내용을 읽고 추가 독서를 계획할 수 있다.

④, ⑤ 미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수용하여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4 친구들에게 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글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여러 번 세밀하게 읽는 방법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글 전체를 빠르게 읽는 것보다 세밀하게 꼼꼼히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② 글 전체의 내용을 대강 살피며 빠르게 읽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글을 읽을 때의 방법으로 적절하다.

④ 자신이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추려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므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만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⑤ 흥미가 가는 부분만 읽으면 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만큼 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㉔: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
㉔: 생각의 여로 06 ④ 07 ② 08 ①

01 (가)는 논설문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담겨 있고, (나)는 수필로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 오답 풀이** ㄱ.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일을 고백하는 글은 수필이다.
 ㄴ. 글쓴이가 알게 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a. 수필은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다루는 글이다.
 c. 허구의 인물이 벌이는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소설이다.

02 (가)에는 자동차 위주의 문화로 인해 보행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나타나 있지만, 이를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② (나)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니 오죽했겠는가.'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이 의미가 큼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보행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앞을 만났다는 것을 밝히며 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인간이 신중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자동차'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불평등한 자동차 문화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나)는 '책 속의 언어는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여로' 같은 것이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진정한 독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가)는 도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 다닐 권리,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등'에서 열거를 통해 도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나는 영국의 헨리 8세도 알게 되고, 중세 궁정의 풍속도 알게 되고,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도 알게 되었다.'에서 열거를 통해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새로운 앞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03 (가)는 논설문으로, 독자들은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타인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읽는 글은 수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논설문에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도가 나타난다.
 ② 글쓴이의 입장이나 관점이 드러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과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는다.
 ④ 수필은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이다.
 ⑤ 독자는 수필을 읽으며 자신을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04 (가)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글이므로, 이를 읽는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 삶의 이치나 교훈을 전해 주는 글이므로, 이를 읽는 독자는 글 내용에 공감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참고로, (가)와 같은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한다. 비판적 읽기란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따져

서 판단하며 읽는 것으로, 독자는 자신의 주관과 태도를 세워 논리적인 판단력으로 글을 평가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와 같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감상적 읽기를 해야 한다. 감상적 읽기란 글에 나온 여러 인물이나 사건에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읽는 것으로, 독자는 재미와 감동, 슬픔과 연민 등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글을 읽기 전에는 항상 자신의 읽기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
 ② 논설문을 읽는 중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수필에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깨달음이 드러나므로 이를 읽을 때에는 글쓴이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④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글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글쓴이가 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고, 수필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05 (나)의 글쓴이는 책 속의 언어가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㉔)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를 '생각의 여로'(㉔)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곧,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나 구절의 뜻만 아는 것이 독서가 아니라 그 단어나 구절, 결국 그 글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독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06 ㉔은 책을 읽기 전에 지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글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자동차에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다고 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평등을 이야기한 후,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리, 즉 보행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 다닐 권리,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등 구체적인 권리의 예들을 열거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으면서 영국의 헨리 8세, 중세 궁정의 풍속,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자신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독서가 유익한 활동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7 '기본에 충실한 세상'은 글쓴이가 바라는 세상으로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공공의 공간에서는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보행자인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공간에서 소수의 권리도 보장받는 세상은 ㉔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㉔은 자동차로부터 노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의미한다.
 ③ ㉔은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이다.
 ④ 공공의 공간에서는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㉔은 보행자의 권리가 운전자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을 의미한다.

⑤ 보행자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운전자보다 고농도의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고 하며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㉔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8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기쁨을 드러내고 있으며(ㄷ), ‘책을 읽는 일이야말로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독서의 힘에 대해 새롭게 얻은 인식과 깨달음을 밝히고 있다(ㄱ).

오답 풀이 ㄴ.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이지, 세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ㄹ.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ㅁ.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일 뿐 글쓰기가 『왕자와 거지』를 읽기 전, 세계에 대한 근시안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나)에 나타나 있지 않다.

소단원 평가

본문 029~033쪽

01 ③ **02** ④ **03** ③ **04** 사자가 인체를 완벽하게 갖추고 내세를 살게 하려고 **05** ⑤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 ⑤ **12** 미술의 정의(의의) **13** ④ **14** ③ **15** ① **16** ③ **17** ③ **18** ① **19** 현지와 동운이가 이 글을 읽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 ① **21** ②

01 (다)는 동서양 초상화와 차별화되는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 벽화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측면 상을 따르지 않고,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미지 면을 나타내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동서양의 초상 갈래를 비교하며 서양에서는 측면 상이 많이 그려진 반면, 동양에서는 정면 상이 발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② (나)는 인간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으로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④ (라)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내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물을 부분 측면 상으로 나타내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⑤ (마)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림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그림이 촉각 상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02 이 글에서 이집트인들이 건강하고 우람한 육체를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지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라)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 속의 주인공이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통해 고대 이집트인들이 내세가 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의 무덤 속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 상으로 그려지면 그 원근 표현에 따라 사자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부분 측면 상은 원근 표현이 적용된 화법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대영 박물관이 소장한 ‘뉴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에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뉴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과 같이 무덤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겠지만, 진화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된 것이다.’를 통해 인간이 네 발로 돌아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서 옆면과 앞면, 두 개의 전형의 면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을 읽은 독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혼 불멸 사상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반드시 다른 책을 읽을 때 활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③은 이 글을 모두 읽고 난 후 추가 독서 계획을 세우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책을 읽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이므로 읽는 중 과정에서의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읽는 중에는 어려운 단어의 뜻을 찾아 이해해 가면서 글을 읽도록 한다.

② 읽는 중에는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서 글을 읽도록 한다.

④ 읽는 중에는 글과 함께 제시된 그림을 글 내용과 연관 지어 이해하며 글을 읽도록 한다.

⑤ 읽는 중에는 미리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글을 읽도록 한다.

04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인물의 모습을 정면 상과 측면 상을 부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방식으로 그린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죽으면 내세를 산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무덤 속 주인공이 내세에서도 이승과 같이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자가 인체를 완벽하게 갖춘 채 내세에서 불편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면 상과 측면 상을 편의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그린 것이다.

05 ㉔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나타난,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이고 ㉔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면과 측면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식이다. ㉔가 ㉔보다 인간의 신체 부위를 더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방식이므로 ㉔보다는 ㉔가 정면 상과 측면 상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 ‘혼합 형식’은 측면과 정면의 모습을 함께 그리는 형태를 말한다. ‘뉴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에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 상을, 가슴과 눈은 정면 상으로 그린 혼합 형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를 보여 준다.

② ㉔ ‘혼합 형식’은 측면과 정면의 모습을 함께 그리는 형태로,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④ ㉔ ‘부분 측면 상’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원근 법적 표현을 따른 것이다.

06 글을 읽기 전 과정에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는 등의 읽기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⑤ 읽은 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②, ④ 읽는 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07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므로,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글쓴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 및 수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참고로, 이 글과 같은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사실적 읽기를 해야 한다. 사실적 읽기란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으로, 독자는 단어, 문장, 문단의 정보를 통해 그들의 의미 관계와 글의 핵심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한다.

② 설명문을 훑어보기로 읽으면 중요 내용을 놓칠 수 있으므로 집중하면서 꼼꼼히 읽어야 한다.

③, ⑤ 내용이나 주제를 음미하며 천천히 읽거나 글에 쓰인 표현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주로 문학 작품을 읽을 때의 방법이다.

08 (다)에서 ‘~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하였지만 스스로 질문을 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촉각 상과 시각 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가)에서 촉각 상과 시각 상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 보면 같듯’,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으로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고, (다)에서는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을 설명하면서 ‘말이나 글처럼’이라고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촉각 상과 시각 상을 비교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면서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09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시각 상 또는 촉각 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중시하면 시각 상으로, 실제 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면 촉각 상으로 대상을 나타낼 수 있다. 반드시 주체가 보는 대로 사물을 크거나 작게 그릴 필요는 없다.

10 제시된 글은 실제의 형태나 모양에 초점을 맞추어 그린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와 (다)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내며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1 ㉠과 ㉡는 모두 고대 이집트 벽화이나 이미지의 표현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의 주인공은 신분이 높은 존재로, 촉각 상에 가깝게 그려졌고 ㉡의 인물들은 신분의 낮은 존재로, 시각 상에 가깝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사물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리는 것은 촉각 상에 대한 설명이므로 ㉤는 ㉢가 아닌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촉각 상을 토대로 그려진 그림이다. 따라서 화가가 알고 있는 실제의 모양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③ ㉠의 주인공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으로,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인체의 정면과 측면을 편의상 통합하여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의 ‘무희’는 순수한 측면에서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주체가 본 그대로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12 (마)에서 글쓴이는 고대 이집트 벽화를 통해 미술의 정의(의의)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13 촉각 상이 진리를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의도가 잘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촉각 상이 그림의 가치와 위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지닌 것은 아니다.

② 촉각 상은 그림의 표면적 의미 외에 이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③ 그림에 담겨 있는 초월적인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인물이 지닌 권력이나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그림에 반드시 삶의 보편적인 진리가 담기는 것은 아니다.

14 ‘대변(代辯)’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 또는 그런 일’,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대표적으로 나타냄.’이고 ‘대변자(代辯者)’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 글의 ‘대변자’는 문맥상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뜻한다.

15 글을 읽기 전에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글의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하는 것은 대체로 ‘읽은 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16 (라)를 통해 ‘부분 측면 상’은 정면 상과 프로필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한 그림, 즉 측면 상 방식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부분 측면 상으로 인물을 묘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는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는 측면 상을 표현한 프로필과 달리 측면 상과 정면 상을 모두 이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프로필은 인물을 측면 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는 얼굴과 다리는 측면 상으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의 독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이러한 사상이 담긴 것은 아닌지 추론하고 있다. 즉,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8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라고 하여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도 (라)는 글쓴이의 생각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고 읽는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으로 볼 수 없다.

19 현지는 기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흥미가 가는 부분만 자세히 읽은 반면에, 동윤이는 이 글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 전체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두 학생의 읽기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두 학생이 선택한 읽기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20 (가)에서 촉각 상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며, (다)에서 이집트인들은 촉각 상을 이용하여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촉각 상은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시각 상에 비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대상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나타내는 것은 시각 상의 특징이다. ③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시각 상의 특징이다. ④ 대상의 위치에 따라 대상의 크기를 달리 표현하는 것은 시각 상의 특징이다. ⑤ (나)에서 시각적 사실성은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촉각 상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표현 방식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1 (라)에서 글쓰이는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글쓰이는 미술은 단순히 시각적 감각에만 의지하는 예술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시각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이 미술의 보편적 기능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미술의 역사가 시각 상에서 촉각 상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글쓰이는 오히려 촉각 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라)에서 글쓰이는 미술이 다양한 조정 형식에 의존하는 예술이라고 하였으나, 미술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⑤ 글쓰이는 동양과 서양 그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동양의 미술이 서양의 미술에 비해 예술적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대단원 평가

본문 034~039쪽

01 ③ **02**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가?,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은가? **03** ② **04** ㉠: 저자 ㉡: 저자명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② **10** ⑤ **11** 조직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함. **12** ③ **13** ⑤ **14** ④ **15**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6** ⑤ **17** ② **18** ㉠는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였고, ㉡는 글을 읽은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였다. **19** ⑤ **20** ⑤ **21** ①

01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의 단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에 종사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②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독서 목적을 정해서 독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④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은 자신의 적성을 드러내어 준다. ⑤ 자신의 적성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다.

02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준, 책에 대한 평가, 분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03 도서관 열람대에 비치된 컴퓨터 검색대에서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잡지, 논문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광고로 유명해진 상품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나 그에 관한 내용들은 찾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책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검색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경야는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하므로 ‘광고’, ‘홍보’ 등은 적절한 주제어이며, 이를 입력하여 책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③ 유명한 광고인들 중 그들이 쓴 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④ 광고 관련 책을 많이 펴내는 출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광고 관련 책들을 살펴볼 수 있다. ⑤ 선생님이 권해 주신 책 제목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04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 청구 기호는 ‘분류 기호-저자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저자 기호는 저자명을 문자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05 서준은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준의 말에서 친구가 선택한 책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예지는 책을 읽고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조건 받아들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② 예지는 로봇에 대한 책을 더 찾아 읽고,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 봐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③ 서준은 책을 읽고 적정 기술이 친환경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쉽게 기술을 배워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⑤ 정연은 책을 읽고 뇌 과학자인 저자는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주겠지만, 그 결과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고 말하며, 과학 기술이 빛을 볼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 과학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한다면,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 같다고 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06 또래인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쓰는 글이므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친구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글을 쓰므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내용을 구성한다.

② 완성한 글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글쓴이와 독자가 상호 작용을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③ 로봇 공학자의 강연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말을 인용하면 예상 독자인 친구들이 관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④ 교지는 인쇄 매체이므로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글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07 독서를 끝내고 독서 일지를 쓴 후에는 추가 독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기는 독서 일지를 작성할 때의 활동이다.

② 어려운 단어의 뜻 찾기는 글을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다.

③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은 글을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다.

⑤ 친구들의 발언을 들으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제시된 대화 과정에서 하는 활동이다.

08 이 글에서 로봇 공학과 경쟁 중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로봇 공학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소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로봇 공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로봇 공학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장치, 생각하는 장치, 움직이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로봇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③ 로봇 공학자는 산업,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 밝히고 있다.

⑤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 열정, 따뜻한 진심을 갖춰야 한다고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밝히고 있다.

09 제시된 댓글 내용은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에 대해 독자가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 글쓴이가 다시 댓글을 다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쓰기가 글쓴이와 독자가 상호 작용을 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요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므로 쓰기 자체가 부정적인 글쓰기 습관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독자의 좋은 평가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없다.

④ 읽기와 비교하여 쓰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계획하기, 자료 수집과 선정하기, 내용 생성과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의 글쓰기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사고하는 것은 쓰기가 사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10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되,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든 현대든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한 설화의 태도는 옳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얻은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해야 하므로 출처가 확실한 자료를 활용한 주만은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수집한 자료에서 글에 인용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므로 애라는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해야 하므로 동만은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글을 전달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해야 하므로 예진은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글쓴이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과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종합·조직하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내용과 형식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의미 구성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했었다.	상
내용을 다룬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형식을 다룬 〈조건〉을 충족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형식을 다룬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서술한 내용에서 의미 구성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2 ㉔은 글쓴이가 독자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와 같이 의문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동서양 모두 부분 측면 상을 발달시켰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드러난 인과 관계를 이해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④ 촉각 상, 시각 상 등 글의 중요한 개념은 기록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록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13 ㉔의 앞뒤 문맥을 보면 촉각 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보편적인 현상임을 설명한 뒤 시각 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특수한 현상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에는 앞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어질 때 쓰는 접속어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동서양에서 부분 측면 상이 발달했다는 내용 뒤에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㉔에는 앞의 내용을 전환할 때 쓰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사자가 이승과 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내용 뒤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부분 측면 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㉔에는 내용을 전환하여 앞 내용과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은 촉각 상으로 그림을 그린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내용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촉각 상에 기초한 표현을 더 강하게 이해한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㉔에는 앞 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하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 보이는 대로 그린 경우에 이어서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㉔에는 ‘하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은 대상을 원근에 따라 보이는 대로 그린 것, 즉 시각 상에 토대를 둔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인체 일부가 작게 그려지는 것은 시각 상에 기초한 표현이다.
 ② 벽화에 드러난 고대 이집트인들의 표현 방법은 촉각 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추상화를 통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방법이다.
 ⑤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표현 방식이다.

15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럽의 특정 시기에만 발달했고, 현대에서는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기 때문이다.’라는 형식을 충족하여 서술하였다.	상
(마)의 내용을 근거로 서술하였지만 〈조건〉의 문장 형식을 충족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조건〉의 문장 형식은 충족하였으나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6 (다)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 상을 이용하지 않고,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고 정면 상을 이용한 초상화가 발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바)에서 글쓴이는 고대 이집트 벽화를 통해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마)에서 현대에 들어서 추상화 등이 나타나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전통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고대 이집트 벽화는 인간의 두 가지 면, 즉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이 글은 시각 상과 촉각 상의 개념을 정의한 후, 시각 상과 촉각 상을 대조하여 미술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미술의 변화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시각 상과 촉각 상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④ 동서양 초상 갈래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 후 그 원인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시각 상과 촉각 상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일 뿐,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18 ㉔는 글을 읽기 전에 독자가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에 해당한다. 독자는 제목, 사진, 그림 등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는데, ㉔는 제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또한 ㉔는 글을 읽고 나서 미술에 대한 이전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한 것에 해당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㉔와 ㉔의 읽기 과정을 모두 맞게 쓰고, 그 구체적인 읽기 방법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㉔와 ㉔의 읽기 과정이나 ㉔와 ㉔에 사용된 읽기 방법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㉔와 ㉔의 읽기 과정과 그 구체적인 읽기 방법을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9 〈보기〉에서 ㉔는 대상의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㉔가 시각 상이 아니라 촉각 상을 사용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그에 비해 ㉔은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대상을 표현하였으므로, 시각 상을 사용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따라서 ㉔는 ㉔과 달리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을 중시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㉔만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② (바)를 통해 ㉔은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대상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㉔는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③ ㉔만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것이다.
 ④ (바)에서 진리 전달에 유리한 이미지는 촉각 상임을 알 수 있다. 촉각 상으로 그린 그림은 ㉔이다.

20 〈보기〉에서 얼굴은 측면 상으로, 가슴은 정면 상으로 그린 것은 촉각 상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보는 위치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달라지게 그리는 것은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하는 표현 방식이므로 시각 상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바)에서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에는 촉각 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네바문’은 촉각 상으로 그렸으므로 그가 신분이 높은 존재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② (마)에 언급된 시각적 사실성은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원근법적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이 표현 방식에서 보면 〈보기〉의 그림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③ (나)에서 측면 상은 정면 상보다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네바문’의 얼굴을 측면 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얼굴의 형태를 더 쉽게 재현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네바문’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방식은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21 책을 읽은 친구들과 독서 토의를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1) 향수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44쪽

- 01 ① 02 ② 03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04 ④
05 ③ 06 ① 07 ④

01 1연은 화자가 고향 마을의 정경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그리운 고향 마을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 화자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2연에는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③ 3연에는 꿈 많은 화자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타난다.

④ 4연에는 어린 누이와 아내가 햇살 아래 이삭을 줍던 모습이 나타난다.

⑤ 5연에는 흐릿한 불빛 아래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하고 단란한 고향 집의 모습이 나타난다.

02 이 시에서 화자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과 아버지, 누이, 아내와 같은 가족들, 그리고 단란했던 고향 집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 묘사된 자연 풍경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 마을의 배경으로 나타날 뿐,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에서 고단한 삶의 모습이 보이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도 그리움의 대상일 뿐, 그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시에 그려진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화자가 동경하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는 아니다.

⑤ 이 시에서 화자가 좌절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이 시의 후렴구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는 형식적으로 연과 연 사이의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어 연을 구분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또한 내용적으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절대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04 ‘밤물결’은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는 비유적 표현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들은 향토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실개천, 질화로, 짚베개, 얼룩빼기 황소’는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향토적 소재로,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05 이 시는 각 연마다 ‘~는/~던 곳’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한다. 이는 문장 구조의 반복에 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는/~던 곳’과 후렴구(시행)가 각 연마다 같은 위치에서 일정하게 배열되고 있는데, 이는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ㄱ. 3음보나 4음보와 같은 규칙적인 율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ㄴ. 유사한 음운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없다.
ㄷ. 행과 연에서 일정하게 글자 수를 맞추거나 반복하지 않는다.

06 ‘수구초심’은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다. 따라서 꿈에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화자와 관련지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만시지탄(晩時之歎/晩時之嘆)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망양지탄(望洋之歎/望洋之嘆)은 큰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한탄이란 뜻으로,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이다.

④ 풍수지탄(風樹之歎/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⑤ 고립무원(孤立無援)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07 ①은 ‘울음(청각)’을 ‘금빛(시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다. ④의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또한 ‘종소리(청각)’를 ‘동그라미(시각)’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다.

오답 풀이 ① ‘어둠(시각)’이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촉각)’라고 표현한 시각의 촉각화이다.

② ‘금으로 타는 태양(시각)’을 ‘울림(청각)’이라고 표현한 시각의 청각화이다.

③ ‘울음소리(청각)’를 ‘시리다(촉각)’라고 표현한 청각의 촉각화이다.

⑤ ‘바람이 부는 것(촉각)’을 ‘파랗다(시각)’고 표현한 촉각의 시각화이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김광균, 「와사들」

주제: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감상: 현대 물질문명의 무질서에 대한 고민을 그린 것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드러낸 작품이다.

② 박남수, 「아침 이미지」

주제: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감상: 아침이면 모든 물상들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③ 고은, 「열매 몇 개」

주제: 생명 탄생의 인고와 성숙의 기다림

감상: 생명의 성숙과 완성의 과정을 바라보며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작품이다.

④ 정한모, 「가을에」

주제: 영원하고 순수한 인간애의 기원

감상: 공포와 불의가 난무하는 폭력적인 세계를 인간의 순수한 휴머니즘 정신을 바탕으로 극복하려는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⑤ 윤동주, 「자화상」

주제: 역사 속에서의 자아 성찰과 고난 극복 의지

감상: 외딴 우물을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암울한 시대를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하는 작품이다. 자문의 형식 속에 지식인의 양심적 자제가 담겨 있다.

016 정답과 해설

01 ③ 02 오디 열매 03 ④ 04 ③ 05 ③

01 이 시는 산문시로서, 화자의 유년 시절을 고백적 어조의 줄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나 반복을 통한 운율이 드러나 있지는 않는다. 반면 「향수」는 유사한 문장 구조나 후렴구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즉, 운율 형성에 있어서 외적 규칙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뒷마루’를 ‘거울’에 비유하였고, 「향수」는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밤물결’에 비유하였다.

② 이 시는 유년 시절 외할머니의 사랑을 회상하며 그 그리움을 노래하였고, 「향수」는 고향에서의 풍경과 가족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④ 이 시는 ‘뒷마루, 장독대, 오디 열매’ 등의 향토적 소재가 쓰였고, 「향수」는 ‘실개천, 황소, 질화로, 짐베개’ 등의 향토적 소재가 쓰였다.

⑤ 이 시는 ‘먹오빛 뒷마루, 손때’ 등에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 「향수」는 ‘얼룩빼기 황소, 파아란 하늘빛, 석근 별’ 등에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02 이 시에서 ‘뒷마루, 장독대, 오디 열매’와 같은 시어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이와 같은 향토적 시어 중에서도 ‘오디 열매’는 화자가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고 난 뒤 찾아갔을 때 외할머니가 따 준 것으로, 화자가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위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03 화자는 과거의 외할머니네 집 뒷마루에 얹힌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을 감싸 주었던 외할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04 이 시에서 ‘뒷마루’는 화자가 외할머니를 떠올리는 추억의 공간이자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며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 풀이 ① 뒷마루는 한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시대 배경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② 뒷마루는 한국적인 인정과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지만, 시의 주제를 암시하는 소재는 아니다.

④ 뒷마루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지만, 외할머니 자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⑤ 뒷마루를 매개체로 하여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만,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05 이 시에서 ‘거울’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뒷마루를 비유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거울이 손때를 벗겨주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외할머니네 집 뒤안’은 이 시의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다.

② ‘손때’는 외할머니의 집안의 내력과 전통, 역사와 내력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④ 이 시는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 있는 뒷마루에 얹힌 추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장독대’와 같은 구체적인 향토적 소재는 이런 시적 상황과 내용에 생생함을 더해 준다.

⑤ 뒷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화자의 얼굴이 나란히 비친다는 것은 뒷마루가 세대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존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08 ⑤

01 이 시는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1연) →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2연) → 꿈 많던 어린 시절의 모습(3연) →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4연) →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 집의 정경(5연)’이라는 독립된 장면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회상하는 시적 상황에 따라 장면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1연과 마지막 5연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미 상관의 구조가 아니다.

③ 3연에서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으나 화자의 내면 묘사가 각 연마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1연과 4연이 고향의 외부 풍경을 회상하는 부분이고, 2연과 5연은 고향 집의 풍경을 회상하는 부분이며, 3연은 화자의 내면의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이다.

02 이 시의 5연에는 가족들이 흐릿한 불빛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는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 집의 모습이 담겨 있다. 따라서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는 모습은 영상물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얼룩빼기 황소가 우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이 나타나 있다.

② 2연에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겨울밤에 얽은 줄음에 베개를 고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 있다.

③ 3연에는 꿈 많던 어린 시절의 화자가 산과 들에서 뛰놀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4연에는 밤물결 같은 검은 머리의 누이와 평범한 모습의 아내가 따가운 햇살 아래 이삭 줍던 모습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03 이 시는 각 연마다 ‘~/~던 곳’이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보기〉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행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모두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만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② 이 시와 〈보기〉 모두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는 쓰이지 않았다.

④ 이 시와 〈보기〉 모두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특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의 경우 민요적 율격인 7·5조를 따르고 있으나, 규칙적이지는 않다.

⑤ 이 시와 〈보기〉 모두 특정한 위치에서 유사한 음운이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주제: 자연에서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

감상: 이 시는 가족애를 바탕으로 하여, 시인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동심에 기대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04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자연의 모습일 뿐,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은 변해 버려서 오히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화자가 고향의 자연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온 상태이다.

②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변한 고향의 모습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왔다는 기쁨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③, ⑤ 고단한 삶을 사는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과 초라한 지붕의 고향 집의 모습을 통해 이 시의 화자가 고향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화자는 그런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했던 모습과 평화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정지용, 「고향」

주제: 고향 상실의 비애

감상: 이 시는 고향에 돌아온 화자가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변함없는 자연사와 변해 버린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고향 상실의 아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05 ㉠에는 고단함에 잠이 드신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에는 사철 밭 벗고 일하는 농촌에서의 고단한 삶을 사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이런 모습들은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가족의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아버지와 아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늙은 아버지의 모습과 밭 벗은 아내의 모습에서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지만, 이는 화자가 추억하는 그대로의 그리운 고향 집의 가족들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화자가 회상하는 가족이 그 원인이 된다는 근거 또한 없다.

④ 아내는 화자와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대상이지만, 아버지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인지는 알 수 없다. 화자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거나 아버지의 삶을 좇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아버지와 아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추억 속의 인물로, 아내가 현재 화자를 힘들게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에는 사람이 아닌 대상인 실개천이 마을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역시 ‘하늘’과 ‘들’을 ‘입술을 다문’, ‘너’라고 호칭하고 있고, ‘말을 해 다오.’라고 하며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 같은 의인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면적으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임이 떠날 때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옛 맹서(맹세)를 ‘황금의 꽃같이’라고 비유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에 해당한다.

④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018 정답과 해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김소월, 「진달래꽃」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과 승화

감상: 이 시는 여성적 어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가정하고, 임과 이별하는 슬픔을 체념과 인종의 자세로 승화시키고 있다. 특히,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이육사, 「광야」

주제: 조국 광복을 위한 현실 극복의 의지

감상: 이 시는 ‘광야’라는 광활한 공간과 현실 초월적인 시간 의식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조국 광복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한용운, 「님의 침묵」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감상: 이 시는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별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님’은 절대자, 조국, 사랑하는 임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④ 유치환, 「깃발」

주제: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비애

감상: 이 시는 ‘깃발’을 통해 이상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상을 동경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한계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주제: 국권 상실의 현실과 회복에 대한 염원

감상: 이 시는 국토를 빼앗긴 민족 현실을 ‘빼앗긴 들’로 비유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국권 상실의 비극적 현실과 새로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을 대비시켜 우리 민족의 비통한 현실과 설움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07 ㉠은 이 시의 후렴구로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 시구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매 연마다 반복함으로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08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은 고향 마을의 계절적,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고향의 평화롭고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 줄 뿐, 화자와 그의 가족들의 가난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얼룩빼기 황소’는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정경을 보여 준다.

② 질화로의 재가 식은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 겨울밤이 깊어 감을 나타낸다.

③ ‘함부로 쓴 화살’은 어린 시절의 신비롭고 막연했던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

④ 어린 누이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을 밤물결이 춤춘다고 표현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2) 장마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49~058쪽

- 01 ⑤ 02 ⑤ 03 광과 장롱의 열쇠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오
늘(점쟁이가 예언한 날) 안으로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③ 14 돌멩이, 나뭇개비, 돌팔매질
15 ② 16 ① 17 ① 18 ③ 19 ① 20 ④ 21 ②
22 ③ 23 '나'의 삼촌 24 ① 25 ③ 26 ⑤ 27 ②
28 할머니의 머리카락 29 ①, ⑤ 30 ⑤ 31 구렁이가 상
처를 입어 몸과 꼬리 부분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32 ⑤ 33 ⑤
34 ④ 35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고,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36 ② 37 ④ 38 ⑤ 39 ③ 40 ⑤ 41 이념, 정서

0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써, 작품 속의 등장인물
이자 어린이인 '나'를 서술자로 하여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
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미성숙한 서술자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
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심리는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② '장마'라는 날씨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③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으며 외할머니는 피란을 온
상태로, 육이오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앞부분 줄거리'로 보아 이 글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02 '앞부분 줄거리'로 보아, '나'가 삼촌이 집에 온 사실을 낯선
사람에게 말한 일을 계기로 할머니는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으로 아들이 이념적으로 대
립된 처지여서 서로 거북한 상황임에도 두 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냈다고
하였다.

② 외삼촌의 전사 소식 이전에 '나'로 인해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
으므로, 이것이 갈등의 계기는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피란을 온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일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다.

④ 삼촌이 집에 몰래 온 일에 대해 외할머니가 갈등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나)에서 할머니는 가족들이 삼촌을 맞이하는 일에 대한 정성
을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
하고 있다. 광과 장롱은 집안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관하
거나 모아두는 곳으로, 그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04 '장명등'은 아들의 귀환을 고대하는 할머니가 밤에 켜 놓은 것
으로, 아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장명
등이 꺼졌다는 것은 곧 삼촌의 귀환에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암시하
는 불길한 징조이다.

오답 풀이 ① 가족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할머니의 생각일 뿐
이다.

② 누군가가 아침이 되어 장명등을 끈 것이 아니라, 긴밤에 저절로 꺼진 것
이므로 등이 꺼졌다고 하여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장명등은 할머니가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며 켜 놓은 것이므로, 등이 꺼
진 것은 불길한 징조이지, 할머니의 기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
시로는 볼 수 없다.

⑤ 삼촌을 기다리며 켜 놓은 불이 꺼진 것이 삼촌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나
타낸다고 여길 만한 이유는 없다.

05 (다)로 보아, 고모와 이모까지 합세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집
을 청소했다고 하였으므로, 외가 식구들이 할머니의 눈 밖에 나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큰자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찢찢'
이라고 하며 '나'의 아버지인 큰아들이 동생을 맞이하는 일에 소홀하다고
생각하고 노여워했다.

② 가족들은 봉창에 달린 유리 너머로 마당을 쳐다보는 할머니의 감시의 눈
초리를 뒤통수에 느껴 가면서 집 안을 치웠다.

③ 고모와 이모까지 합세하여 가족들은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안을 말끔히
청소했다.

④ '나'와 아버지는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
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장명등이 꺼짐을 발견
한 꼭두새벽부터 식전까지 작업을 한 것이므로 이른 아침으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

06 하늘이 아직 흐린 것은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
을 암시하며, 하늘이 조금 열리고 구름을 몰아가는 바람이 불어 다
시 비가 내릴 기미가 없다는 것은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
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의 날씨 배경은 앞으로 전개
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없다.

② 삼촌을 기다리는 사건이 진행 중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실마리를 제공하
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나
타나 있지 않다.

③ 배경 제시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전개 방향을 암시하므로, 이것만으로
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 수 없고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내용상 비가 그치는 다행스러운 일이 나타나 있으므로 갈등의 고조와는
거리가 멀다.

07 장명등을 꺼뜨린 일로 가족들에게 화가 나서 하는 말로, 앞으
로 집안일에 참견하지 않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이다. 이 말에는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잘하라
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② 봉창에 달린 유리를 통해 마당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무관심
하고자 결심한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아버지를 못마땅해하지만 큰아들 식구들을 다른 가족보다 더 미
워하는 상황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④ 무언으로 가족들을 독촉한 것으로, 혼자 아들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는 아
니다.

⑤ 아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상황으로, 자신에 대한 봉양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08 ㉠은 자신이 복이 없다고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고향에 가까울 정도의 큰 소리로 말한 것으로 보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질책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아들, 며느리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는 말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아들을 낳거나 며느리를 들인 것을 후회한다기보다는 꾸짖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③ 아들과 며느리가 기대에 못 미쳐 못마땅함을 나타낸 것으로, 무시와는 거리가 멀다.

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 아들의 귀환에 대한 믿음에 차 있으므로 절망과 관련이 없다.

09 이 날은 삼촌이 돌아온다고 점쟁이가 말한 날이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나'의 집에 모여든 이유는 점쟁이의 말대로 진시에 삼촌이 집에 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동네 사람들이 미신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할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할머니의 안부가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③, ④ 부엌을 드나들고 잔칫집처럼 북적거리는 것, 연줄을 찾아 말을 거는 행동 모두 삼촌이 돌아올 것인지, '나'의 가족들은 점쟁이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 ㉠의 이유는 이야기하기 편한 화제인 날씨 이야기를 먼저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서 주된 관심사인 삼촌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이상 날씨 이야기는 없으므로 오늘 날씨가 궁금한 것은 아니다.

② 날씨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다고 했으므로 마을의 주된 화제가 언제나 날씨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아버지의 직업이 날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오늘의 날씨를 보고 앞으로의 일을 짐작할 수 있다는 단서는 없다.

11 진시 전에는 가족들이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돕고 있고 진시가 지난 이후에는 모두 침통한 표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시 전의 가족들의 심리가 삼촌이 돌아올 것을 의심하고 점쟁이의 말이 맞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의구심)을 지닌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할머니는 삼촌이 오면 같이 먹겠다고 아침상을 못 차리게 하였으므로,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대로 삼촌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나'의 집에 모여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에서 진시가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가족 모두들 침통한 표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나'의 가족들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⑤ ㉥에서 구장 어른은 실의에 잠긴 '나'의 가족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고 있다. 따라서 안타까움을 느껴 위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진시가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태평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당일 안으로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13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점쟁이가 말한 시간에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므로 점쟁이가 용해도 시간만큼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남의 실수에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진시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식사까지 거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완고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 점쟁이가 말한 시간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오늘 안으로 아들이 꼭 돌아온다고 하며 아들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④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굳게 믿고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4 이 글에서 '돌멩이, 나뭇개비, 돌팔매질'은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인데, 구렁이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15 [A]에서 할머니는 점쟁이가 말한 진시에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아무 시'가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할머니의 태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아전인수(我田引水)'이다. 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학수고대(鶴首苦待)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전전공공(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의미하는 말이다.

16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어른이 된 '나'의 회상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B]는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반면 <보기>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그 소리가 무척 궁금했던'이라고 인물(동만)의 심리까지 전달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기>와 같은 시점을 사용하면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전달은 물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④, ⑤ <보기>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위치하므로, 누가 되었든 작중 인물은 서술자가 될 수 없다.

17 구렁이의 출현으로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할머니가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수습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는 의연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침착한 태도로 혼란을 수습하고 있으므로, 조금함과는 거리가 멀다.

③ 구렁이를 상대로 하여 혼자서 정해 놓은 순서를 밟는 것처럼 일을 해결해 가는 것으로 보아 소심한 성격은 아니다.

④ 외할머니는 혼란한 상황을 수습해 가는 것이지 구렁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니다.

⑤ 너그러운 태도를 지녔음을 짐작할 만한 근거는 없다.

18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가 주된 서술자이지만, [C]에서는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을 사용하면, 어린아이 서술자의 한계를 보완해서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성으로, 상황을 비판 없이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순수한 시선으로 대상을 보는 효과가 있다.
④ 서술자는 동일하게 ‘나’로, 1인칭 시점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⑤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담길 수 있다.

19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해치려는 ‘나’의 손을 잡은 것은 구령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삼촌이 귀환한다는 날에 집 안으로 들어온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나’를 꾸짖는 것은 구령이를 해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작대기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③ 할머니가 부릅뜬 눈으로 ‘나’를 꾸짖는 데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할머니가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며 구령이를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⑤ 구령이를 흉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삼촌이 현신으로 여기며 오히려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고 있다.

20 할머니가 졸도한 이유는 삼촌이 죽고, 대신 구령이로 환생하여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의 졸도가 삼촌의 귀환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삼촌 대신 나타난 구령이로 인해 할머니는 졸도하고, 이는 할머니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뒷부분에서 할머니는 극도로 쇠약해져 돌아가시게 된다.
② 할머니의 졸도는 두 할머니의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된다. 할머니는 구령이를 자신의 아들로 여겨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졸도하고, 그 사이 외할머니는 구령이로 인한 혼란한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한다. 이 사건은 이후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③ 구령이의 등장으로 삼촌의 죽음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 이상 삼촌을 기다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이전까지는 할머니가 삼촌의 귀환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지휘하는 등 사건을 이끌어갔다. 그런데 할머니의 졸도로 인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구령이를 달래서 배웅하는 역할을 외할머니가 맡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인물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21 ‘절정 1’에서 가장 큰 사건은 구령이의 출현이다. 삼촌이 오기로 한 날에 등장한 구령이는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고, 삼촌 대신 등장한 구령이로 인해 할머니는 졸도하기에 이른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이 환생하여 돌아온 것으로 믿고 있다.
③, ④, ⑤ 구령이의 출현에 따른 부수적인 상황들로서, 중심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상처 입은 구령이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령이 존재 자체가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존재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를 죽은 삼촌이 돌아온 것으로 보고 외할머니가 그 한을 달래고 있다.

②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구령이가 출현하여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므로, 이는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구령이의 상처는 우리 민족의 상처를 상징한다.
⑤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죽은 삼촌으로 대하며 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려고 구령이를 달래고 있다. 할머니가 졸도하여 부재하는 상황에서 할머니를 대신하는 외할머니의 이러한 행동은 할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23 ㉠은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보고 하는 말로 구령이에게 집안 일을 못 잊어 왔냐고 묻는 걸로 보아,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죽은 삼촌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구령이에게 사람을 대하듯이 말하는 외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은 이유는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구령이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웃음을 줄 요소는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삼촌이라 생각하여 달래듯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하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웃은 것은 아니다.
④ 외할머니의 말에 대한 구령이의 반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구령이가 무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⑤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웃음을 유발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5 외할머니는 구령이가 이승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족을 걱정하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은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한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전쟁의 피해로 인한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② 외할머니가 식구들이나 집안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은 집안이나 식구들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승을 떠나지 못해서 생긴 괴로움은 아니다.
④ 외할머니가 달래는 말로 보아, 할머니를 봉양하는 구체적인 문제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집안이나 식구들과 관련되므로 이념의 문제는 아니다.

26 안방에 있는 식구들은 졸도한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어서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갔을 때 ‘나’의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려 ‘나’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안방에 있는 식구들은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달래고 있는 밖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가 이승에서 떠돌고 있는 구령이를 보면 가슴이 메어 질 것이라고 하거나 할머니가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볼 때,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외할머니는 음식들과 냉수를 차려 놓고 구령이를 달래고 있는 것에서 구령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안방에 있는 식구들은 졸도한 할머니의 주변에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할머니가 깨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어 와 태우려는 것으로 보아,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려고 땀을 쫓는 묘방을 알려 준 어떤 아낙네의 말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함을 알 수 있다.

27 (파)에서는 ‘나’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어 가져오는 장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부분에 제시된 배경은 없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닌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시간 순서를 뒤바꾼 역전적 구성은 쓰이지 않았다.

⑤ 서술자인 ‘나’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28 외할머니는 ‘나’가 얻어 온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며 구령이를 달래서 보내려고 한다. 따라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구령이의 원한을 푸는 매개물이자,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와 혈육의 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9 호박전과 고사리나물과 같은 음식들은 할머니가 아들이 오면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음식들로,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이와 같은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할머니를 대신하여, 아들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전해 주고 구령이를 달래서 보내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② 삼촌의 환생으로 믿는 구령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지, 두려움 때문은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구령이를 달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외할머니는 삼촌 대신 구령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절정 2’에서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달래서 배웅함으로써 구령이가 출현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 구령이가 한을 풀고 떠나게 함으로써 갈등 관계에 있던 할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를 달래서 배웅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할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될 계기가 마련되므로 비극적인 결말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② 외할머니는 할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이며,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내용은 없다.

③ 구령이를 배웅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어지는 사건을 유발하는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의 주제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화해로 볼 때, 외할머니의 행동을 통해 이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31 구령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므로, ‘민족의 상처, 역사의 상흔’은 (거)에서 상처를 입은 구령이가 제대로 형체를 갖추지 못한 채 몸과 꼬리 부분이 따로 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외할머니는 구령이에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먼 길을 편안히 가라고 할 뿐, 이승에 남은 가족들을 보살필 것에 대해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집안일을 형님(‘나’의 아버지)한테 맡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으로 여기고 있다.

② 구령이가 한을 풀고 가는 것에 대해 ‘고맙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몸이나 성해서 제발 먼 길을 편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는 구령이가 무사히 저승길에 이르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편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구령이를 이승에서의 한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오랜 시간 움쩍도 하지 않던 구령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희한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른다는 서술 이후 위리가 짊어 대고 있었다는 서술이 나온다.

② 구령이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할머니가 터 준 길을 따라갔지, 외할머니를 해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③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자 그에 따라서 눈 앞에 벌어진 광경, 즉 구령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에 탄성을 지른 것이다.

④ 외할머니가 “쉬이! 쉬이!” 하며 구령이에게 연신 소리를 지른 것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른 다음 구령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34 (더)~(머)에서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가족들을 통해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배웅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사를 포함으로써 두 할머니는 화해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더)~(머)에서 일어난 일은 구령이를 보낸 이후이므로 구령이의 출가는 중심 사건이 될 수 없다.

②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외할머니와 화해하는 일과 같이 이어지는 사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중심 사건은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할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된 후 처음 큰방 출입을 하게 된 것은 할머니와의 화해를 의미하지만, 이 자체가 중심 사건은 아니다.

⑤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고 잘 달래서 배웅했으므로, 사투를 벌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일은 (더)~(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35 (머)에서 할머니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외할머니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그 손을 외할머니가 잡고 있다. 따라서 두 할머니가 손을 잡은 행위는 곧 두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직접 드러내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36 (러)에서 할머니가 “갔냐?”라고 한 말 속에는 구령이로 환생한 삼촌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안심한 것은 아들이 이승에서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 즉 자신의 아들을 걱정한 것이다.

③ 구령이를 자신의 아들의 환생으로 보고 있으므로, 구령이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구령이 존재 자체를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

⑤ 저승으로 떠났다고 믿기에 안심한 것이므로, 구령이가 되어 다음 생을 이어 간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37 구령이를 외할머니가 배운 일 해 듣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 것은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자신이 직접 배운 하지 못한 아쉬움, 아들이 한을 풀 것에 대한 안도감, 아들을 잘 배운 해 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의미의 허무함과과는 거리가 멀다.

38 (떠)~(서)는 소설의 구성 단계상 결말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 외할머니와 할머니, ‘나’와 할머니 간의 갈등이 해소되며 사건이 종결된다.

- 오답 풀이** ① 작품의 배경 제시는 대체로 작품이 처음 시작하는 발단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② 사건의 실마리 제공은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 단계상 발단에 해당한다.
 ③ 인물 간의 갈등 고조는 사건이 전개되면서 인물 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위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④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이 나타나는 단계는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가 나타나는 전개 부분에 해당한다.

39 ㉠에는 할머니의 의식이 들었다 나갔다는 반복하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을 의미하는 명재경각(命在頃刻)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닳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좌불안석(坐不安席)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④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만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⑤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40 ㉠은 민족적 비극의 종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준다.
 ② 지루한 장마였다는 과거형 진술을 통해 장마가 끝났고, 사건이 장마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장마가 끝났다는 표현을 통해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④ ‘장마’는 이 글에서 가족이나 민족의 불행을 의미하고 있는데 ‘장마가 끝났다.’라는 표현은 가족이나 민족에 닥친 불행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41 이 작품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전쟁과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 및 민족의 비극과 갈등이 민족의 정서적 합일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59~060쪽

01 ㉠ 02 ㉠ 03 ㉠ 04 상원사, 치악산 05 ㉠ 06 ㉠ 07 ㉠

01 글의 갈래상 이 글은 전설, 「장마」는 소설이다. 이 두 양식은 서사 갈래에 포함된다.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일정한 짜임새를 갖추어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 오답 풀이** ㄱ.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단순한 형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전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ㄴ. 대체로 여러 인물과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는 구성을 취하는 것은 소설에 해당한다.
 ㄷ. 민족 전체의 사상과 정서 및 풍습 등을 담고 있으며 전기적이고 우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설화에 해당되는 특징이다.

02 「장마」는 육이오 전쟁을 배경으로 당시의 한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을 민족적 비극의 차원으로 확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허구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이지만, 사실적인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이 글은 전설로서, 구령이가 여인으로 변하는 등 비현실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 오답 풀이** ㉠ 이 글은 원주 상원사와 치악산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며, 「장마」는 시골집의 마당이나, 대밭, 큰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이 글에서는 구령이와 평이, 「장마」에서는 구령이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고, 「장마」의 서술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이다.
 ㉣ 이 글은 청년과 구령이의 갈등이 중심이 되지만, 「장마」는 한 가족 안의 인물들의 갈등, 나아가 민족의 대립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

03 ㉠은 껌병이들을 잡아먹으려다가 청년이 쓴 화살에 죽은 남편의 아내로, 자신의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는 구령이 스스로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한을 풀고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이라 생각하고 그 한을 풀게 하고자 샤머니즘적 의식을 진행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은 집주인인 여인으로 변해 청년을 죽이기 위해 빈방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며, ㉡는 외할머니에게 음식들과 배웅을 받는 등 정성껏 대접을 받는다.
 ㉡ ㉡는 여인이 변한 모습이며, ㉢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죽은 삼촌이 환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이다.
 ㉢ ㉢는 청년을 죽이려다가 자신이 말한 대로 종이 세 번 울리자 청년을 풀어 주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다. ㉣는 삼촌이 온다는 날에 집 안으로 들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외할머니의 의도대로 감나무에서 내려와 집을 빠져 나간다.
 ㉤ ㉤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청년을 죽이고자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이다. 반면 외할머니가 ㉢를 극진히 배움함으로써 그 고마움으로 인해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하게 되므로 ㉢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04 이 글에서 전설의 구체적인 증거물은 청년이 지었다는 절로서 지금도 남아 있는 ‘상원사’와 전설의 내용에 따라 적악산에서 이름이 바뀐 ‘치악산’이다.

05 구령이는 오늘 밤이 새기 전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나면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청년을 살려 주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깊은 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리 없으므로 청년은 기대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때마침 종소리가 세 번 울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는 꾀병이 어미가 새끼를 살려 준 청년에게 목숨을 바쳐 종을 울린 것이므로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청년이 꾀병이들을 구하기 위해 구령이에게 화살을 쏘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구령이의 아내가 청년을 죽이려 하고, 이 사실을 안 꾀병이 어미가 청년을 구해 준다. 따라서 [A]는 [C]에서 맞는 위기의 원인이 되면서 후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구령이가 남편의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인으로 변해 하룻밤 묵은 청년에게 정성껏 대접하여 배불리 먹인 뒤 잠이 들게 한 것이므로 [B]는 [A]에서의 일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구령이의 의도가 담긴 조치라고 볼 수 있다.

④ [E]에서 꾀병이의 어미가 꾀병이들을 구해 준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종을 울려서 자신을 살려 준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이후 청년은 한 양으로 이름을 날리려 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 절을 크게 고쳐 준다.

⑤ 커다란 구령이에게 새끼들이 죽을 뻔했던 꾀병이들의 어미는 새끼들을 살려 준 고마움에 온몸으로 종을 울려 청년을 살리고 그 은혜를 갚는다.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 평을 통해 은혜를 갚는 신의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06 구령이가 꾀병이들의 어미에게 양갓음을 한 것이 아니라, 꾀병이들을 구해 준 청년에 대한 고마움에서 청년을 살리기 위해 꾀병이들의 어미가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는 청년이 자기 남편을 죽인 일로 원수를 갚기 위해 청년의 몸을 감은 것이다.

② 구령이는 밤이 새기 전에 종소리가 세 번 울리면 청년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청년이 한숨을 쉬 이유를 서술자가 개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기와집이 사라진 것은 비현실적인 요소이다.

07 구령이는 오늘 밤이 새기 전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나면 청년을 살려 주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깊은 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리 없는데, 동이 틀 무렵 종소리가 세 번 울린다. 이 일을 두고 서술자는 참 신기한 일이라면서 인물의 상황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는 날이 새기 전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울리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년과 약속을 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은 청년이나 서술자 모두 동일했으므로 종소리가 세 번 울리는 일이 일어나자 신기하다고 서술한 것이다. 구령이가 약속을 지켜 신기한 것은 아니다.

② 신기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은 구령이가 청년을 풀어 주고 기와집이 온데 간데 없어지기 전의 일이다.

③ 신기한 일이라고 평가할 때까지 청년은 여인의 실체가 구령이인 줄 알지 못하였다.

④ 구령이가 청년의 몸을 풀어 준 자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종이 세 번 울릴 수가 없는데 때마침 종이 세 번 울렸기 때문이다.

024 정답과 해설

소단원 평가

본문 061~065쪽

01 ⑤ **02** ② **03** ④ **04** 장명등은 삼촌의 생환을 고대하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그런데 진사가 지나도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육이오 전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이 입은 상처 **11** ① **12** ③ **13** ⑤ **14** 구령이의 출현 **15** ③ **16** ②

0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자 어린아이인 ‘나’이다.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서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관찰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나타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서술자인 ‘나’의 회상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②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 아들을 둔 외할머니의 처지에서 비롯된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③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육이오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다.

④ 이 글은 장마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흐리고 음울한 장마라는 배경이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 이 글은 ‘나’의 가족과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정한 인물의 심리를 다루거나 그 변화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인 시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민족의 비극적인 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④, ⑤ (라)에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되어 과거를 회상하여 전하는 어른인 ‘나’의 시점이 혼재되어 어린 관찰자라는 서술상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있다.

03 (마)에서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확신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며 아들의 귀환에 집착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의 생환을 의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점쟁이가 아들이 돌아온다고 예언한 날에 아들이 꼭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②, ③, ⑤ 할머니는 점쟁이가 예언했던 진시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무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당일 내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식사도 하지 않으며 아들의 귀환에 집착하고 있다.

04 장명등은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할머니가 삼촌이 집에 잘 찾아오도록 배려해 켜 놓는 것으로, 할머니의 삼촌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장명등이 꺼졌다는 것은 삼촌이 집을 찾아오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A]는 구렁이의 출현, [B]는 할머니의 졸도, [C]는 구렁이를 배웅한 사건이다. [C]에서 외할머니가 의연한 태도로 성심껏 구렁이를 배웅한 것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고, 쓰러진 할머니를 대신하여 잘 달래서 보내 주기 위함이다. 할머니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사건 전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구렁이의 출현은 할머니의 졸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사건을 전환시키는 요인이 된다.

②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기 때문에 구렁이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제지한 것이며, 이후 구렁이를 잘 달래서 보내려고 하고 있다.

③, ⑤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대신하여 구렁이를 배웅한 것을 계기로, 두 할머니는 화해하게 된다.

06 집 안에 들어온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것은 돌팔매질을 하려는 아이들로부터 구렁이를 보호하고 호기심에 구렁이를 구경하려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진정시켜 구렁이를 내보내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기는 것이나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내보내려는 것에서 외할머니가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함을 알 수 있다.

② 외할머니는 '먼 걸음'이라고 하며 구렁이가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③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 여기며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하여 구렁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⑤ 외할머니는 구렁이의 갑작스러운 출현에도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07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은 무속 신앙에 근거한 것으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움으로써 한 맺힌 구렁이에게 할머니의 인간적인 체취를 느끼게 하여 구렁이를 안심시켜 돌려보내기 위한 행동이다. 따라서 '할머니의 흰머리'는 구렁이의 한을 풀어 주는 매개체이자 죽어 돌아온 삼촌을 위로하는 할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08 ㉠에서 두 할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을 잊지 못한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할머니의 감사한 마음과 외할머니의 위로가 서로 전해지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불립문자(不立文字)는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② 심심상인(心心相印)은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교외별전(敎外別傳)은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09 이 글에서 '장마'는 한 가족의 비극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자, 나아가 민족의 비극인 육이오 전쟁을 상징한다. 따라서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한 가족의 갈등과 민족의 비극이 끝났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장마'의 날씨로 인한 피해는 제시되지 않는다. '장마'가 날씨 배경이긴 하지만, 이는 육이오 전쟁 당시 한 가족과 민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쓰이고 있다.

10 구렁이는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처를 입은 상태이다. 이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육이오 전쟁과 관련지어 볼 때 육이오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어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11 이 글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쓴 소설이다. 서사 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를 구성 요소로 하여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의 구성 단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은 수필이다.

12 이 소설은 '나'라는 어린 화자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작중 인물인 '나'는 두 할머니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관찰하여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면 사실감을 높일 수 있지만 이 글에 구체적 지명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각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며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제시된 지문에서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특정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지도 않다.

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드러내고 있지 않다.

13 (마)에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간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시간적 배경이 할머니의 죽음을 예고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삼촌이 돌아온다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② (나)에서 구렁이를 보고 놀란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한다. 이는 상황의 급박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③ (다)에서는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집을 떠나는 구렁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갸냐?'라는 할머니의 말과 구렁이를 바라다 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행동을 통해 할머니가 느끼는 안도감과 아쉬움 등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4 (가)를 통해 '나'의 가족이 삼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출현한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생을 의미한다. (나)에서 할머니가 구렁이를 보고 졸도하고, (다)에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함으로써 구렁이가 출현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는 (마)에서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구렁이의 출현은 사건 전개의 전환점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15 <보기>는 '나'를 '동민'으로 지칭하며 동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내막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 다른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할 수 없으나,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에는 각 등장인물의 심리와 내면을 서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사건의 정황이나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자세하게 드러내는 전지적 작가 시점

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가)는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가)의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만 전달하고 있을 뿐, 그 인물의 속마음까지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보기>의 서술자는 ‘나’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든 상황과 인물들의 속마음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6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인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불행인 육이오 전쟁을 상징한다.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음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마’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대립 때문이다.

④ ‘나’의 가족은 우리 민족의 불행인 육이오 전쟁으로 인해 비극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마’가 사회의 억압으로 인한 아픔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장마’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슬픔을 극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갈등의 극복을 의미한다.

(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67~081쪽

- 01 ② 02 ④ 03 몽타주 04 장난감 강아지 05 ④
06 ③ 07 ② 08 ② 09 ④ 10 월리가 사라진 일
11 ③ 12 ⑤ 13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월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4 ① 15 월리를 돌려주며 사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구해서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이다. 16 ④ 17 ⑤ 18 ④ 19 ③ 20 ②
21 ④ 22 ④ 23 ⑤ 24 ② 25 ② 26 ② 27 ③
28 전단 29 ② 30 ② 31 시유(C.U.) 32 ② 33 ⑤
34 ② 35 ② 36 ③ 37 ③ 38 ③ 39 ④ 40 생일 파티를 할 집이 없어서 41 ⑤ 42 ③ 43 모켄족
44 ③ 45 ④ 46 ④ 47 아빠의 글 48 아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49 ①, ⑤ 50 ② 51 ② 52 돈을 받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 53 ① 54 ⑤ 55 ⑤ 56 ④
57 ㉔: 노부인, ㉕: 아빠 58 ⑤ 59 ③ 60 ③ 61 ②
62 ④ 63 ③ 64 도시락 65 ① 66 ②

01 이 글은 시나리오로 이와 같은 글은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을 거쳐 영화로 상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공연하는 희곡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영화 편집이나 작가의 장면 설정에 따라 장면을 바꾸는 것이 자유롭다.

③ 구성단위가 장면 번호인 신(Scene)으로 표시된다.

④ 시나리오 용어로 촬영 방법과 관련된 ‘시유(C.U.)’, ‘인서트(Ins.)’ 등의 특수 용어가 사용된다.

⑤ 인물의 행동이나 배경 설정 등을 나타내는 지시문과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된다.

02 ‘앞부분 줄거리’로 보아,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인물은 정현이며, 지소는 그 레스토랑에서 봤던 개인 월리를 훔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고 집까지 없어져서 지소는 엄마, 동생 지석과 작은 승합차에서 한 달째 살고 있다.

③ 채랑은 지소의 친구로, 지소를 도와 함께 개를 훔치려고 한다.

⑤ 지소는 동물 병원에 검진을 온 월리를 먹이로 유인해 훔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03 ‘S# 62’에서는 레스토랑 마르셀의 정원과 홀,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1~5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화면을 적절히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것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소와 채랑이 월리를 훔치는 진행 과정을 축약하여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04 ‘S# 62’에서 지소는 장난감 강아지를 이용하여 레스토랑 홀의 내부를 혼란스럽게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그 사이에 사료로 유인하여 월리가 열린 문틈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는 장난감 강아지이다.

05 지소와 채랑은 사료로 월리를 유인하여 훔치려고 했으나 수영의 방해로 실패한다. 그러나 수영과 박 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 트렁크에서 월리를 꺼내 마르셀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오답 풀이 ① 수영이 월리를 안고 주위를 둘러보며 밖으로 나와 박 이사 차 트렁크에 넣는 것으로 보아 월리를 몰래 빼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월리의 목에 있는 방울 목걸이에 “윤서오”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에서 월리의 주인이 ‘윤서오’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지소는 트렁크에 개를 넣는 박 이사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⑤ 채랑은 마르셀에 가서 월리를 훔치려는 지소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

06 ㉔의 시유(C.U.)는 클로즈업(close-up)의 약자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나리오 용어이다.

오답 풀이 ① 화면을 점점 밝게 하는 것은 ‘F.I.’이다.

② 화면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은 ‘F.O.’이다.

④ 두 개의 화면을 겹치게 하는 것은 ‘O.L.’이다.

⑤ 다른 화면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은 ‘인서트(Ins.)’이다.

07 지소는 개를 트렁크에 넣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㉔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알맞은 것은 수영과 박 이사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뭔가 수상한 듯’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채랑이 “왜?”라고 반문했으니 혼잣말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③ 수영과 박 이사의 행동을 숨어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소가 당황한 표정을 지을 이유가 없다.

④ 채랑의 말에 대한 반문이 아니라 수영의 행동에 대한 의아함을 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응이므로, 기쁜 마음을 지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에서 지소와 채랑이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 것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월리를 훔칠 기회가 생겼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른다.

④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른다.

⑤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 겸손히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을 이른다.

09 월리의 방울 목걸이에 있는 ‘윤서오’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의 주인과 연락처이다. 그러므로 지소가 이를 던져 버린 이유는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여 훔친 개라는 사실을 듣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개의 목걸이가 있다고 하여 개 스스로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월리라는 개가 마을에서 잘 알려진 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③ 윤서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개의 주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⑤ 월리가 목걸이를 불편해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0 ‘S# 67’에서 노부인이 수영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수영을 질책하며 못마땅해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월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부인과 수영 간의 갈등이 발생한 계기는 월리가 사라진 일로 볼 수 있다.

11 ‘S# 67’에서 노부인이 수영에게 “넌 눈을 어디에 달고 있는 거야?”,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쓸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수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영에게 월리의 행방을 묻는 등 일을 시키고 있으므로, 수영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② 월리가 사라진 일에 대해 책망하므로 수영을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수영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노부인은 수영이 월리를 빼돌리려는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수영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다.

12 수영은 월리를 박 이사에게 넘겨 빼돌리려고 했으므로, 노부인이 월리를 찾는 물음에 모르는 척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보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13 <보기>를 통해 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 남긴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월리가 없어졌으니 충격을 받아 노부인이 주저앉게 된 것이다.

14 수영은 재산 상속 문제로 노부인에게 분노하긴 했지만 노부인이 쓰러지자 노부인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영의 심리는 ㉡ 앞의 지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제시된 대사에서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 보시는 게…….”라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 ‘S# 71’에서 지소는 월리를 훔쳤으니 사례금 오백만 원을 요구할 것이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해 생일에 친구 모두를 집으로 초대해 멋진 파티를 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지소가 월리를 훔친 이유를 알 수 있다.

16 지소는 월리를 빈집에 숨겨 놓았는데, 대포가 나타나 월리에게 관심을 보이자, 자신이 개를 훔쳤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당황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포가 월리를 빼앗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지소가 대포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월리를 돌봐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자신이 세운 집을 구하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으므로 대포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포는 지소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다.

⑤ 대포가 월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만, 이러한 대포의 행동에 월리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 ㉠은 부동산 중개소에 붙어 있던 전단이다. 전단에는 빨간 지붕의 아담한 이층집 사진이 있는데, 지소는 이 전단을 보고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동산 중개소에 붙어 있던 전단과 지소의 미래와는 관련이 없다. 이 전단은 ‘S# 71’에서 지소가 생일 파티를 하는 상상에 빠지는 계기로 작용할 뿐이다.

② 지소는 전단을 보고 오백만 원만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므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③ 지소는 전단에 나온 집을 사서 고난을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고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한다.

④ 어린아이인 지소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집을 구해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기 때문이며, 부동산 전단을 통해 아빠를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18 지소가 처음 차에서 자게 된 것은 집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훔친 월리 역시 집을 잃고 폐가에 와 있는 것이므로, 지소는 월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이 월리의 눈빛도 쓸쓸하고 슬픈 표정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월리를 훔쳐서 처음 폐가로 왔으므로 정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월리에게 폐가가 익숙한 곳은 아니다.

③, ⑤ 지소는 폐가에 온 월리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이므로, 아빠가 없는 상황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 ‘S# 73’에서 채랑은 월리를 찾는 전단이 붙지 않자, 다른 개를 훔쳐야 하는지 지소의 의견을 묻고 있을 뿐, 혼자 다른 개를 훔쳐

서 지소에게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봤다고 이야기한 것은 노부인이 월리를 찾으려 하기 위함이다.

② 노부인은 월리가 제 발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하며, 지소에게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지소는 대포에게 폐가에서 자연 안 된다고 하며 못마땅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월리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포가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⑤ 노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월리가 없어야 하는데 지소가 월리를 봤다고 하자 수영은 초조해하고 있다.

20 지소의 계획은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주인에게 데려다준다. → 사례금을 받는다. → 집을 사고, 생일 파티를 한다.’이다. ‘S# 73’에서는 지소는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1 지소가 ㉔과 같이 초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월리를 찾는 전단이 없다면, 자신이 월리를 주인에게 데려가도 사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2 지소가 ㉔처럼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은 것은 월리를 훔친 것도 떼뻗지 못한 상황인데다 월리를 봤다는 장소까지 거짓말로 둘러대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월리를 훔친 것은 지소 자신이기 때문에, 월리를 본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거나 상황 설명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③ 노부인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할 이유는 없다.

23 노부인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찾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소의 말을 듣고 월리를 찾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노부인은 지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영은 갑자기 찾아와 월리를 찾는 데 사례금 오백만 원을 제시하라는 지소의 말에 황당해하고 있다. 그런데 노부인이 지소의 말대로 해주라는 지시를 내려서 노부인에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네?”라고 반문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노부인이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월리는. (혼잣말로)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소는 노부인에게 아빠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④ 노부인은 지소의 말을 다 듣고 지소의 요구대로 월리를 찾는 전단을 붙이라고 수영에게 지시하고 있다.

24 지소는 월리가 제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기 아빠도 길을 잃어버려 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노부인은 굳었던 표정이 풀리고, 아빠와 월리가 꼭 집에 돌아올 거라는 지소의 단호한 대답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25 지소가 사례금으로 오백만 원을 말한 이유는 자신이 사려는 집을 오백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오백만 원으로 집을 사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는 것이지, 그 돈으로 생일상을 차리려는 것은 아니다.

③ 오백만 원은 집을 구하기 위한 돈으로,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집을 구하려는 것이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④ 지소는 노부인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⑤ 지소는 노부인이 진심으로 개 월리를 찾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26 노부인이 ㉔과 같이 말한 이유는 단지 월리를 봤다고 말한 지소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고 다시 강변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지소를 노려보며 말하고 있으므로, 호기심이나 놀라움, 반가움 같은 긍정적인 심리는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떻게 아는지 반문하여 지소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서글픔은 적절하지 않다.

27 ㉔는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 주며 전단에 사례금을 넣을 것을 말할 때의 지시문이다. ㉔ 뒤에 이어지는 지소의 대사에 말줄임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소는 끝말을 흐리고 있다. 이는 전단을 붙이라고 주장하는 목적이 자신이 훔친 개에 대한 사례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떼뻗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㉔에는 ‘단호한 목소리’가 아닌 ‘다시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전단을 붙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② 노부인의 반문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다시 전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④ 사례금이라고 반문한 후 “그래, 얼마면 되겠니?”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노부인이 사례금이 필요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⑤ 노부인이 사례금의 액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자기 계획에 좀 더 다가가는 상황이므로, 지소는 다소 흥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갑자기 큰 소리’의 지시문은 적절하다.

28 ‘S# 75’는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찾는 전단을 붙일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중심이고, ‘S# 77’은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본 대포가 이를 화제로 하여 지소와 대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전단’이 사건 전개상 중심 소재임을 알 수 있다.

29 ‘S# 77’에서 대포는 골목에 붙은 전단을 본 것일 뿐, 전단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㉔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무판자로 개집을 만들고, 청국장을 끓이는 장면이 있으므로 미리 소품을 준비해야 한다.

③ 대포가 개집을 만들 때 지소도 돕는다고 했으므로, 인물의 위치나 동작에 대한 정확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

④ 개집을 만들 때 나는 소리, 청국장이 끓을 때 나는 소리 등의 효과음도 준비해야 한다.

⑤ 대포와 지소가 완성한 개집에 월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쏙 들어간다는 지시문이 있으므로 개 월리를 미리 훈련시켜 집에 들어가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 대포가 월리를 찾는 전단을 본 후에 지소의 개가 전단에서 찾

고 있는 개와 같다고 생각했다면, 월리가 훔친 개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소는 자신이 월리를 훔친 사실을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이다.

31 “월리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글자가 잘 보이게 전단을 확대하여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므로, ㉠에 들어갈 적절한 시나리오 용어는 화면의 일부를 확대하는 시유(C.U.)이다.

32 대포는 골목에 붙은 전단을 보았다고 지소에게 말하며 전단의 개와 지소의 개가 비슷하게 생겼고, 전단의 개 이름도 월리라고 하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포의 말을 들은 지소는 월리를 훔친 사실을 대포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여 전단을 모두 수거하려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대포는 월리가 훔친 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월리를 탐내는 것은 아니다.

③ 대포가 월리의 집을 만드는 것은 월리를 위한 일이며 전단과는 관련이 없다.

④ 채량이 전단을 들고 왔지만 마지막 남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⑤ 훔친 월리를 돌려주어야 집을 구하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므로 돌려주고 싶지 않아졌을 리 없다.

33 지소가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올먹인 이유는 마르셀의 분위기가 아빠가 사라지기 전 자신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즉 자기 가족들이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노부인도 마르셀에서 쫓겨날까 봐 “할머니는 마르셀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올먹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박 이사가 수영에게 접근하여 수영에게 받아낸 인감을 가지고 마르셀의 대지와 건물을 팔아넘겼다. 이로 인해 노부인은 마르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지소는 사례금을 받기 위해 마르셀을 찾았다가 빨간 스티커를 보게 되었다.

③ 노부인이 벽에 걸린 벽화를 보여 ‘이 사람’의 그림을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윤서오’의 그림이며 노부인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④ 노부인은 벽에 걸린 유화를 보여 지소에게 자기의 아들인 윤서오와 아들이 키우던 개인 월리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34 ‘S# 84’로 보아, 노부인의 아들인 ‘윤서오’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노부인의 반대로 집을 나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윤서오와 노부인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③ 월리는 노부인이 아들인 윤서오가 죽은 이후에 찾아갔다가 알게 된 개이다.

④ 두 인물 간의 재산에 대한 대립이나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장면은 없다.

⑤ 노부인이 화가가 되겠다는 아들의 의사에 반대한 것으로 보아, 아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5 지소는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그린 사람이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고 월리의 실제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사례금을 요구하기 위해 들고 온 전단을 감추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지소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유화를 그린 사람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므로, 새로운 인물과의 만남을 예고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극의 흐름으로 보아, 과거의 상황을 말하고 있을 뿐, 사건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지는 않는다.

④ 현재 노부인과 지소가 갈등 관계에 있지는 않다.

⑤ 윤서오라는 인물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사고가 ㉠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6 ‘S# 84’의 인서트 장면은 ‘S# 66’에서 월리의 방울 목걸이에 있던 이름표를 보여 주는 장면을 빠르게 회상하게 함으로써, ‘윤서오’가 월리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알려 준다.

오답 풀이 ① 화가의 이름을 강조할 이유는 없다.

② 방울 목걸이를 회상하는 장면이 월리를 처음 만난 때는 아니다.

④ 이어지는 내용에서 지소가 월리의 이름표를 버린 것을 후회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윤서오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지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37 ‘S# 85’에서 정현은 지소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가 난 상태이다. 따라서 지소의 오해를 풀어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엄마가 아빠에게 싫다고 해서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엄마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준다고 하는 데서, 정현은 지소가 자신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④ 지소는 엄마가 돼 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운다며 정현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정현은 지소가 억지쟁이에 불만투성이이며 심술만 부린다고 못마땅해하고 있다.

38 ‘S# 85’에서 지소는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며 정현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대포와는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S# 86’에서 대포에게 “아니예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대포가 엄마와 싸우고 나온 지소와 지석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지석은 대포에게 누나랑 엄마랑 싸웠다고 말하고 지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볼 때, 지소가 집을 나온 이유를 대포에게 일러바치듯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정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제발”을 여러 번 반복해 말하므로, 간절함과 초조함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정현과 지소는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으므로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39 ‘S# 85’에서 정현과 지소는 서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정현과 지소는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지소와 정현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두 인물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심리적 갈등은 곧 내적 갈등을 의미하므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집 없이 승합차에서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과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된 갈등 양상은 아니다.

40 지소가 월리를 휴친 이유는 사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구해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이다. 지소는 그동안 집이 없이 승합차에서 사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생일이 다가오자 생일 파티를 할 집이 없다는 불만이 크게 터져나온 것이다.

41 대포는 자신의 딸이 좋아했던 장난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는 딸에 대한 대포의 사랑을 의미한다. 대포는 장난감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소에게 해 주어 지소가 아빠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포의 지시문에서 ‘장난감을 주머니에 넣으며’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소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오답 풀이 ①, ③ 지소는 대포에게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라며 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아빠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대포에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딸이 좋아했던 장난감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에서 딸에 대한 대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포는 딸을 보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딸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S# 86’에서 대포는 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지소에게 말하면서 세상의 아빠들은 모두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지소가 아빠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해 준다.

오답 풀이 ① 대포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정착하여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볼 수 없다.
② 대포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대포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이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대포는 개인적 사정으로 딸이 보고 싶어도 가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른들의 세계를 알려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아빠들이 같다는 것을 알려 주므로, 가족 관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43 대포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언급하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 가는 대로 사는 부족이 있는데, 자신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 부족은 ‘모켄족’이다.

44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오고 그러냐?”라는 대포의 말에, 지소가 자신의 아빠도 그럴지를 물으며 울먹이고 있다. 이로 보아, 지소가 아빠도 자신이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본다는 대포의 말을 듣고 지소는 아빠가 더욱 보고 싶은 심정이므로, 아빠를 원망하거나 아빠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지소가 아빠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라는 말은 아빠도 자신을 보고 싶어 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외로움보다는 짝은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45 ‘S# 89’에서 지소는 ‘애써 아무 일도 아닌 척’하고 있으며 불

안한 듯 주위를 둘러본다는 해설이 있으므로, 지소 역시 엄마를 담담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지석은 울먹이며 엄마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으므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현이 가쁜 숨을 내쉬며 달려오는 장면으로 보아, 아이들을 찾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③ 지석이 엄마도 아빠처럼 그냥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데서 알 수 있다.
⑤ 지석은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지소에게 말하고 있다.

46 ‘S# 89’에서 지소는 아빠의 글을 통해 정현이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차에서 지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엄마와 화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정현과 화해를 하는 장면이므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가출로 인한 위기가 해소되고 있다.
② 정현은 분노하기보다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아빠의 가출은 이 장면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⑤ 정현은 지소를 안아 주고 지소는 정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진다.

47 지소는 아빠의 글을 읽은 뒤에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정현이 일주일만 참자고 말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소는 정현을 이해하게 되므로, 아빠의 글이 정현과 지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 아빠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정현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소의 학교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 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49 구두 상자에 적힌 아빠의 글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유(C.U.)를 적용하고, 이 부분을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아빠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내레이션(Nar.)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인서트(Ins.)는 다른 화면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다.
③ O.L.은 두 개의 화면을 겹치게 하는 것이다.
④ F.O.은 화면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이다.

50 ㉠은 지소와 정현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상황의 공간적 배경이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가운 데를 별빛이 내리비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배경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 풀이 ①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므로, 결말 암시와는 거리가 있다.
③, ⑤ 밤하늘의 별빛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상황에서의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강조하므로 외롭거나 어두운 심정, 또는 비극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인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위기가 예고되는 것은 아니다.

51 ㉠에서는 지소의 내레이션을 통해 ‘집’에 대한 지소의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생각의 변화를 알려 주는 것으로, 사건의 빠른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

③ 지소 자신의 깨달음을 직접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지소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행동의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⑤ 사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전달하고 있다.

52 지소는 개를 훔친 뒤에 개를 찾는 전단이 붙으면 개를 데려다 주고 사례금을 받아 집을 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㉔에서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지우고 있으므로, 지소가 돈을 받았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3 지소는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해 개를 훔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생일 파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곧 월리를 돌려줄 것과 집을 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아 반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지소의 친구가 채랑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집을 구할 계획을 접었으므로, 월리를 사례금을 받지 않고 돌려줄 것이다. 또한 ‘S# 84’에서 노부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③, ⑤ 지소는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이 곧 행복한 공간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④ 지소의 내레이션을 통해, 집과 가족에 대한 지소의 생각 변화를 알 수 있고, 생일 파티를 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그 같은 깨달음에서 얻은 판단이다.

54 이 글에서 대포는 지소에게 의지가 되어 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조용하고 묵묵하게 지소를 도와주는 인물이다. 대포는 지소가 월리를 훔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소를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며 적절한 조언을 해 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포는 지소가 집을 구하기 위해 월리를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집을 구해야 한다는 지소의 의지를 북돋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5 대포가 지소에게 건넨 것은 월리의 이름표이다. 또한 월리의 이름표에는 월리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윤서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므로, 대포는 지소가 월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대포와 마르셀에 오기 전에 이미 지소는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② 월리는 지소가 데리고 있는 상태이다.

③ 월리는 지소가 훔친 개이므로 지소는 월리와 관련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④ 지소도 이미 월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

56 지소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은 월리가 자신의 개가 아닌 것을 대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7 월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의 주인인 노부인이고, 지소가 기다리는 사람은 갑자기 집을 나간 아빠이다. 따라서 ㉔는 노부인,

⑥는 아빠이다.

58 이 글에서 지소는 사례금을 받아서 집을 구해 생일 파티를 하려는 계획을 잡고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준다.

59 [A]의 내레이션에서는 지소가 자신의 지난 사연을 노부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 내레이션 속 정보는 이미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새로운 정보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지소가 노부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된다.

② 노부인에게 들려주는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짧게 처리하고 있다.

④ 지소의 내레이션은 관객에게 직접 고백하는 것과 같다.

⑤ 영상 속에 지소는 노부인에게 지난 사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소가 말하는 목소리는 지소의 내레이션으로 영상 속에서 말하는 내용을 간략해 소개하고 있으므로, 지소의 영상 속 행동과 음향으로 들려오는 대사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60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훔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므로,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이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생일 파티는 앞부분에서 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한 내용이다.

② 월리를 돌려주는 일도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노부인에게 월리를 데려다 준 것이다.

④ 아빠 없이 외롭게 지내는 일은 해낸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며, 노부인과 대화하는 상황으로 보아 주된 내용도 아니다.

⑤ 월리를 돌려주기 위해 노부인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이미 앞선 상황이다.

61 ⑥의 노부인은 월리가 목줄을 풀어 주면 좋아한다는 것을 지소가 어떻게 아는지 묻고 있는데, 이는 지소가 월리를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을 한다가보다는 다소 의아하거나 궁금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지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월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보아 월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노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지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행동이다.

④ 지소가 월리를 훔쳤다는 말에 “뭐?”라며 반응하는 것은 뜻밖의 말에 놀랐기 때문이다.

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지소의 행동과 심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함을 나타내며,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지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이다.

62 ‘S# 98’~‘S# 100’에서는 노부인이 지소를 용서해 주고 지소와 정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긴장감이 해소되며 사건이 해결되는 결말 부분이다.

63 ‘S# 98’은 노부인에게 용서를 받는 장면이며, ‘S# 100’은 정현에게 생일 선물을 받는 장면이다. ‘S# 98’에서 노부인은 월리를 산책시켜 주겠다는 말로 지소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인에게 다시 용서를 구해 본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은 집은 없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다.
 ②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소는 월리가 집에 가서 노부인과 함께 사는 지금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④ 지소는 엄마 정현이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선물하며 축하해 주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⑤ 지소는 월리를 돌려줌으로써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에게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을 선물로 받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64 ‘S# 100’에서 정현이 지소의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한다는 쪽지와 함께 정성껏 꾸민 도시락을 선물로 지소에게 주고 있고, 이에 지소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도시락’은 정현과 지소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65 노부인이 지소가 월리를 훔쳤던 사실을 알고도 월리를 산책시켜 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지소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산책만을 부탁하고 있다.
 ③ 노부인이 월리의 새 주인을 구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지소가 월리를 훔친 사실을 노부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할 이유는 없다.
 ⑤ 아이스크림은 산책시켜 주는 대가이므로 빗값을 무는 것은 아니다.

66 작은 쪽지 안의 글씨이므로 시유(C.U.)를 적용하여 관객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효과음을 말하는 것으로 장면에 실감을 더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③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이다.
 ④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인서트는 다른 화면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으로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하는 화면을 말한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82~083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① 05 ㉠: 대사, ㉡: 행동, ㉢: 서술자 06 ③ 07 ④

01 이 글은 희곡이므로, 시나리오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극 갈래라는 갈래상의 공통점을 지닌다. 극 갈래는 대사와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된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시나리오의 특성이다.
 ② 희곡의 특성이다.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02 남자는 여자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

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머신가요?”라는 대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여자는 넥타이를 한 남자를 보며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남자의 부유함에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여자는 하인이 남자의 넥타이를 빼앗아 간 상황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왜들 그러시죠?”, “넥타이를…….”이라는 대사를 통해 여자는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긴 이유를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지만 하인이 무뚝뚝한 동작으로 남자의 넥타이를 빼앗는 것을 볼 때 하인은 남자의 상황이나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남자는 넥타이를 빌려 준 남성 관객을 향해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03 넥타이는 남자를 부유하게 보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기자 여자는 그 이유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며, 남자가 다시 넥타이를 관객에게 빌렸을 때에는 남자의 부유함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가난한 사람으로, 결혼하기 위해 넥타이를 빌려 부자인 척하려는 것이다. 넥타이는 빌린 물건으로 인간이 소유하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재물에 대한 남자의 소유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여자는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긴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실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아직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④ 남자는 관객에게 다른 넥타이를 빌려 여자의 호감을 사고 있으므로, 허세가 탄로 난 것으로 볼 수 없다.

04 [A]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고 있는데, 여자는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인 ‘방백’에 해당한다. 또한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고 있는 장면은 연극에서만 가능한 장면이다. 영화에서 잠재적인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는 있겠지만, 관객과 소도구를 직접 주고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 ㉢ 중 인물이 말을 걸거나 소품을 빌리는 설정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지만, 방백은 극에 대한 관객의 감정 몰입을 방해한다.
 ㉠, ‘넥타이’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된 소도구이다. ‘넥타이’라는 소도구를 이용하여, ‘넥타이’를 관객에게 잠시 빌려 사용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주제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남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은 본래 없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05 (가)는 시나리오, (나)는 소설이다. 시나리오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주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반면 소설은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이나 묘사에 의해서도 사건이 전개된다.

06 (가)는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는 것은 희곡이다.

07 ㉠, ㉡, ㉢, ㉣는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한 것이다. ㉤는 수영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수영의 행동을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남편이 돌아온다고 약속한 시간이다. 08 ④ 09 ④ 10 <보기>에서 지소는 개를 훔친 뒤 그 사례금을 받아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집'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지소는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승합차에서 살게 된 것임을 알게 되므로, (다)에서의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11 ⑤ 12 ⑤ 13 ④ 14 ②

01 (가)에서 박 이사가 별말 없이 수영에게서 월리를 받아 차 트렁크에 넣은 것과 "인감은?"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미리 월리와 인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포가 월리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지소가 훔친 개라는 단서가 있지는 않아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지소는 월리를 훔치려고 하는 것이다.

③ 노부인은 월리가 제 발로 나갔으며,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월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④ 채량이 아니라 지소가 박 이사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며 의심쩍어하고 있다.

02 <보기>는 (다)의 일부를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각색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을 사용하면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 등의 모든 것을 파악하며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소와 노부인, 수영은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② (다)에 담긴 인물의 대사는 <보기>에서 큰따옴표로 직접 인용되고 있다.

③ (다)의 지시문 중, '수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소를 노려보고 있다.'라는 내용은 <보기>에서 "월리가 맞아?" 하는 수영의 대사 다음에 붙어서 소설의 서술 방식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⑤ '긴장하는 마음, 당황했지만, 초조하게, 반가워할 것이라는 지소의 기대' 등 인물의 속마음이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서술되고 있다.

03 ㉠에서 대포는 지소에게 개를 왜 폐가에 보관하는지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지소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다면, 사례금을 받을 때까지 남들이 모르게 월리를 데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포에게 돌려대기 위해 한 말이다.

②, ③, ④ 지소가 월리를 폐가에 둔 이유와는 관계가 없다.

04 ㉠은 월리를 본 장소를 거점으로 돌려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시문이다. 지소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하고 있으므로 '사이를 두고'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월리를 차 트렁크에 넣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② 몰래 숨겨 놓은 월리를 대포에게 들려서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개라고 계속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지시문이다.

③ 대포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가서 더 크게 말하고 있다.

⑤ 노부인이 개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만 전단을 붙일 것이기 때문에, 지소는 노부인의 생각을 돌려놓기 위해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05 이 글은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에서 내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목소리만으로 사건이나 줄거리를 해설하는 것으로, 때로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심리는 주로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지시문을 통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시나리오는 사건이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②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만들어질 것이므로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 등을 통해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⑤ 시나리오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소설과 달리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직접 전개된다.

06 (다)의 아빠의 글에는 아빠가 자신이 남편과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괴로움이 나타나 있으므로 아빠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소가 (다)에서 아빠와 엄마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지소와 정현은 집이 없어 승합차에서 사는 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으므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② (가)에서 지소는 승합차에서 생활하며 만날 일주일만 참으라고 하는 정현에게 불만을 터뜨리는데, (다)에서 지소가 아빠의 글을 통해 정현이 아빠를 기다리느라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어 정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므로 (가)에서의 정현과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③ (나)에서 지소는 세상 아빠들은 모두 딸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한다는 대포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게 됨으로써 아빠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⑤ (라)에서 지소는 아빠를 기다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월리를 기다리는 노부인을 생각하고 월리에게도 자신과 같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월리를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갈등이 종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07 ㉠으로 보아 엄마 정현이 아이들에게 승합차에서 사는 것을 일주일만 참아 달라고 줄곧 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에서 아빠가 정현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 돌아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따라서 ㉠은 결국 남편이 돌아온다고 약속한 시간이며, 정현이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08 대포는 떠돌아다니며 살지만 자기에게도 딸이 있으며 그 딸이 무척 보고 싶다고 지소에게 말한다. 많이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온다고 말하는 대포의 이야기를 들은 지소는 고개를 숙이며 아빠를 떠올리고 있다. 대포의 딸에 대한 사랑을 느낀 지소는 대포에게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라고 말하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09 노부인은 지소와 대화하며 차분하게 지소의 처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월리와 노부인의 아들에 대한 사연을 듣고 전단을 뒤로 감추는데, 이는 월리를 데려다주고 사례금을 받겠다는 처음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심경의 변화로 이어지므로, 세심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② 아빠의 글을 읽는 지소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 주기보다는 실제 음향 효과로 아빠의 목소리를 넣는 것이 아빠의 상황과 심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③ 공책, 연필 등의 소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내레이션을 대사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녹음을 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⑤ 촬영 시간이 밤이고, 승합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조영이나 카메라, 인물의 위치 등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10 <보기>에서 지소는 월리를 이용하여 사례금을 받고 집을 구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지소는 그 집에서 멋진 생일 파티를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 정현이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승합차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지소가 (다)의 내레이션에서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지소는 집은 돈으로 얻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며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11 ㉠는 지소가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눈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다. 반면 ㉡는 지소가 정현에게서 생일 선물로 도시락을 받은 상황이므로, 이때의 눈물은 엄마의 정성과 사랑에 대해 감동해서 쏟는 눈물이다.

오답 풀이 ① ㉠는 노부인의 말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에서 자책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

② ㉠는 후회의 눈물일 수 있으나, ㉡가 정현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다.

③ ㉠에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 반성의 감정은 아니다.

④ ㉠는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상황이므로 설움의 감정이 들 수 없고, ㉡는 선물을 받은 상황이므로 후회의 감정이 드는 것은 더욱더 적절하지 않다.

12 이 시나리오는 순진한 어린아이인 지소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애를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빠가 사라져서 지소에게 집이 없어지는 등의 고난이 온 것은 맞지만,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도 아빠는 여전히 부재의 상태이므로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생일 파티를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개를 훔친다는 발상이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는 아니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정현의 속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판단이나 사고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④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도 정신적 성장의 한 단면이다.

13 ㉠의 '목줄'은 노부인과 월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재는 아니며, 단순히 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도구일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월리의 이름표에 윤서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월리의 주인이 윤서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지소는 아빠의 글을 읽은 뒤 엄마 정현이 차에서 살며 동네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다.

③ 개를 찾는다는 전단은 지소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제가 된다.

⑤ 지소의 생일에 정현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은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14 ㉠는 'S# 66'의 장면이 중간에 들어오게 연출해야 하므로, 인서트(Ins.)가 적절하고, ㉡는 지소가 공책에 적은 글을 순서대로 보다가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시유(C.U.)가 적절하다.

(4) 한 그루 나무처럼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89~091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우주 나무
07 ⑤ **08** ② **09** ③ **10**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인다.

01 이 글은 수필로, 수필은 글쓰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과 성찰의 내용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는 갈래이다.

오답 풀이 ① 시와 같은 운문 문학의 특징이다.

② 수필은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갈래이다.

③ 대사와 지시문은 극 갈래의 특성이다.

⑤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인 '나'로서 작품 속에 등장한다.

02 (가)에서 글쓴이는 산에 오르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장점으로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에서 글쓴이는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산에 오르는 동행과 더욱 친밀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은 대못을 빼낼 도구가 없어 그대로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의미로, 나무를 아프게 한 것은 글쓴이가 한 일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 자신이 산행을 계속해 왔음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경험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어느 날 우연히 참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 것은 글쓴이가 의미 있는 대상을 발견한 것이다.

③ 글쓴이는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며 참나무에서도 대못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④ 누군가 바가지를 걸기 위해 박은 것 같으며 못의 용도를 추측하고 있다.

04 이 글은 수필로서, 참나무에 얹힌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체험적, 성찰적, 사색적, 고백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서사적 성격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으로서, 이 수필에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05 (다)의 후반부에서 글쓴이는 참나무를 의인화하여, 나무가 마치 글쓴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나무를 위안의 존재로 그리고 있을 뿐,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다)에는 시간에 따른 참나무의 변화 모습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④ (다)에서는 참나무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사물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다)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06 (라)에 따르면 ‘우주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이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에서 글쓴이와 인연을 맺은 참나무를 글쓴이는 자신의 우주 나무로 삼고 있다.

07 글쓴이가 ㉓와 같이 믿게 된 것은 글쓴이가 편찮으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나무에게 소원을 빌었는데, 이후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즉, 글쓴이는 나무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을 수는 없다.
 ② 나무가 계절에 상관없이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실제로 나무가 말해 준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나무가 위로의 말을 해 준 것처럼 느낀 것이며, 이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을 나무에 빈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④ 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다는 것 때문에 글쓴이가 나무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이유는 없다.

08 이 글의 글쓴이는 참나무의 대못을 빼 준 이후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교감을 나눈 경험을 통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산행은 과거에만 행한 경험이 아니라, 글쓴이에게는 계속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자신과 나무를 비교할 뿐,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과 자연물의 속성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
 ④ 인간 문명에 대한 글쓴이의 의식이나 의견은 드러나지 않으며, 참나무를 통해 인간 문명을 비판하는 내용도 아니다.
 ⑤ 나무에서 얻은 개인적인 성찰을 담고 있을 뿐이다.

09 (사)에서 글쓴이는 험벗은 나무를 통해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상처를 받게 되면 남을 많이 원망했던 것,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 속에서 바뀐 마음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10 <보기>의 나무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아)에서도 역시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며 <보기>와 유사한 관점을 지닌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이양하, 「나무」**

주제: 나무가 지닌 덕(德)

감상: 이 글은 나무를 의인화하여 성자나 철학자와 같은 나무의 덕을 예찬하고 나무를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소단원 평가

본문 092~094쪽

-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가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았기 때문이다. **07** ② **08** ① **09** ⑤ **10** ㉠은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글쓴이는 ㉠을 언급하여 평범한 참나무가 자신과 인연을 맺은 뒤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로해 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01 이 글은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교훈적, 이념적 내용 또는 글쓴이의 주관적 정서 등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은 일상의 소재를 취해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룬다.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을 담아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는 것은 시나리오나 희곡과 같은 극갈래의 특성에 해당한다.

02 ㉠은 산에 있는 여러 사물 중에서 글쓴이의 눈에 들어온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된 대상이다. 한편 <보기>의 ‘꽃’ 역시 화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된 대상이다. 이 시에서 ‘꽃’은 화자가 이름을 불러 주어서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오답 풀이 ① ‘그’는 인식의 대상이다.

- ② 하나의 ‘몸짓’은 대상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이므로, 아직 인식되지 않은 의미 없는 존재를 나타낸다.
 ④ ‘빛깔과 향기’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⑤ ‘나’는 인식의 주체이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김춘수, 「꽃」**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감상: 이 시는 ‘꽃’을 제재로 하여, 대상의 의미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꽃은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관념을 대변하는 대상이다.

03 ㉠에서 글쓴이가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무를 보러 산에 올라가곤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무가 글쓴이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나’가 산행을 혼자 하게 된 동기로, 산행의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는 산행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일 뿐, 산행의 어려움이나 보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③ ㉢는 대못이 박힌 이유를 글쓴이가 추측하여 제시한 부분이다.
 ⑤ ㉤는 글쓴이가 일상 속에서 나무에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04 (라)에는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기 전의 모습이 나타난다. 글쓴이는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렸던 모습, 상처를 받게 되면 남을 많이 원망했던 모습,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에서 글쓴이는,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쓰기가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글쓰기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내면화하는 것은 글쓰기 과정의 내용 표현하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글을 읽은 독자가 감동이나 교훈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글에 대한 감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06 (가)로 보아,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주 나무라고 하며, 글쓰기가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몸이 편찮아지시자 글쓰기는 자신의 우주 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빈 것이다.

07 ㉠에 담긴 삶의 태도는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과 관계가 있다.

오답 풀이 ①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무념무상(無念無想)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

④ 인생무상(人生無常)은 인생이 덧없음을 말한다.

⑤ 권토중래(捲土重來)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08 이 글에서 글쓰기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참나무’를 보면서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사람, 속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글쓰기는 과거 자신의 부정적 모습을 성찰하고는 있으나, 현대 사회의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처음 혼자 산행을 했을 때부터 혼자 하는 산행이 습관이 된 이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글쓰기는 겨울날 ‘참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자신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공동체의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사월의 ‘참나무’의 모습과 겨울날 ‘참나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으나,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참나무’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9 이 글은 글쓰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수필이다.

오답 풀이 ① 수필은 시나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글쓰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는 문학이다.

② 수필도 ‘처음-가운데-끝’과 같은 구성 단계에 따라 글쓰이의 경험과 정서를 표현하지만, 다른 문학 갈래와 비교하여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운 갈래이다.

③ 이 글에서 글쓰이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했던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고백적 문학으로서의 수필의 특성을 보여 준다.

④ 수필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는 수필이 글쓰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학임을 보여 준다.

036 정답과 해설

10 이 글에서 글쓰이는 평범한 참나무를 자신의 ‘우주 나무’로 삼게 된 계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주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로,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글쓰이가 이러한 ‘우주 나무’를 언급한 것은 평범한 참나무가 자신과 인연을 맺고 위로도 해 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단원 평가

본문 095~103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① **05** ③ **06** ③ **07** ③

08 ‘나’와 지소는 모두 미성숙한 어린아이이지만, ‘나’는 할머니와 화해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엄마와 화해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모두 정신적 성장(성숙)의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변화를 보인다. **09** ③ **10** ⑤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④ **16** ① **17** ① **18** ④ **19**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며, 후렴구 ③의 반복을 통해 시에 리듬감과 통일성을 부여한다. **20** ② **21** ③ **22** ③

23 (가)에서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라는 의미였지만, (바)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24**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5** ④ **26** ⑤

01 이 시의 각 연은 화자가 떠올리는 각각의 독립된 장면을 담고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이 시는 고향의 여러 모습들을 독립된 장면으로 각 연에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③ 이 시는 ‘~는/~던 곳’과 같은 문장 구조나 후렴구의 반복 및 규칙적 배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는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청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심상 등의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이 시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짐배개’ 등의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02 〈보기〉는 줄글 형태의 산문시로서,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유년 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보기〉와 달리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내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 마을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이 창작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로 시상을 전달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아 어린 화자로 볼 수 없다.

③ 이 시는 후렴구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지만, 〈보기〉는 겉으로 드러난 운율은 찾을 수 없다. 반면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화자의 차분한 어조를 통해 내재율이 느껴진다.

⑤ 〈보기〉역시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주제: 유년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감상: 이 시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어린 시절의 뒷마루에 얹힌 추억과 자신에게 주었던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보기〉는 시어가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에서 ㉠의 ‘게으른’은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을 지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시적 내용을 나타내기보다는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는 표현을 통해 한가로운 고향의 분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내용을 의미 그대로 전달한다.

③ ㉢은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향한 막연한 동경이나 호기심을 의미한다.

④ ㉣은 햇살이 따갑다는 촉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⑤ ㉤은 가난한 집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04 〈보기 1〉의 핵심 내용은 정지용의 시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며, 향토적 정서를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ㄱ은 세련된 언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이고, ㄴ은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한 시의 특징에 대한 감상이다.

오답 풀이 ㄷ. ‘화살’은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나타내고 ‘모래성’은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소재로서, 향토적 정서를 보여 주는 소재는 아니다.

ㄹ. ‘엷은 졸음에 겨운’과 ‘사철 발 벗은 아내’는 대상을 섬세한 이미지로 신비롭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대상의 사실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표현이다.

05 (가)~(다)는 소설, (라)~(바)는 시나리오로서, 둘 다 서사 문학에 속한다. 소설이나 시나리오 모두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하강) - 결말(대단원)’과 같은 방식의 일정한 서사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며, ‘갈등의 발생 - 갈등의 고조 - 갈등의 해결’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이나 묘사에 의해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주로 소설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② 등장인물의 대사와 해설, 지시문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④ 작중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의 특징이다.

⑤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고백적, 성찰적으로 서술하는 갈래는 수필이다.

06 (가)는 주로 서술자에 의한 직접적 서술 방식(말하기)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보기〉는 (가)를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묘사하여 사건을 전달하는 간접적 서술 방식(보여 주기)으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보기〉의 경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가 사건의 전개 양상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곧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 중심으로 서술하면 직접적 서술보다 분량이 늘어남으로 그만큼 사건 전개 속도도 느려진다.

② 대화나 행동을 통해 심리를 짐작해야 하므로 심리 파악이 더 용이한 것은 아니다.

④ 독자 입장에서 상상력을 더 발휘해야 하므로, 작품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진다.

⑤ 간접적 서술 방식은 서술자의 개입보다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서술자의 해설적 서술이 적어지므로 사건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07 (가)에서 할머니가 졸도하자 식구들은 주변을 둘러싼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색이 되어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어찌 할 도리나 방법이 없어 꼼짝 못함.’을 의미하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

② 수수방관(袖手傍觀)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이다.

④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매우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허허실실(虛虛實實)은 허를 찌르고 실을 꺾는 계책을 말한다.

08 (가)~(다)의 ‘나’와 (라)~(바)의 지소의 공통점은 둘 다 어린 아이라는 것이며, 작품의 결말에서 ‘나’는 할머니와 화해를 하고,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엄마와 화해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와 지소는 모두 정신적인 성장(성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나’와 지소가 어린아이이며, 다른 인물과의 화해 과정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공통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나’와 지소가 어린아이라는 점, 다른 인물과의 화해 과정,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점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다른 인물과의 화해의 과정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내용 없이, ‘나’와 지소가 어린아이라는 공통점만을 서술하였다.	하

09 (마)에서 노부인은 지소의 사연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지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준엄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시유(C.U.)라고 지시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훔쳤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워서 말을 바로 잊지 못하고 있으므로, 머뭇거리는 모습의 섬세한 연기가 필요하다.

④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실재와 같은 소리가 나도록 하여 사실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지소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란다는 지시문이 있었고, 정현의 선물에 대해 감동을 받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10 지소가 월리를 돌려주고 개를 훔친 사실을 고백한 것은 집이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겠다는 처음의 생각이 무산되었지만, 지소는 이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바)에서 지소가 승합차 안에서 생일을 맞았음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 집도 잃게 되고 차에서 살게 됨으로써 주인공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다.

② 차에서 살게 되어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생겼다.

③ 지소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개를 훔쳐 사례금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④ 지소는 개를 훔쳐 사례금을 받는다는 계획을 실행하였으나 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의 개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례금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에 변화가 생긴다.

11 ㉠은 관객에게 지소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 즉 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을 직접 말하고 있고, ㉡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곧 집을 잃고 차에서 살며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개를 훔치게 된 사연 등을 압축하여 나타내어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돈을 받는다는 부분을 지운 이유를 알려 주는 부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는 과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요약적 진술은 ㉡에만 해당한다.

③ ㉠은 월리의 사례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려 주지만, ㉡는 아직 작품이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

④ ㉠은 현재 지소의 집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며, ㉡는 상황을 압축하여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

12 (바)의 '도시락'은 정현이 지소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해 정성껏 꾸민 것으로, 지소에 대한 정현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의 '호박전과 고사리나물' 역시 할머니가 아들이 오면 배불리 먹이기 위해 직접 장만한 음식으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참빗'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도구이다.

③ '불씨'는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한 소재이다.

④ '감나무'는 구렁이가 있는 곳이다.

⑤ '손'은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13 <보기>는 시이고, (가)~(다)는 소설이다. <보기>에서 '나'는 여승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으므로, 소설로 만들 경우 주인공은 여인이며, '나'는 여인을 관찰하는 서술자로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관찰자로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여승이 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인공은 여인이며, 그의 삶을 오랜 시간 지켜본 '나'를 서술자로 내세우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② <보기>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2면에 평안도 금담판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일제 강점기를 배

경으로 평안도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의 삶을 보여 주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나'는 현재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하면서 여인과 만났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보기>의 3면에서 여인의 지아비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여인의 삶은 본격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어린 딸이 죽은 일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를 소설의 갈등 전개 과정에 적용하여 위기 단계와 절정 단계로 구성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백석, 「여승」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일제에 의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

감상: 이 시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14 이 글에서 글쓴이는 햇빛은 나무를 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토대로 강연 주제를 정한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자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희생하는 삶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는 했으나, 순수함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5 이 글의 글쓴이는 참나무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겪지만, 복숭아나무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참나무', <보기>는 '복숭아나무'가 중심 소재이다.

② 이 글의 글쓴이는 겉모습은 변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참나무의 모습에서 굳건한 삶의 자세라는 교훈을 얻고 있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는 복숭아나무의 속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

③ 이 글은 참나무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발견한 것이 창작의 동기가 되었고, <보기>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창작의 동기가 되었다.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시간이 흘러 햇빛은 나무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고, <보기>의 화자는 멀리멀리 지나치는 과정이 지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주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감상: 이 시는 복숭아나무를 멀리 지나치지만 하던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게 되고, 이후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과정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자아의 성숙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 ㉠의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정읍사」의 '달' 역시 행상을 나간 남편이 밤길에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달에게 의탁하여 기원하고 있으므로 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기파랑의 높은 인격과 기상을 '달'의 모습에서 발견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달'은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를 의미한다.

③ 화자가 죽어 사랑하는 임 계신 창 안을 환하게 비치는 '달'이 되고자 하므로, 여기서 '달'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동짓달은 일 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이 시가의 계절 및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⑤ 무심한 달빛은 욕심 없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세의 물욕을 초월한 화자의 삶을 상징한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작자 미상, 「정읍사」

주제: 남편의 무사 귀환에 대한 기원

감상: 현전하는 백제 유일의 서정 가요로, 행상을 나간 남편이 밤길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② 충담사, 「찬기파랑가」

주제: 기파랑에 대한 찬양

감상: 충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찬양한 향가로, 기파랑을 '달, 냇물, 조약돌,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③ 정철, 「속미인곡」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감상: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두 여인이 등장하여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한 연인의 애달픈 심정을 아름다운 우리말을 구사하여 노래하고 있다.

④ 황진이, 「동지·수릿날 기나긴 밤을～」

주제: 임을 기다리는 여자는 마음

감상: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여, 겨울의 긴 밤 시간을 잘라서 이불에 넣었다가 봄에 임이 오면 이불처럼 펴고 자 하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⑤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주제: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

감상: 가을 달밤에 배를 띄워 낚시질로 풍류를 즐기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17 이 시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와 같은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1연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으나,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사상을 전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라는 부분에서 자연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는 있으나 이는 정겹고 따뜻한 고향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화자와의 일체감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④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이란 구절에서 겨울밤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도 찾을 수 없다.

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문장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 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18 ㉠은 직유법을 사용하여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에서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실개천이 마을의 유서 깊은 옛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밤바람 소리를 말 달리는 모습에 빗댄 것으로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③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에서는 '파아란 하늘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에 해당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⑤ 하늘에 있는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는 표현은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9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는 꿈에서도 고향이 잊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평화롭고 단란한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낸다. 또한 후렴구와 같이 사용되어 운율을 형성하는 동시에 작품 전체에 통일성과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기능, 시의 구조와 관련된 기능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기능, 시의 구조와 관련된 기능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기능, 시의 구조와 관련된 기능을 모두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20 <보기>는 시나리오인 (가)를 소설로 바꾸어 쓴 것이다. <보기>에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지소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이와 달리 (가)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등장인물의 행동을 현재화하여 표현한 것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③ 시나리오와 소설 모두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④ 시나리오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⑤ (가)는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심리가 드러난다. <보기>는 소설로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심리가 서술되고 있다.

21 '인서트'는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하는 화면을 말한다. 그런데 (마)는 지소가 노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반성하는 장면으로, 지소의 생일 파티 장면을 삽입하는 것은 영화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지소의 생일 파티 장면은 (가)에서 지소가 생일 파티를 상상하는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마)는 레스토랑, (바)는 승합차 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마)에서 노부인은 지소의 잘못을 지적해 지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인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지소를 바라보며 차분한 말투로 연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바)는 지소가 가족애를 깨닫고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다. 따라서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바)에서 도시락 안 쪽지에는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작은 쪽지 속 글자이므로 이를 크게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㉔에서 지소는 딸이 있지만 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대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㉔은 지소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월리의 눈빛이 차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폐가에서 쓸쓸하고 슬픈 눈빛을 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월리가, 살던 집을 잃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지소는 월리가 훔친 개일 거라고 의심하는 대포의 말을 듣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데, 이는 대포가 사실을 눈치챌까 봐 걱정하는 지소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지소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노부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지소는 자신의 생일을 잊지 않고 손수 만든 도시락을 챙겨 준 어머니에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를 통해 지소가 가족의 사랑이 물질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음을 보여 준다.

23 지소가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의 집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소가 개를 노부인에게 돌려주고 가족애를 깨닫게 되었을 때의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와 개를 돌려주고 가족애를 깨달았을 때를 대조하여 집의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와 개를 돌려주고 가족애를 깨달았을 때의 집의 의미 중 어느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집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인물의 인식과는 관련이 없다.	하

24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시점을 통해 이태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어른이 된 ‘나’의 회상을 통해 이념 대립이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어린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이 공존하는 시점상의 특징을 쓰고, 작품의 주제와 연관 지어 그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어린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이 공존하는 시점상의 특징을 쓰고, 그 효과를 서술하였으나 작품의 주제와 연관 짓지 못하였다.	중
어린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이 공존하는 시점상의 특징만 서술하였다.	하

25 난데없는 구령이의 출현으로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외할머니는 홀로 냉정을 잃지 않았다. 이는 외할머니가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외할머니가 구령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기고 충격을 받아 줄도하였으며,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하고 있다.
 ② 할머니가 줄도한 것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나 막상 구령이가 등장하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③ 아이들은 구령이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구령이가 삼촌의 환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구령이에게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적개심이 반영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⑤ 외할머니가 삼촌의 환생인 구령이를 달래 보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안방으로 모셔 오게 한다. 또한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손을 내밀고 외할머니는 그 손을 잡는데, 이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26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불행인 육이오 전쟁을 상징한다.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하늘이 여전히 흐리다는 것은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족의 불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② 구령이의 출현으로 할머니가 줄도한 후 외할머니는 죽은 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며 혼란을 수습하였다. 이는 외할머니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구령이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나자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는 머리카락이 죽은 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할머니는 구령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삼촌에 대한 걱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3. 엉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06~111쪽

- 01 ② 02 나인족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08 ③ 09 작업 기억 10 ④ 11 ② 12 세로토닌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② 19 ④ 20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다. 21 ② 22 ④

01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을 제재로 하여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논설문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설을 세우지 않았고 실험 결과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일상생활 속 삶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관념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④ 글쓴이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다루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하구적 인물과 그 인물이 겪는 사건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소설이다.

02 (나)에서 숫자 '9(나인)'처럼 고개를 숙인 모습을 하고, 궁궐에 매인 '나인'처럼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인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하였다.

03 (다)의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전문가들이 휴대 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 예측했다고 하였으나, 휴대 전화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나)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기능 중 휴대성이 지닌 공간적 측면에서의 장점이라 볼 수 있으나 시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스마트폰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체이므로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킨 (가)의 사례를 참고할 때 스마트폰의 사용이 부모 세대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관한 삶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 1의 소제목과 (마)~(사)를 살펴보면 요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내용에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삶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현상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없다.
②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필수적 사용을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③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함을 드러내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성인과 비교하고 있을 뿐, 연령대별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다르다는 내용은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와 거리가 멀다.
⑤ 이 글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05 (바)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의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들며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나.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용도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ㄷ. 청소년들이 입학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은 일종의 현상일 뿐,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06 글쓴이는 ㉠에서 하루 세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의 비율을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통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과는 관련성이 낮다.
②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③ 하루에 세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위험성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바)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07 글쓴이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8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를 보면, 고위험군은 2011년 2.2%, 2012년 2.7%, 2013년 2.4%, 2014년 3.3%, 2015년 4.0%로, 2013년에 잠깐 주춤하였으나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중 고위험군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를 참고로 할 때 고위험군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4.0%인 데 비해 성인은 2.1%이고, 잠재적 위험군에서도 청소년의 비율이 27.6%인 데 비해 성인은 11.4%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성인보다 높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를 참고로 할 때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1년 11.4%, 2012년 18.4%, 2013년 25.5%, 2014년 29.2%, 2015년 31.6%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와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는 모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의 2015년 통계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3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09 (아)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써 두뇌의 ‘작업 기억’이 가득 차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작업 기억은 학습해야 할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관련된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부터 인출하여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정신적 작업 공간을 말한다.

10 스마트폰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린다. 이로 인해 기억 공간이 부족해지고 공부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어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학업 성적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지고 주의가 분산되어 능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③, ⑤ 스마트폰 중독이 낳는 신경 정신과적 증상에는 금단 현상,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역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이나, 학업 성적 저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11 (카)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상 세계보다 현실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차)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눈, 목, 손목, 척추 등에 문제를 일으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카)를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강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자)를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금단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자)를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 이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해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12 (자)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로토닌 분비의 감소는 충동 조절 능력 저하와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13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을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카)의 누리소통망(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스마트폰 중독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줄여들게 하고 이는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데서 인과적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먼저, 첫째, 둘째’ 등과 같은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글쓴이는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며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원만한 대인 관계의 형성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탈 행동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에 어긋나는 것이다.

② 가상 세계에 몰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방해한다.

③ 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은 궁극적으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지만 ㉠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헐뜯음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과 거리가 멀다.

15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소제목을 통해 이후 전개될 내용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에 대한 효용성은 스마트폰 중독을 경계하는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②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본문 1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되었다.

③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양상의 차이는 ㉠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16 (타)의 ‘지금까지 ~ 살펴보았다.’를 통해 이전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러나 ~ 유용한 도구이다.’를 통해 이전 논의의 방향과는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따라서 ~ 중요하다.’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제가 되는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논의의 방향을 서술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 있을 까?’를 통해 질문의 형식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7 (파)에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받기를 제시하고 있다.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중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스마트폰 중독자들도 이와 같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받기와는 관련이 없다.

② 글쓴이가 독자에게 공동으로 실천하기를 권하는 것은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해 준수하기이다.

④ 전문적 상담을 통해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이다.

⑤ 스마트폰 사용 행동 기록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받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18 (거)에서는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식사 시간 등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량이 많은 곳, 건널목, 계단 등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공원 벤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건널목, 육교 계단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자습 시간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므로 이 또한 피해야 한다.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가족과의 대화나 식사에 방해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19 (너)에서 글쓴이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하면서도 스마트폰의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거)에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

② (하)에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스스로 기록해 보기를 권하고 있다.

③ (거)에서 스마트폰 금지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약속을 정하여 공동으로 실천하기를 권하고 있다.

⑤ (너)에서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며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20 (너)의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다는 내용에서 누리소통망(SNS)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1 <보기>를 통해 철수 또래의 친구들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적절한 근거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를 든 주장이다.

③ 어느 한쪽의 견해에 치중된 의견으로 볼 수 없다.

④, ⑤ <보기>와 같은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대안으로,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와 관련 지을 수 없다.

22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활용 방식에 따라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 뒤에서 드러내고 있다. 즉 스마트폰이 지니는 양면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에 대해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실태일뿐 스마트폰의 양면성과는 관련이 없다.

② 스마트폰의 기능이 사용자에게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스마트폰이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단점만 언급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스마트폰의 적절한 활용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12~113쪽

01 ④ **02** 우리, 없다 **03** ④ **04** ⑤ **05** ⑤ **06** 육류를 즐겨 먹는 수현의 식습관은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07** ⑤

01 (가)에서는 세계 외모 만족도와 한국 청소년들의 신체 왜곡 인지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비율과 육류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물의 비율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주장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우리 주변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을 조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나, (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육류의 공장식 대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외모에 가치를 많이 두는 사회 풍토라는 사회적 문제만을 언급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가)의 글쓴이는 외모에 가치를 많이 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그러한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후천적 노력이 아닌 선천적 외모를 중시하면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의 주제이자 글쓴이가 경계하는 바는 글의 맨 마지막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03 (가)는 한국인의 외모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며 외모에 많은 가치를 두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가)는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과 관련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정상 체중인 여학생 중 34.7퍼센트가 자기가 살찐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청소년들의 비판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②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기의 신체를 왜곡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한다고 하였다.

③ 한국인의 외모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였다.

⑤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 있으나, 독일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세계 외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독일의 한 기관이 발표한 것뿐이다.

04 ㉠~㉣은 각각 학교, 대중 매체, 사회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상 토의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한국 청소년들은 자기의 신체를 왜곡하여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으므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은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 낸 현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등과 같은 법안을 정착해 외모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대중 매체와 사회에서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용하지만, 외모의 가치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올바른 몸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이며, 외모를 개그의 소재로 삼아 희화화하는 것과 외모를 중시하는 표현을 삼가는 일은 외모 지상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므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모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한다.

05 (나)의 글쓴이는 육류의 공장식 대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도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⑤의 근거를 들어 제시된 삶의 문제를 파악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사육 동물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로 범벅이 된 사료를 먹고 있다고 하였다.

②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의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 원인의 18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③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고기를 더 빨리 얻으려고 사육 동물들에게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힌다고 하였다.

④ 육류의 대량 소비에 맞춘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평생 자기 배설물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사육 동물을 가두어 기르면서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혀, 결과적으로 이런 불량 상품을 먹는 사람의 몸도 불량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06 (나)에서 환경 문제의 관점에서 본 육류의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과, 2025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 소고기 1킬로그램 생산에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육류를 즐겨 먹는 수현의 식습관은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07 (나)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채식주의자의 삶의 태도를 소개하면서 육류를 먹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육류 섭취를 포기하고 채식주의자의 삶의 태도를 따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육류 섭취를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044 정답과 해설

오답 풀이 ① 고른 영양 섭취는 (나)의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②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 항생제로 범벅인 사료와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혀 생산하는 육류를 불량 상품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불량 상품의 생산을 멈추자는 것은 (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③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육류 섭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④ (나)에서 육류의 생산 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소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은 이 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소단원 평가

본문 114~117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③ **07**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두뇌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08 ① **09** ① **10** ⑤ **11** ③ **12** ④

01 이 글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를 삶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활용 용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지도 않았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성인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의 두 얼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과 같은 소재목을 통해 이후 전개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한국 정보화 진흥원'과 같은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 자료 등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02 (가)는 이 글의 도입부로, 한 청소년의 사례를 제시하여 스마트폰의 유용함과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사례를 통해 스마트폰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 주며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앞으로 전개될 글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청소년의 고단한 삶을 드러낸다는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와 관련이 없다.

②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의 유용함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03 (나)에서는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라고 서술하며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는 (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성인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의 실태일 뿐, ㉠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③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무계획적으로 행동하는지의 여부는 (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청소년 열 명 중 세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라고 하였으므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성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내용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4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다. 스마트폰 역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건강과 인간관계 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근목자흑(近墨者黑)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건너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⑤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05 연도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은 작아지고 있다. 증가폭이 작아진 것은 스마트폰 중독자의 증가율이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스마트폰 중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전체 청소년의 27.6%가 잠재적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유아·아동, 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10명 중 약 3명의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군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②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자료를 통해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 및 아동의 비율이 10.7%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0명 중 1명꼴이다.

④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은 2011년에는 11.4%였고,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3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③이 타당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④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줄임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는 것은 관련 직업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07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내성

이 생기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08 (가)에서 2015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과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을 조사하여 수치화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5년을 제외한 연도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관해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마)와 (바)에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다)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청소년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09 (바)에서 글쓴이는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면 매우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교 과제를 하는 것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글쓴이는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스마트폰 중독인지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③ (마)에서 글쓴이는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④ (가)에서 글쓴이는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⑤ (가)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0 (나)와 (다)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새롭 군이 누리소통망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줄이고 사람들과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의 내용으로 볼 때, 중독 증상에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극이 늘지 않으면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면 즐거움이나 만족감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내용과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한 새롭 군의 말로 볼 때 새롭 군은 스마트폰이 없을 시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을 겪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③ (나)의 내용으로 볼 때, 새롭 군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두뇌의 기억 공간이 부족해지고 공부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④ (다)의 내용으로 볼 때, 새롭 군이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일이 잦아진 것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1 학생 1은 이 글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개인의

노력 측면에서만 제시한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하였고, 학생 2는 이 글이 스마트폰 이용의 장단점을 모두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학생 1과 학생 2는 글쓰기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긍정하고 문제 해결에 유용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근거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② 글쓰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④, ⑤ 학생 1과 학생 2 모두 글쓰기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글쓰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독자가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의 내용 인지 평가하고 있지 않다.

12 독자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대되어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생활이 익숙해지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대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독자는 (바)의 내용에 대해 청소년 여가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독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와 학교, 가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⑤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19~122쪽

01 ① 02 ⑤ 03 음악실 사용 시간 04 ① 05 ②
06 ③ 07 ④ 08 ㉠, ㉡ 09 ⑤ 10 ② 11 월요일
부터 목요일,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원래 밴드 동아리가 연습하던 한 시간을 양보하였다. 12 ① 13 ③ 14 ⑤ 15 ③

01 '협상 배경'과 정연과 재민의 발화를 통해 교내 합창 대회는 보름 뒤에 열리고,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내 합창 대회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뒤에 열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재민은 3반 반장으로 반을 대표하여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연은 밴드 동아리 회장으로 동아리를 대표하여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③ 정연은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정연은 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방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재민은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지만'이라며 밴드 동아리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한다.

0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본인이 양보할 수 있는 바를 숨기는 것은 성공적 협상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함께 협상을 통해 자신이 얻고

자 하는 바 및 양보 지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참여하려는 태도는 전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이다.

②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③ 협상 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은 성공적 협상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

④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통해 유연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이다.

03 협상 배경을 보면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는 음악실 사용 시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협상은 일반적으로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시작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 확인 및 자신의 요구 사항 전달하기가,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요구 사항 이해하기가, 해결 단계에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하기를 한다.

05 재민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것이기 때문에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연은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고 악기와 장비들을 옮기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음악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음악실에 갖추어진 악기와 음향 시설 때문에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재민이 내세운 근거이다.

③ 음악실의 청소 상태 때문에 음악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음악실의 크기에 대한 내용은 담화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음악실에서만 늦은 시간까지 연습이 가능한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06 정연은 재민의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라는 말에 교내 대회와 외부 대회는 다르며 흥분한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연의 반응은 재민의 이전 발화 내용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뿐, 평소 재민네 반의 음악실 사용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흥분한 목소리'는 언어적 표현에 수반된 준언어적 표현이다.

② 재민의 이전 발화 중 대회 개최 시기를 근거로 밴드 경연 대회보다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표현이다.

④ 협상 도중 흥분한 상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공적 협상을 방해하는 좋지 않은 태도이다.

⑤ 정연은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다는 점, 항상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 청소를 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07 ㉠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처지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이에 비해 ㉡은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과 '네 말을 듣고 보니, ~힘들겠다'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함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언어적 표현만을, ㉡은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② ㉠과 같은 감정적 대응은 의사소통의 목적 달성과 주제 전달을 방해하는 발화이다.

- ③ ⑥는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는 발화일 뿐 상대방의 대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미의 발화는 아니다.
- ⑤ ⑥는 우호적인 자세가 반영된 발화이지만, ⑥는 그렇지 않다.

08 이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대안 제시와 상호 검토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혀 나가고 있다(㉠). 협상의 조정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민과 정연이 연습을 위해 음악실 사용이 필요한 처지임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⑤ 재민은 상대방의 연민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급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⑥ 정연도 재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대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9 ㉠ 앞에서 재민은 정연의 발화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정연의 말 속에 담긴 뜻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민에게 정연은 자신의 발화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알고 ㉡을 통해 사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재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서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으므로 재민 쪽의 양보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③ 겸손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양보를 더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 ④ 원하는 바가 서로 충돌하여 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수록 타협을 통해 조정이 되고 있다.

10 ㉡ 다음에 이어지는 재민의 발화를 보면 대회에 나가려면 매번 한 시간씩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30명이 넘는 반 친구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연습 시간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습 시간이 부족하고 연습 대상자의 인원이 너무 많아 연습 시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재민은 원래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인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음악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므로 상대방의 연습 시간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미리 반 친구들에게 공지한 것이 아니라 정연과의 협상 과정에서 음악실에서의 연습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연습 방법의 다양한 변화는 발화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⑤ 앞서 자신이 주장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 적절하지 않아 ㉡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앞선 주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11 정연은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이라고 하였다. 재민이 제시한 대안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을 받아들인 것은 정연이 원래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을 재민네 반에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해결 단계에서 재민은 정연에게 전자 피아노 대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협상 합의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음악실 사용 시간에 대한 합의 이후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재민은 비언어적 표현(‘미소를 지으며’)을 통해 협상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 ③ 재민은 ‘우리 합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 ~ 빌려주는 거야.’와 같

이 협상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④ 정연은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⑤ 정연은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서 음악실 청소를 맡아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13 재민네 반은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맡기로 했다. 따라서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날에만 음악실 청소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주말에는 밴드 동아리가 연주 지도를 받기 위해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② 밴드 동아리에서 재민네 반에 교내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④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6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6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밴드 동아리가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14 재민이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교실에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줄 수 있겠니?”라고 하였으며, 정연은 밴드 동아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 피아노를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빌려주기로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밴드 동아리의 반주 준비는 이 담화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② 추후 일정 조정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주말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 ③ 주말 이들은 재민네 반이 밴드 동아리에게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 ④ 음악실 청소는 정연이 재민에게 부탁한 것이다.

15 이 협상에서 재민과 정연은 음악실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했다. 이러한 결과로 양측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오답 풀이** ① 밴드 동아리 대표가 일방적으로 회생을 했다가거나 봉사 정신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재민과 정연 모두 타당한 조건을 내세우며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특별히 강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 ④ 이용 시간을 양보하는 대신 이용 장소인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은 재민네 반이고, 밴드 동아리는 이용 시간과 이용 장소를 양보하는 대신 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집중 연습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
- ⑤ 이 협상에서는 교내 합창 대회와 교외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의사소통에 오해를 빚은 일이 있었다. 처음부터 교내 대회와 교외 대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협상의 해결과도 관련이 없다.

소단원 평가

본문 123~125쪽

01 ⑤ **02** ④ **03**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니 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을 진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04** ③ **05** ⑤ **06** ③ **07** ④ **08** ② **09** ⑤ **10** 협상은 갈등 상황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01 재민과 정연은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협상 과정에서 대화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

②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고개를 끄덕이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흥분한 목소리로'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③ (다)에서 재민이 주말에 밴드 동아리가, 주중에 사 일은 재민네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연이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재민은 앞에서 제시한 대안을 구체화하여 재민네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라)에서 정연은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여 수용하고 있다.

④ 이 협상은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02 ㉔에서 재민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정연이 앞서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따라서 정연이 한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협상은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 모두가 음악실을 사용하고자 하여 갈등을 겪자 그 해결을 위해 열린 것이다. ㉔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㉔에서 정연은 지금처럼 동아리 연습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서 사용 시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③ ㉔에서 정연은 흥분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발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협상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⑤ (다)를 보면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연은 재민의 대안에 ㉔의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동아리 연습 시간을 한 시간 양보하고 있다. 이러한 양보를 통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03 정연은 밴드 동아리가 참가하는 대회의 위상과 음악실 청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태로는 협상을 할 수 없으므로 재민은 ㉔에서와 같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의사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있다.

04 (가)에서 재민네 반이 주말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재민의 대안에 대해, 정연은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강사님의 연주 지도가 있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 오후 네 시 이후에는 음악실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주말 전체를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재민은 주말에 음악실을 밴드 동아리에 양보하는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자기네 반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재민은 주말에는 음악실을 밴드 동아리에 양보하여 교실에서라도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자 피아노를 밴드 동아리에게 빌리고자 한다.

④ 정연은 밴드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악기와 전자 장비들을 옮겨야 해서 힘들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⑤ 정연은 그동안 음악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재민네 반과 나눠 쓰게 되면 연습 시간이 줄어드니 밴드 동아리에서 해 왔던 음악실 청소를 재민네 반이 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05 ㉔은 언어적 표현에 수반된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적 태도가 반영된 표현이다. 또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듣기 태도를 반영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데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06 ㉔은 재민이 주말에 음악실 사용을 밴드 동아리에 양보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있는 발화이다. 따라서 조건을 내세우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 전자 피아노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밴드 동아리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제안이 아니며 정연은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

⑤ 서로 얻게 될 이익의 정도를 계산한 것은 아니다.

07 이 협상의 참여자들은 양보와 설득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재민은 정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연은 재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맡아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재민과 정연은 모두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하고 있다.

③ 재민과 정연은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였다.

⑤ '혹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하자.'라는 정연의 말은 협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에 해당한다.

08 협상을 통해 재민은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주말에는 교실에서 합창 대회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연은 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회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09 ㉔과 ㉕은 추가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㉔을 통해 재민네 반은 주말에도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할 수 있으며, ㉕을 통해 밴드 동아리는 연습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타협과 조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 내용에 해당한다.

② 재민과 정연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③ 재민과 정연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④ 재민과 정연이 최초 목표로 했던 이익은 주중과 주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점에서 이를 초과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볼 수 없다.

10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과 주장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흔히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에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 협상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전문적인 진단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며, 자가 진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안이다. 07 ② 08 ② 09 ② 10 ① 11 ④ 12 재민 -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주말에는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됨. 정연 - 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음악실에서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13 협상이 결렬되었을 것이며, 음악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밴드 동아리와 재민네 반의 갈등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14 ③ 15 ② 16 ④ 17 ⑤ 18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타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9 ④

01 설의적 표현이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제시하여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라)의 '우리 청소년들이 ~ 벗어날 수 있을까?'는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어질 내용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 경험히 있을 것이다.'에서 누구나 겪어 보았을 만한 경험을 제시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② (나)의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세계 보건 기구가 발표한 내용을 제시하여 스마트폰이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마)에서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모두 제시하고 스마트폰 누리소통망(SNS)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도파민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것은 맞지만,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는 같은 자극에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기게 한다. 따라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더 많은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보기>의 철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과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스마트폰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했을 때의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누리소통망(SNS)에 대한 내용은 <보기>와 거리가 멀다.

④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과제를 해결한 경우이므로, <보기>를 토대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것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글은 삶의 문제로 스마트폰 중독을 다루고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삶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은 드러나 있으나, 개인적인 감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관념적인 대상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념 정의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정적인 상황 설정과 대상의 변화를 열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소설이 아닌 논설문이므로 허구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05 (가)에 제시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통해 스스로 중독 여부를 진단해 보고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꺼린 채 중독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자가 진단만으로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다)에서 차량이 많은 곳, 건물목, 계단 등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나 수업 시간,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후 등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많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기록해 보기를 권하고 있다.

⑤ (라)와 (마)에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지양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하거나 취미 등을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다.

06 <보기>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유용성'과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본다.'라는 대안을 평가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가)의 대안이 유용하며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가)의 대안이 유용하며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를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가)의 대안이 유용하며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7 제시된 지문은 협상의 절차 중 '조정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협상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오답 풀이 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③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해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④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⑤ 협상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는 조정되고 있다.

08 재민과 정연은 각자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인지하고 있고 상대방도 음악실을 사용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09 ㉠은 정연의 말을 들은 재민이 밴드 동아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은 정연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재민이 이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④ ㉠과 ㉡ 앞에서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재민이 ㉠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협상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의 반응을 본 정연이 재민에게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오해가 사라졌다. 즉 ㉠과 ㉡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10 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재민네 받은 음악실에서의 연습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자기 반의 음악실 사용 시간을 최대한으로 하되, 반 친구들의 일정에도 맞는 음악실 사용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연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민이 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자기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 (가)는 협상의 시작 단계와 조정 단계로, 협상 참여자들은 음악실 사용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나)는 협상의 해결 단계로, 협상 참여자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대안을 수용하고 합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할 일이지만, (가)에서는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12 (나)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시부터 여섯시까지까지는 재민네 반이,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밴드 동아리가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고, 재민네 받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대신 맡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되는 이익을 모두 서술하였다.	상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되는 이익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하

13 협상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보기>의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로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음악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협상의 성공 여부와 양측의 갈등의 지속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서술하였다.	상
협상의 성공 여부와 양측의 갈등의 지속 여부에 대한 내용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하였다.	하

14 성인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이유는 어른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5 협상을 진행할 때 자신의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양보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목표점과 최종 양보점을 확실히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16 [A]에서 정연은 밴드 동아리가 대회 준비로 한창 연습 중이라는 것,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방과 후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 설명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7 (나)에서 정연은 재민의 대안에 대해 주말에는 강사의 연주 지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재민에게 주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음악실을 사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민은 주말 오후 네 시 이후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 어렵다고 말하면서 주말은 양보할 테니 주중에 사 일 동안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중에 하루, 주말에 이틀 동안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재민이 정연에게 제시한 대안이며, 이에 대해 정연은 주말에는 강사의 연주 지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매일 오후 다섯시부터 음악실에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연이 말한 내용이다.

③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정연이 말한 내용이다.

④ 주말에는 강사의 연주 지도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연이 말한 내용이다.

18 ㉠은 재민의 말에 흥분한 정연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발화이다. 협상은 양보와 설득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발화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발화는 협상을 결렬시킬 위험성이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협상의 목적과 연관 지어 발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발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협상의 목적을 서술하지 않았다.	중
발화의 문제점을 미흡하게 서술하였으며 협상의 목적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	하

19 정연은 재민이 고개를 가우뚱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처럼 말의 의도와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정연이 ㉠처럼 말한 것은, 상대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상대의 말에 공감하였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② ㉡의 앞부분에서 정연과 재민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③ 정연은 자신이 한 말의 의도와 핵심을 설명하고 있을 뿐, 협상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정연은 말의 의도와 핵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정연이 재민을 비난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연의 발언 내용은 재민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1) 음운의 변동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34~140쪽

-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 [국민] ㉡: ㄹ
㉢: 환경 07 ⑤ 08 ④ 0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 혼니불 ㉣: 형식 ㉤: 실질 14 ④ 15 ④ 16 ⑤ 17 ④
18 ① 19 4개 20 ⑤ 21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거센소
리되기 22 ⑤ 23 ⑤ 24 ④ 25 ⑤ 26 ③ 27 ③
28 ③ 29 ③ 30 ④ 31 ② 32 ④ 33 ① 34 ③
35 ① 36 ⑤ 37 ⑤ 38 ⑤ 39 ④ 40 ㉢: ㄹ, ㉣: ㅈ, ㉤:
ㅈ 41 ②

01 이 글에서는 음운 변동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옷’이라는 형태소가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옷’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운]으로 소리 나지만, ‘옷’이 ‘ㄹ’ 또는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날 때는 ‘옷만[운만]’, ‘옷놀이[운노리]’와 같이 [운]으로 소리 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옷’이라는 형태소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다른 형태소와 결합되어 쓰일 때 발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음운은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

②, ④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교체),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축약),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첨가)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③ ‘옷’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운]으로 소리 나는 것을 통해 음절의 끝에 쓰이는 받침 ‘ㅈ’은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물 : 불’의 ‘ㅍ’과 ‘ㅂ’, ‘달 : 돌’의 ‘ㄴ’과 ‘ㄷ’과 같은 것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② ‘이야기책’에서 형태소는 ‘이야기’, ‘책’이 해당한다.
③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④ 사람들은 각자 목소리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말을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다른데 이것을 음성이라고 한다. 음운은 사람들의 말소리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가리킨다.

03 ‘옷’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운]으로 소리 나는 반면 ‘옷’이 ‘ㄹ’이나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옷만[운만]’, ‘옷놀이[운노리]’처럼 [운]으로 소리 난다고 하였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에서는 ‘옷’의 ‘ㅈ’에서 바뀐 소리인 ‘ㄷ’이 뒤에 이어지는 ‘ㄹ’이나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어 [운]으로 소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ㄷ+ㄹ→ㄴ+ㄹ, ㄷ+ㄴ→ㄴ+ㄴ). ③의 ‘꽃만’의 ‘꽃’은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꼴]으로 소리 나고, 이것이 다시 ‘만’의 ‘ㄹ’과 만나 [꼴만]으로 발음된다(ㄷ+ㄹ→ㄴ+ㄹ). 따라서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달님’은 ‘ㄹ+ㄴ→ㄹ+ㄹ’로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달림]으로 발음된다.

② ‘밖에’는 [바깸]로 연음되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불고기름’은 [불고기름]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봄이’는 [보미]로 연음되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04 ㄱ은 받침 ‘ㅂ’이 뒤에 이어지는 ‘ㄹ’의 영향으로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교체이므로 ㉢에 해당한다. ㄴ은 받침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탈락이므로 ㉣에 해당한다. ㄷ은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소리 난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축약이므로 ㉤에 해당한다. ㄹ은 원래 없던 ‘ㄴ’ 음이 첨가되어 소리 난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첨가이므로 ㉠에 해당한다.

05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따르면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한글 자모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 규정에 따라 ‘히읇’은 [히읇]으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16항에 따르면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현실 발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히읇이’, ‘히읇을’과 같이 ‘히읇’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실제 발음을 반영하여 [히으시], [히으슬]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들꽃’의 받침 ‘ㅈ’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들꼴]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③ ‘풀숲’의 받침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풀습]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④ ‘동넌’의 받침 ‘ㄴ’은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동넌]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⑤ ‘바깸’의 받침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바깸]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06 ‘국민’을 실제로 발음할 때에는 [국민](㉢)으로 소리 난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뒤에 오는 ‘ㅁ’(㉣) 소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운은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다.

07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보면 받침 ‘ㄱ’, ‘ㅌ’, ‘ㅍ’이 각각 [ㄱ, ㄷ, ㅂ]으로 소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② 유음화는 비음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③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④ 된소리되기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08 ‘염려’는 ‘ㄹ’이 앞에 오는 비음인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어서 [염녀]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국물[국물]: ㄱ+ㄴ → ㅇ+ㄴ -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② 달는[단는]: ㄷ+ㄴ → ㄴ+ㄴ -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③ 잡는[잡는]: ㅈ+ㄴ → ㅉ+ㄴ -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ㅈ’이 비음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⑤ 종로[종노]: ㅇ+ㄹ → ㅇ+ㄴ - 앞에 오는 비음 ‘ㅇ’의 영향으로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09 ㉠ ‘실내’는 ‘ㄹ+ㄴ → ㄹ+ㄹ’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쳐 [실래]로 발음되며, ㉡ ‘단란’은 ‘ㄴ+ㄹ → ㄹ+ㄹ’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쳐 [달란]으로 발음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비음 ‘ㄴ’이 유음인 ‘ㄹ’을 만나 ‘ㄹ’로 변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와 ㉡에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③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10 ‘물난리’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서 [물랄리]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오답 풀이 ① 강릉[강릉]: 앞에 오는 ‘ㅇ’의 영향으로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② 붙는 → [붙는] → [분는]: 받침 ‘ㅌ’이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바뀐 뒤에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③ 뒷마당 → [뒷마당] → [뒸마당]: 받침 ‘ㅌ’이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바뀐 뒤에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④ 죽녹원[죽노권]: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11 <보기>에서 ‘쫓는’의 음운 변동 과정을 보면 먼저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소리 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바뀐 ‘ㄷ’은 다시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과정을 보이는 단어는 ‘맛네’이다. ‘맛네’는 [맛네] → [만네]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ㄷ)이 일어난 다음 비음화(ㄷ → 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대통령[대통령]: 비음화(ㄹ → ㄴ)

③ 광한루[광할루]: 유음화(ㄴ → ㄹ)

④ 한라산[할라산]: 유음화(ㄴ → ㄹ)

⑤ 막론 → [막논] → [망논]: 비음화(ㄹ → ㄴ), 비음화(ㄱ → ㅇ)

12 <보기>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는 연음이 일어났을 뿐,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밭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ㅌ’으로 바뀌어 [바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해돋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ㅌ’으로 바뀌어 [해도지]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ㅌ’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술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ㅌ’으로 바뀌어 [소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3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홀이불]이 되고, ‘ㄴ’이 첨가되어 [홀니불]이 되었다가, 비음화를 거쳐 [혼니불]로 발음된다. 이것은 ‘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인 ‘이불’이 결합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14 그림을 보면 ‘ㅈ, ㅊ’과 ‘ㅣ’는 소리를 낼 때 혀가 닿는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ㄷ, ㅌ’이 ‘ㅣ’를 만날 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ㅣ’와 결합하는 모든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ㄷ, ㅌ’이 끝소리이고, 이와 결합하는 ‘ㅣ’가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ㄷ, ㅌ, ㅈ, ㅊ, ㅊ, ㅌ’를 발음할 때 혀가 닿는 위치를 표현한 그림이다.

② ‘ㄷ, ㅌ’은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치조음)이고, ‘ㅈ, ㅊ’는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입천장소리(구개음)이다.

③ ‘ㄷ, ㅌ’과 ‘ㅈ, ㅊ’ 중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ㅣ’와 더 가까운 것은 ‘ㅈ, ㅊ’이다.

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를 만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ㅣ’와 비슷한 ‘ㅈ, ㅊ’으로 바뀌면 더 자연스럽게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15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다. ‘붙여’는 ‘ㅌ’이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ㅊ’으로 소리 나므로 [부쳐]로 발음된다. ‘날날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날 → [난]), 비음화([난] → [넌]), 구개음화(날이 → [나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 [난나치]로 발음된다. 따라서 ㉠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끼리 묶였다.

오답 풀이 ① ‘끝이’는 [꼬치]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같은’은 [가튼]으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② ‘물받이’는 [물바지]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굳은’은 [구든]으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③ ‘곧이’는 [고지]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믿어’는 [미더]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⑤ ‘미달이’는 [미다지]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뿔뿔이’는 [뿔뿌리]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16 ‘할 적에’는 ㉠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ㅌ’이 오므로 [할적제]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이 온 경우이므로, ㉡에 따라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②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 경우이므로, ㉣에 따라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③ 한자어로, ‘ㄹ’ 받침 뒤에 ‘ㄷ’이 온 경우이므로, ㉤에 따라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④ 한자어지만 ㉔에서 제시한 환경(‘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이 아니므로,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17 ㉑과 ㉒은 ‘안다’라는 같은 형태로 표기되었지만 기본형은 다르다. ㉑은 기본형 역시 ‘안다’로 이때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다. 반면에 ㉒은 기본형이 ‘알다’이고, 이때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ㄴ-’)에 해당한다. 따라서 ㉑과 ㉒의 ‘ㄴ’이 모두 용언의 어간 받침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㉑의 기본형은 ‘안다’로, ‘두 팔을 벌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라는 뜻이고, ㉒의 기본형은 ‘알다’로,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이다.

③, ⑤ ㉑은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이어진 경우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여 [안따]로 발음된다. 반면에 ㉒은 기본형이 ‘알다’이고 이때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ㄴ-’)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지 않아 [안다]로 발음된다. 즉, ㉑과 ㉒은 서로 음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같지만 발음은 다르게 하는 것이다.

18 ‘국밥’은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ㅂ’이 온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여 [국뽵]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② ‘새것’은 [새견]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새견]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원격(遠隔)’은 한자어로 [원격]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되기의 환경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격]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체증(滯症)’은 한자어로 [체증]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체증]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부러지다’는 [뿌러지다]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부러지다]로 발음해야 한다.

19 ‘대관령[대괄령]’에서는 유음이 아닌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만이[마지]’에서는 받침 ‘ㄷ’이 ‘ㄹ’과 만나면서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앞마당[암마당]’에서는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뀐 뒤에 이 ‘ㅂ’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숙소[숙쏘]’에서는 ‘ㄱ’ 받침 뒤에 ‘ㅅ’이 와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4개이다.

오답 풀이 ‘제일[제일]’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조은]’은 ‘ㅎ’이 발음이 되지 않는 음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행복한[행보칸]’은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발음되는 음운의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20 <보기>의 ‘백합’은 ‘ㄱ + ㅎ → ㅋ’의 결과로 [배깅]으로 발음되고, ‘만형’은 ‘ㄷ + ㅎ → ㅌ’의 결과로 [마텅]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ㄱ, ㄷ, ㅂ, ㅈ’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하며, 두 음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운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음운의 축약이 일어날 경우, 표기와 달리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한 개 줄어든다.

21 ‘깨끗하다’는 [깨끄타다]로 발음된다. ㉔에서 받침 ‘ㅅ’이 음절

의 끝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의 교체)이 일어난다. ㉔에서는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음운의 축약)가 나타난다.

22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활용은 모음 탈락을 보여 주는 예이다. ‘크-+-어 → 커, 크-+-었-+-다 → 컸다’를 보면 어간 말모음 ‘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어미는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이므로 ㉔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㉑ 단어의 활용은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에서 일어난다. <보기>의 ‘가(다), 서(다)’는 동사이고 ‘크(다)’는 형용사이다.

② ‘가, 갔다’, ‘서, 섰다’를 보면 활용할 때 각각 어간의 모음 ‘ㅏ’와 ‘ㅑ’가 어미의 첫 모음과 같아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여 하나의 음운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④ 모음 탈락은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한 단어에서 두 개의 모음이 나란히 오는 것을 피하여 한 음운이 탈락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에 해당한다.

23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그런데 ㉔의 ‘다쳐’는 ‘다치-+-어’에서 ‘ㅣ’와 ‘ㅣ’ 모음이 합쳐져 ‘ㅑ’로 줄어서 소리 나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난 것이다. ‘다쳐’는 [다치]로 발음되지만 음운이 축약된 형태를 유지하여 ‘다쳐’라고 표기하였으므로,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㉑ ‘나’의 원래 형태는 ‘나-+-아’로, ‘ㅏ’가 탈락하여 [나]로 발음되며 ‘나’로 표기한다.

② ‘기뻐서’의 원래 형태는 ‘기쁘-+-어서’로, ‘ㅡ’가 탈락하여 [기뻐서]로 발음되며 ‘기뻐서’로 표기한다.

③ ‘타’의 원래 형태는 ‘타-+-아’로, ‘ㅏ’가 탈락하여 [타]로 발음되며 ‘타’로 표기한다.

④ ‘담가’의 원래 형태는 ‘담그-+-아’로, ‘ㅡ’가 탈락하여 [담가]로 발음되며 ‘담가’로 표기한다.

24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반모음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㉔의 ‘그려’는 용언의 어간 ‘그리-’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그려’가 된 것으로, 모음이 축약된 것이다. 참고로 반모음 첨가는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㉑ ‘닫으시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미 뒤에 모음 ‘ㅛ’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다드시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드시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② ‘미시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미 뒤에 모음 ‘ㅛ’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미시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시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③ ‘피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피어](원칙)나 [피어](허용)로 발음한다.

⑤ ‘사귀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사귀-’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사귀어](원칙)와 [사귀어](허용)로 발음한다.

25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와 유사한 음운 조건을 가진 경우는 [에]와 [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와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개었다’는 이러한 음운 조건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언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학교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학교’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하긴 했으나, 반모음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에 해당하여 [학교에]로 발음한다.

② ‘기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기-’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반모음이 첨가된 경우로 [기어](원칙)나 [기여](허용)로 발음한다.

③ ‘여시오’는 [여시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시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④ ‘되여’는 [되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되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6 ‘예뻤다’는 ‘예쁘-+ -었-+ -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ㄱ’가 탈락한 모음 탈락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아드님’은 ‘아들+ -님’이 결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자음 ‘ㄹ’이 탈락한 것이다.

② ‘바라’는 ‘보-+ -아라’가 결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모음이 축약된 것이다.

④ ‘바쁘-+ -아’가 결합하면 ‘바빠’가 되는데, 모음 ‘ㅓ’가 탈락한 것이다.

⑤ ‘피었다’는 ‘파-+ -었-+ -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용언의 어간 ‘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반모음이 첨가되면 [피엌따]로 발음할 수도 있다.

27 두음 법칙에서 한자음 ‘라, 러, 료, 류, 리’나 ‘나, 녀, 노, 뉴, 니’ 등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야, 여, 요, 유, 이’로 소리 나는 것은 ‘ㄹ’이나 ‘ㄴ’ 소리가 발음되지 않는 음운의 탈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자음 ‘라, 러, 로, 루, 르, 레, 례, 뢰’ 등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 녀, 노, 누, 느, 네, 느, 뵈’ 등으로 소리 나는 것은 ‘ㄹ’이 ‘ㄴ’으로 바뀐 것이므로 음운의 교체라고 할 수 있다.

28 한자음 ‘녀, 노,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년세’가 아닌 ‘연세’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불임 1] 규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남녀(男女)’, ‘은뇨(隱尿)’, ‘당뇨(糖尿)’, ‘만년(晩年)’으로 적는다.

29 ‘앉히다’에서 ‘ㅈ’과 ‘ㅎ’이 결합하여 ‘ㅊ’으로 변하는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나 [안치다]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어 연음을 해야 하는 환경이므로 ‘발을’은 [바를]로 발음한다.

②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또한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의 ‘ㅈ’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늑지도’는 [늑찌도]로 발음한다.

④ ‘육’의 ‘ㄱ’과 ‘학’의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이 되며, ‘학’의 파열음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인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비음화를 거처므로 ‘육 학년’은 [유강년]으로 발음한다.

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또한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의 ‘ㄷ’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읽다’는 [익따]로 발음한다.

30 흘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빛을’과 ‘빛이’는 [비출]과 [비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유음 ‘ㄹ’이 비음 ‘ㄴ,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거나,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ㄴ’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은 비음화이다.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ㄱ, ㄴ, ㄷ, ㄹ, ㄴ,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일곱 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은 구개음화이다.

31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일어난 발음이라고 하여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허용되는 것만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바로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이다.

오답 풀이 ① 음운은 ‘숨’의 ‘ㅅ’과 ‘뽀’의 ‘ㅂ’과 같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한다.

③ ‘기빠서’가 어간 ‘기쁘-’와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서 모음 ‘ㅓ’가 탈락하게 된 것처럼 음운 변동 현상에서는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④ ‘국물’에서 받침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되는 것처럼 형태소의 음운은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될 수도 있으며 이를 음운의 교체 현상이라고 한다.

⑤ ‘웃’은 단독으로 발음될 때 [운]으로 발음하지만, ‘웃만’과 같이 다른 형태소와 만나 발음될 때는 [운]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32 어간 받침 ‘ㄴ(ㄴ), ㄴ(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더듬다’는 어간 받침이 ‘ㄴ’이고, 받침 뒤의 첫소리로 ‘ㄷ’이 이어져 [더듬따]로 발음된다. 즉, 어미의 첫소리 ‘ㄷ’이 ‘ㄸ’으로 바뀐 것으로, 음운의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하기 때문에,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즉, 음운의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② 받침 ‘ㄱ(ㄱ, ㄱ, ㄱ, ㄱ), ㄷ(ㄷ, ㄷ, ㄷ, ㄷ), ㅂ(ㅂ, ㅂ, ㅂ,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국밥’은 [국뽵]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즉, 음운의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③ ‘ㅎ(ㅎ, ㅎ)’ 뒤에 ‘ㄱ, ㄷ,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ㅅ]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놓고’는 [노코]로 발음하여야 한다. 즉, 음운의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⑤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뒤에 모음 ‘ㅣ, 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는 반모음 ‘ㅣ[j]’가 새로 생겨 발음된다. 따라서 ‘피어’는 반모음 ‘ㅣ[j]’가 첨가되어 [피어/피여]로 발음한다. 즉, 음운의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33 <보기>에 제시된 표준 발음법은 모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에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발음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즉, 음운의 교체 현상과 관련 있는 표준 발음법 규정인 것이다.

34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즉, ‘단팔이’는 [단파치]로 발음하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때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여야 한다. 따라서 ‘넋이’는 연음 현상에 따라 [넉시]가 된 후,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넉씨]로 발음하여야 한다.

② ‘ㅎ’이 ‘ㄱ, ㄷ, 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백합’은 [배깅]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또한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꽃이’는 [꼬치]로 발음하여야 한다.

④ 겹받침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늑지도’는 ‘ㄹ’이 탈락하면서 [늑지도]가 되었다가,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늑찌도]로 발음한다.

⑤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즉, 연음 현상에 따라 ‘밤낮으로’는 [밤나즈로]로 발음한다.

35 ①의 ‘웃이’는 실질 형태소 ‘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가 이어진 것이다. 즉, ‘웃’의 받침 ‘ㅅ’이 연음되어 ‘웃이’는 [오시]로 발음한다. 또한 ‘겉옷’은 실질 형태소 ‘겉’과 실질 형태소 ‘옷’이 이어진 것으로, ‘겉’의 받침 ‘ㅌ’이 대표음[ㄷ]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거돋]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② ‘꽃을’은 실질 형태소 ‘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을’이 이어진 것으로, ‘꽃’의 받침 ‘ㅌ’이 연음되어 [꼬출]로 발음한다. ‘앞으로’는 실질 형태소 ‘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으로’가 이어진 것으로, ‘앞’의 받침 ‘ㅍ’이 연음되어 [아프로]로 발음한다.

③ ‘꽃 위’는 실질 형태소 ‘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위’가 이어진 것으로, ‘꽃’의 받침 ‘ㅌ’이 대표음[ㄷ]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꼬뒤]로 발음한다. ‘늑에’는 실질 형태소 ‘늑’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에’가 이어진 것으로, ‘늑’의 받침 ‘ㄹ’이 연음되어 [느페]로 발음한다.

④ ‘숲에’는 실질 형태소 ‘숲’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에’가 이어진 것으로, ‘숲’의 받침 ‘ㅍ’이 연음되어 [수페]로 발음한다. ‘있어’는 실질 형태소 ‘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어’가 이어진 것으로, ‘있’의 받침 ‘ㅅ’이 연음되어 [이써]로 발음한다.

⑤ ‘웃 안’은 실질 형태소 ‘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안’이 이어진 것으로, ‘웃’의 받침 ‘ㅅ’이 대표음[ㄷ]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오단]으로 발음한다. ‘맛없다’는 실질 형태소 ‘맛’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없’이 이어진 것으로, ‘맛’의 받침 ‘ㅌ’이 대표음[ㄷ]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마덥따]로 발음한다.

36 ‘문치고’는 거센소리되기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 [무티고 → 무치고]로 발음한다.

37 ‘냥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㉔)에 따라 [냥는]으로 바뀌었다가, 비음화 현상(㉕)이 일어나면서 [냥는]으로 발음된다. ‘죽녹원’은 비음화 현상(㉕)과 연음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노권]으로 발음될 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동넙’의 받침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ㄱ’으로 바뀐다. 즉, ‘동넙’은 [동넉]으로 발음한다.

② ‘국내’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궁내]로 발음한다.

③ ‘첫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첸눈]으로 바뀌었다가,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첸눈]으로 발음한다.

④ ‘부억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부억문]으로 바뀌었다가,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부영문]으로 발음한다.

38 ‘달히다’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다티다]가 되었다가,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다치다]로 발음한다. ‘술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순하다]가 되었다가,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수타다]로 발음한다. ‘책잡히다’는 된소리되기 현상과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책짜피다]로 발음한다. 즉, 세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거센소리되기’이다.

39 ④에서 ‘가열(加熱)’과 ‘열정(熱情)’은 각각 [가열], [열정]으로 발음한다. 이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열(熱)’은 위치에 상관없이 [열]로 발음되므로 ④는 두음 법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량(良)’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량]으로 발음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양]으로 발음되므로 두음 법칙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류(流)’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류]로 발음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유]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즉, 두음 법칙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래(來)’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래]로 발음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내]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즉, 두음 법칙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료(料)’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료]로 발음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요]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즉, 두음 법칙의 사례로 적절하다.

40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만이, 같이’에서 ‘만-’과 ‘같-’은 끝소리가 ‘ㄷ’이나 ‘ㅌ’인 형태소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ㅣ’와 만나면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각각 [마지], [가치]로 발음한다.

41 ‘되어’는 어간 ‘되-’에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어’가 결합된 말이다. 즉, ‘되어’는 탈락된 음운이 없는 단어이므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어간 ‘나-’에 연결 어미인 ‘-아’가 결합한 말이지만,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나면서 모음 ‘ㅏ’가 탈락한 것이다. 즉, 모음 탈락 현상의 예로 적절하다.

③ ‘기빠서’는 어간 ‘기쁘-’에 연결 어미인 ‘-어서’가 결합한 말이지만,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즉, 모음 탈락 현상의 예로 적절하다.

④ ‘타’는 어간 ‘타-’에 연결 어미인 ‘-아’가 결합한 말이지만,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나면서 모음 ‘ㅏ’가 탈락한 것이다. 즉, 모음 탈락 현상의 예로 적절하다.

⑤ ‘졌다’는 어간 ‘재-’에 연결 어미인 ‘-었-’과 종결 어미인 ‘-다’가 결합한 말이지만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나면서 모음 ‘ㅏ’가 탈락한 것이다. 즉, 모음 탈락 현상의 예로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본문 141~142쪽

01 ③ 02 ④ 03 어간의 받침이 ‘ㄴ, ㄴ’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04 ③ 05 ③ 06 ⑤ 07 ① 08 ② 09 ⑤

01 ‘설레다’는 어떠한 음운 변동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표기와 동일하게 [설레다]로 발음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잡히다’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피다]로 발음한다. 즉,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끝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끝나다]가 되었다가, 비음화 현상에 따라 [끈나다]로 발음한다. 즉,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④ ‘아름답다’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름답따]로 발음한다. 즉,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거룩하다’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루카다]로 발음한다. 즉,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02 ‘맏형’은 ‘맏’의 끝소리인 ‘ㄷ’이 뒤에 오는 ‘ㅎ’과 만나 ‘ㅌ’으로 줄어들어서, [마텃]으로 발음한다. 즉, 음운의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국물’은 ‘ㄱ’과 ‘ㅁ’이 만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궁물]로 발음한다. 즉, ‘ㄱ’이 ‘ㅇ’으로 바뀌어 발음하게 된 것으로, 음운의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 ② ‘한라산’은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할라산]으로 발음한다. 즉,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하게 된 것으로, 음운의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 ③ ‘축하’는 ‘축’의 끝소리인 ‘ㄱ’이 뒤에 오는 ‘ㅎ’과 만나 ‘ㅋ’으로 줄어들어 [추카]로 발음하게 된 것으로, 음운의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 ⑤ ‘되어’를 [되여]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 ‘ㅣ’가 새로 생겨 발음된 것으로, 음운의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03 ‘안다’는 어간 ‘알-’ 뒤에 어미 ‘-ㄴ다’가 이어지면서 어간의 받침 ‘ㄹ’이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아기를 품에 안다[안따.]’에서의 ‘안다’와 달리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나는 환경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다’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안다]로 발음하는 것이다.

04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국밥’은 [국뽵]으로 발음해야 한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갈등’은 [갈똥]으로 발음해야 한다.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할 것을’은 [할꺼슬]로 발음해야 한다. 이처럼 ‘국밥, 갈등, 할 것을’은 모두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말로, 음운의 교체 현상이 나타나는 예라 할 수 있다.

05 ‘먹는’에서 ‘먹’의 받침 ‘ㄱ’은 뒤에 이어지는 비음 ‘ㄴ’과 동화되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붙는’에서 ‘붙’의 받침 ‘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 뒤에 이어지는 ‘ㄴ’과 동화되어 ‘ㄴ’으로 소리 난다. 또한 ‘꽃망울’에서 ‘꽃’의 받침 ‘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 뒤에 이어지는 ‘ㅁ’과 동화되어 ‘ㄴ’으로 소리 난다. 즉, ‘먹는’, ‘붙는’, ‘꽃망울’은 공통적으로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음화 현상이란 받침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각각 ‘ㅇ, ㄴ,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유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 ② 비음화 현상 중, 유음 ‘ㄹ’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된소리되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06 ‘부엌은’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은’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말의 받침소리가 그대로 연음되어 [부어큰]으로 발음해야 한다.

056 정답과 해설

오답 풀이 ① ‘밭은’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은’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밭’의 받침을 그대로 연음하여 [바튼]으로 발음해야 한다. ‘밭 아래’는 ‘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아래’가 이어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밭 아래’는 ‘밭’의 받침 ‘ㅌ’이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 연음되어 [바다래]로 발음해야 한다.

② ‘닭이’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진 경우이다. 겹받침인 경우에는 겹받침 중 뒤엣것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 연음되어 발음한다. 따라서 ‘닭이’는 [달기]로 발음해야 한다.

③ ‘꽃에’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진 경우이므로, [꼬체]로 발음해야 한다.

④ ‘늪 앞’은 ‘늪’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이 이어지는 경우이므로, ‘늪’의 받침 ‘ㅍ’이 대표음으로 바뀐 뒤 연음된다. 즉, ‘늪 앞’은 [느뱍]으로 발음해야 한다.

07 ‘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로, 어간 ‘되-’에 어미 ‘-어’가 이어진 단어이다. ‘되어’는 발음할 때 [되여] 또는 [되여]로 발음되는데, [되여]로 발음할 때에는 반모음 ‘ㅣ’가 첨가된다.

08 ‘단헛-’은 ‘단-+--히-+-었-’이 줄어든 말이다. ‘단헛-’은 [다툼 → 다툼 → 다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운의 축약(거센소리되기)과 음운의 교체 현상(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또한 ‘-습니다’가 [쑤니다]와 같이 발음되는 데는 음운의 교체 현상(된소리되기, 비음화)이 나타난다.

09 <보기>는 두음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⑤의 ‘낙월’이 두음 법칙의 예에 해당한다. ‘락(樂)’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면 첫소리 ‘ㄹ’이 ‘ㄴ’으로 바뀌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② ‘녀석’과 ‘늪’은 모두 고유어로, 고유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④ ‘뉴스’와 ‘라디오’는 모두 외래어로, 외래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우리말 바로 쓰기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44~145쪽

- 01** ③ **02** 한글, 표기 **03** ⑤ **04** ③ **05** 띄어쓰기
06 ④ **07** 둘V모두가V착한V학생이다. **08**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1 받아쓰기를 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어야 하고(ㄴ), 표기와 발음은 별개의 것이므로 어떤 문장에 대한 표기와 발음이 다를 수도 있다(ㄹ).

오답 풀이 ㄱ. 표기와 발음은 별개의 것이므로 말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말을 바르지 않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ㄷ.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에는 맞춤법이 필요하므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2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로, 크게 6장과 부록(문장 부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03 우리말을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꿈], [하늘]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되’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한글 맞춤법의 제1항에서는 맞춤법의 큰 원칙인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시하였다.

④ ‘꿈[꿈]’, ‘하늘[하늘]’, ‘바람[바람]’처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들은 소리대로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04 제시된 질문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의 이점을 묻고 있다. 하나의 형태소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하면 고정된 표기일 때보다 그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으면 눈에 훨씬 잘 들어온다.
②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라는 ‘읽-’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④ ‘읽-’이라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⑤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일’, ‘임’, ‘익’이 ‘읽-’이라는 같은 말임을 알아보기 쉽다.

05 띄어쓰기 규정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큰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㉓), 제5장은 전체가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띄어쓰기는 사람들이 문장이나 글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띄어쓰기가 크게 문제가 않는 경우도 있다(㉕). 또한 중세 국어와 같은 옛날 문헌에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데(㉖), 전문가조차도 종종 잘못 끊어 읽는 경우가 있다.

06 용언(동사, 형용사)의 활용 시에 붙는 어미는 단어의 일부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예를 들어 ‘예쁜 → 예쁘-+~ㄴ’의 ‘~ㄴ’과 같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규정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②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③ 띄어쓰기를 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고, 독해가 훨씬 수월해진다.

⑤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어문 규범에 따라 어떤 말을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을 의미한다.

07 띄어쓰기 규정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단어별로 띄어 쓰면 ‘돌V모두V가V착한V학생V이다.’이지만,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규정에 따라 ‘돌V모두가V착한V학생이다.’라고 쓰는 것이 옳바르다.

08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 올바르게 사용하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46~147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③ 12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01 ‘가밭[가밭]’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고, ‘사람+이 → 사람이[사라미]’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으로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각각 ㉠과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무[나무]’는 ㉡의 예로 적절하지만, ‘따뜻히’는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기로 형태소 분석을 하면 ‘따뜻-+~이’가 되어 ‘따뜻이’라고 써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길이[기리]’는 ㉡의 예로, ‘푸르다[푸르다]’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먹물[멍물]’은 ㉡의 예로 적절하다. ‘오뚜기’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오뚜-+~이’가 되고 [오뚜기]로 발음되지만, ‘오뚜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⑤ ‘드러나다[드러나다]’는 ㉡의 예로 적절하다. ‘해도지’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해+돋-+~이’가 되고 [해도지]로 발음되지만, ‘해돋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02 한글 맞춤법 제2항과 제41항에 따르면,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이다’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대’는 ‘차나 기계, 악기 따위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03 <보기>의 문장을 ‘오늘 밤 나무 사 온다.’로 띄어 쓰면 ‘오늘 밤에 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늘 밤에 나는 무를 사 가지고 온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은 ‘오늘 밤 나무 사 온다.’라고 띄어 썼을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마다 하나의 문장을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③ 주어진 대로 띄어쓰기를 했을 때 ‘오늘 밤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④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띄어쓰기를 알맞게 해야 한다.

⑤ 띄어쓰기는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04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야단법석’이라고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씩둑’으로 적어야 한다.

②, ③, ④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였고,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니므로 ‘담뱃’, ‘살짝’, ‘잔뜩’으로 적어야 한다.

05 한글 맞춤법 제19항에서 어간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②의 ‘밝히’는 ‘불빛 따위가 환하게’라는 뜻의 부사로, ‘밝-’이라는 어간에 ‘-히’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미듬’은 ‘믿음’의 잘못된 표기이다. ‘믿음’은 ‘믿-’이라는 어간에 ‘-음’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③ ‘다듬이’는 ‘다듬이’의 잘못된 표기이다. ‘다듬이’는 ‘다듬-’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④ ‘실업시’는 ‘실업이’의 잘못된 표기이다. ‘실업이’는 ‘실업-’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다.

⑤ ‘짓궂히’는 ‘짓궂이’의 잘못된 표기이다. ‘짓궂이’는 ‘짓궂-’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다.

06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③의 ‘생긔시’는 ‘생긔이’의 잘못된 표기로, ‘생긔이’는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이라는 뜻의 부사 ‘생긔’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쓸쓸히’, ‘꾸준히’, ‘조용히’가 이에 해당한다.

⑤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깨끗이’가 이에 해당한다.

07 ④의 ‘예삿일’은 ‘한자어(例事) + 고유어(일)’로 된 합성어로 [예산닐]이라 발음된다. 이것은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로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에 해당하므로 ‘예삿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사이시옷은 합성어 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치어 적는다. ‘해님’은 어근인 ‘해’에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② ‘초점(焦點)’은 [초점]으로 발음되지만 ‘한자어 +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서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은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의 여섯 가지로, 이외에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③ ‘머리글’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지만, [머리글]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⑤ ‘인사말’은 ‘한자어(人事) + 고유어(말)’로 된 합성어이지만, [인사말]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08 ㉠과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 중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제시된 단어들 중 ④는 ‘양치(養齒) + 물’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양친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서 ‘양칫물’이라 적어야 한다. 따라서 ㉠과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후(後) + 일 → 훗일’은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라서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훈닐]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내 + 물 → 냇물’은 [넉물]로 발음되어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라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머리 + 방(房) → 머릿방’은 [머리뺑]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고, ‘고유어 +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서 ㉠, ㉡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⑤ ‘아래 + 마을 → 아랫마을’은 [아랜마을]로 발음되어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라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09 ‘만큼’은 의존 명사나 조사로 쓰인다. ③에 쓰인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쌈’은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과 제43항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쓴다.

② ‘뽀’는 의존 명사나 조사로 쓰인다. 이 문장에 쓰인 ‘뽀’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이다’는 주어 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④ ‘축’은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한글 맞춤법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쓴다.

⑤ ‘에서’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10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으로써’가 아닌 ‘으로서’이다. ‘으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반장으로서’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ㄹ게’는 어미 ‘-ㄹ게’의 잘못된 표기이다.

② ‘친구(이)다’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이에요’ 또는 ‘-이예요’의 준말인 ‘-예요’의 형태로 쓰는 것이 옳바르다.

③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새우다’가 옳바른 표기이다. ‘세우다’는 동사 ‘서다’에 접사 ‘-우-’가 붙은 사동사이다.

④ 다섯 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안’이 ‘되다’ 앞에 쓰여 그 뜻을 부정하는 부사이므로 ‘안 된다’로 띄어 써야 한다. 합성어 ‘안되다’는 ‘잘되다’에 상대되는 뜻으로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공부가 안된다.),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자식이 여럿이면 잘되는 자식도 있고 안되는 자식도 있다.),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 안되어도 두 명은 와야지.)의 뜻으로 쓰인다.

11 ③의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③은 문맥상 아픈 것이 금방 나은 것이므로,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인 ‘낫다’의 활용형인 ‘나았어요’라고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오십시오’가 바른 표기이다.

② ‘만들다’의 어간 ‘만들-’에 명사형 어미 ‘-ㅁ’을 붙여 ‘만듸.’이라고 써야 한다.

④ ‘룰’은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어야 하며, ‘울’로 적는 경우인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룰’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룰’이 바른 표기이다.

⑤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러’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다고 해’의 준말인 ‘-대’를 써야 하므로 ‘봣대.’가 바른 표기이다.

12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소단원 평가

본문 148~151쪽

01 ⑤ 02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으면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3 ①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⑤ 10 ③ 11 ① 12 ② 13 ② 14 ①
15 ③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② 21 ②
22 ② 23 ㉠ → 승아가 상을 탔대. ㉡ → 참석한 인원은 다섯 명이 안 된다.

01 [늘꼬], [늘쎌], [늘느]에서 각기 다르게 발음되는 밑줄 친 말을 동일하게 ‘늘-’으로 쓰는 것은, ‘늘고, 늘지, 늘는, 늘어, 늘은’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질 형태소인 어간의 본모양이 ‘늘-’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마중[마중]’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되나, ‘딱하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따카다]가 되지만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된다.

② ‘국물[국물]’과 ‘같이[가치]’를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적을 경우에는 ‘국물’, ‘가치’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국물’과 ‘같이’는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읽다’, ‘읽고’는 형태소가 지닌 뜻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어법에 맞도록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사라지다[사라지다]’와 ‘쓰러지다[쓰러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에 해당한다.

02 ‘빛, 빛, 빛’은 모두 [빔]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각 단어가 지닌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의미를 쉽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03 제5항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수, 몹씨’는 ‘국수, 몹시’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거꾸로’로 적는

다. ‘법석’은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석’으로 적는다.

③ ‘깎두기, 색시’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깎두기, 색시’로 적는다.

④ ‘산뜻하다, 엉뚱하다’는 ‘ㄴ,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산뜻하다, 엉뚱하다’로 적는다.

⑤ ‘깨끗하다, 해쓷하다’는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깨끗하다, 해쓷하다’로 적는다.

04 ‘룰’은 [불입]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합격룰’이라 적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한자음의 본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성공룰’, ‘경쟁룰’은 ‘성공룰’, ‘경쟁룰’로 적는다.

②, ③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백분룰’, ‘실패룰’은 ‘백분율’, ‘실패율’로 적는다.

05 ‘걸음’은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이라는 뜻으로, ‘걷다’의 어간 ‘걷-’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걷다’는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라는 뜻으로, ‘걸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비료’를 뜻하는 ‘거름(걸- + -음)’과 같은 단어가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벌이’는 ‘일을 하여 돈이나 재물을 벌.’이라는 뜻으로, ‘벌다’의 어간 ‘벌-’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벌다’는 ‘일을 하여 돈 따위를 얻거나 모으다.’라는 뜻으로, ‘벌이’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② ‘알’은 ‘아는 일’이라는 뜻으로, ‘알다’의 어간 ‘알-’에 ‘-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알다’는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으로, ‘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③ ‘많이’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라는 뜻으로, ‘많다’의 어간 ‘ 많-’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많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는 뜻으로, ‘많이’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④ ‘익히’는 ‘어떤 일을 여러 번 해 보아서 서투르지 않게’라는 뜻으로, ‘익다’의 어간 ‘익-’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익다’는 ‘자주 경험하여 조금도 서투르지 않다.’라는 뜻으로, ‘익히’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06 ‘곰곰이’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 ‘곰곰’에 ‘-이’가 붙어 뜻을 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사의 원형을 밝혀 ‘곰곰이’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넉넉히’, ‘딱히’가 이에 해당한다.

③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어렵듯이’가 이에 해당한다.

⑤ [불입]에서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였다.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이므로 ‘갑자기’로 적는다.

07 ‘뒤+풀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지만 뒷말의 첫소리에서 된소리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고 ‘뒤풀이’라 적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③ ‘깨+읽’은 [깰닙]으로 발음되고, ‘베개+잇’은 [베깰닙]으로 발음된다. 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깰닙, 베깰닙’으로 적는다.

② ‘아래+이’는 [아랜니]로 발음된다. ‘이[齒]’는 합성어에서 ‘니’로 소리날 때는 ‘니’로 적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아랜니’로 적는다.

④ ‘나루+배’는 [나루뻘/나루뻘]로 발음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나루뻘’로 적는다.

08 ①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하는 데’라고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②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열 살이’라고 써야 한다.

③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청군 대 백군으로’라고 써야 한다.

④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또한 제44항에서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칠만 구천팔백이십일 명이’라고 써야 한다.

⑤ ‘듯이’는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잡힐 듯이’라고 써야 한다.

09 ‘보조 용언을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47항의 내용이다. 예문의 ‘꺾아(서) 드렸다’와 같이 ‘-아-/어’ 뒤에 ‘서’가 붙어진 형식에서는 뒤의 단어가 보조 용언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꺾아(서) 드렸다.’라고 써야 한다.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에 적절한 예로는 ‘불이 꺼져 간다.(원칙) / 불이 꺼져간다.(허용)’를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3항의 내용이다. ‘모금’은 ‘액체나 기체를 입 안에 한 번 머금은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한 모금의’이라고 써야 한다.

②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내용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커녕’과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도’를 그 앞말에 붙여서 ‘밥커녕 죽도’라고 써야 한다.

③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5항의 내용이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겸, 내지, 대, 등, 및, 등등, 등속, 등지)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그 밖의 곳들을 출입을 나타내는 말’인 ‘등지’를 앞말과 띄어서 ‘광주 등지를’이라고 써야 한다.

④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9항의 내용이다. ‘대한 고등학교’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로 이와 같은 말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 고등학교’라고 써야 한다.

10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③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인 ‘입니다’를 앞말에 붙여 ‘학년입니다.’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마리’는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마리가’라고 써야 한다.

②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8항에서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황 씨는’이라고 써야 한다.

④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겸, 내지, 대, 등, 및, 등등, 등속, 등지)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숭아 등이’라고 써야 한다.

⑤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졸업한 지’라고 써야 한다.

11 ①의 밑줄 친 부분에는 반창고가 상처 난 부위에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의 서술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붙다’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이 문장에서는 ‘붙다’의 사동사인 ‘붙이다’의 과거형으로 알맞게 쓰였다.

오답 풀이 ②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의 뜻을 지니는 말은 ‘휴게’가 아닌 ‘휴게(休憩)’이다.

③ ‘문안하다’는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다.’라는 뜻인데, 문맥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로 흡집을 데 없다.’라는 뜻의 ‘무난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예스럽다’는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이고 사이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고 표기해야 한다.

⑤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뜻하며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쓰이는 말은 ‘너머’이다. ‘넘어’는 동사 ‘넘다’에 어미 ‘어’가 붙은 형태이다. 즉 ‘넘어’는 ‘고개를 넘어 간다.’처럼 동작을 나타내지만 ‘너머’는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낸다.

12 ‘엷히고설키다’는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다.’ 또는 ‘관계, 일, 감정 따위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되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다. 여기에서 ‘엷히고’는 ‘이리저리 관련이 되게 하다.’를 뜻하는 ‘엷다’에 ‘-히-’가 붙어서 된 ‘엷히다’가 활용한 말이므로 어법에 맞게 쓰는 원칙에 따라 ‘엷히고’로 쓰고 있다. 이것을 소리대로 ‘얼키고’로 적으면 ‘엷다’의 원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오답 풀이 ①, ③ ‘엷히고’는 ‘엷다’의 어간 ‘엷-’에 피동 접사 ‘-히-’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어법에 맞게 적음으로써, ‘엷히고’와 ‘엷다’의 의미상 연관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④, ⑤ ‘설키다’는 ‘섞다’라는 우리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13 ‘바람’은 [바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한다. 즉, ‘바람’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넘어지다’는 ‘ㄹ’이 연음되면서 [너머지다]로 발음하기 때문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넘어지다’는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길이’는 [기리]로, ‘맞히다’는 [마치다]로 발음하는 단어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두 단어 모두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오목이’는 [오무기]로, ‘읽는다’는 [잉는다]로 발음하는 단어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두 단어 모두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드러나다’는 [드러나다]로, ‘꼬트머리’는 [꼬트머리]로 발음한다. 즉, 두 단어 모두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⑤ ‘쓰러지다’는 [쓰러지다]로, ‘설거지’는 [설거지]로 발음한다. 즉, 두 단어 모두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14 ‘떠난지’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에 ‘떠난지’는 ‘떠난 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하기 때문에, ‘그간’, ‘이곳을’, ‘일주일’처럼 붙여 써야 한다.

③, ④, ⑤ 제시된 문장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나,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 성과 이름, 호, 호칭어, 관직명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15 한글 맞춤법 제27항에 따르면 합성어나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는 각각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깎두기’는 단일어이기 때문에 이 조항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꽃잎’은 명사 ‘꽃’과 명사 ‘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② ‘웃웃’은 ‘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웃’과 명사 ‘웃’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④ ‘엿듣다’는 ‘몰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엿’과 동사 ‘듣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⑤ ‘낮잡다’는 형용사 ‘낮다’와 동사 ‘잡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16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다. 즉, ‘반듯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단어의 표기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깨’는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㉔에 따라 ‘엿개’로 적지 않고 ‘어깨’로 표기한다.

② ‘씩씩’은 ‘ㄱ,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㉔에 따라 ‘씩씩’으로 적지 않고 ‘씩’으로 표기한다.

③ ‘걸음’은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말이기 때문에, ㉔에 따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간의 원형을 밝혀 ‘걸음’으로 표기한다.

④ ‘깨끗이’는 어근 ‘깨끗’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기 때문에, ㉔에 따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깨끗이’로 표기한다.

17 한글 맞춤법 규정 제27항에 따라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한다. ‘걸잡다’는 걸으로만 보아 대강 한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걸-’과 동사 ‘잡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각각 그 원형을 밝혀 ‘걸잡다’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만들다’의 어간 ‘만들-’에 어미 ‘-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만들’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날았어요’의 기본형은 ‘날다’이다. ‘날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났다’로 써야 한다. ‘났다’는 ‘나으니’, ‘나아서’처럼 활용되는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므로 ‘나았어요’로 표기해야 한다.

③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오십시오’는 ‘오십시오’로 표기해야 한다.

④ ‘-하다’가 붙는 어근(‘ㅅ’ 받침 제외) 뒤에는 부사형 어미 ‘-히’가 붙어야 한다. 따라서 ‘꼼꼼이’는 ‘꼼꼼히’로 표기해야 한다.

18 ‘인사말’은 한자어 ‘인사’에 고유어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인사’가 올림소리(모음 ‘ㅏ’)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ㄹ’이지만 ‘ㄴ’ 소리가 덧나지 않아 [인사말]로 발음하기 때문에, 사잇소리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해님’은 고유어 ‘해’와 ‘높임’을 뜻하는 어미 ‘-님’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제시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님’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초점(焦點)’은 ‘한자어 +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이 글에서 제시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초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햇바늘’은 고유어 ‘허’와 고유어 ‘바늘’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며, [허빠늘/헐빠늘]처럼 된소리가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첨가하여 ‘햇바늘’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나뭇가지’는 고유어 ‘나무’와 고유어 ‘가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나무까지/나뭇까지]처럼 된소리가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첨가하여 ‘나뭇가지’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쇠숯값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 [쇠숯값/췌숯값]으로 발음되며,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로 끝난다. 즉, ㉔의 예로 적절하다. ‘아랫마을’은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아랜마을]로 발음한다. 즉, ㉔의 예로 적절하다. ‘깻잎’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깻닙]으로 발음한다. 즉, ㉔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등꽃길’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 [등고길 / 등곧길]로 발음하며,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로 끝나므로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바닷가’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 [바다까/바단까]로 발음하며,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로 끝난다. 즉,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예삿일’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예산닐]로 발음한다. 즉,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양치물’은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양친물]로 발음한다. 즉,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훗날’은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훈날]로 발음한다. 즉,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전셋집’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 [전세찜/전셀찜]으로 발음하며,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로 끝난다. 즉,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20 ‘뻔’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력 뿐이다.’는 ‘실력뿐이다.’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21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며, 부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같이’는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부사로 쓰일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으로 쓰인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와 띄어 써야 한다.

22 ‘-예요’는 서술적 조사의 어간 ‘이-’ 뒤에 ‘-예요’가 붙은 ‘-이예요’의 준말이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이-’가 생략되면서, ‘친구예요’처럼 ‘-예요’의 형태로 쓰인다.

23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비해,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다고 해’의 준말인 ‘-대’를 써야 하므로, ㉠은 ‘승아가 상을 탔대.’로 고쳐 써야 한다. 또한 ‘안되다’는 ‘잘되다’의 상대되는 뜻으로 ‘중케 이루어지지 않다.’,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은 ‘참석한 인원은 다섯 명이 안 된다.’로 띄어 써야 한다.

(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53~157쪽

- 01 ③ 02 ⑤ 03 ③ 04 글을 쓸 때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표절, 범죄 행위
11 ①, ⑤ 12 ③ 13 ⑤ 14 ① 15 ③ 16 쓰기 윤리, 책임감

01 (가)~(나)는 이 글의 처음 부분으로 앞으로 설명할 대상인 쓰기 윤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전하고 있다. 쓰기 윤리는 글쓴이가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장단점을 구분할 수 없고, (가)~(나)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쓰기 윤리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② (가)에서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등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 낳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고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으므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062 정답과 해설

02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어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는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익명성을 지니고 있다.

②, ③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다.

03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올린 글은 매체의 특성상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되돌리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올리는 글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글이 올라오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터넷 매체에서 올바르게 글을 쓰는 방법이다. 배타적인 태도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④ 인터넷 매체에서 글을 쓸 때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올리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기는 하지만 거짓 정보를 올리면 독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보를 많이 올리기보다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04 쓰기 윤리에는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면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라)에 제시된 개인적 쓰기 윤리의 개념을 보면 글쓴이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05 개인적 쓰기 윤리가 중요시되는 글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글이나,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은 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 조사하거나 연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글로, 글쓴이의 경험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써야 하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④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한 글의 종류로는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글로,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글들은 읽는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논설문과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아야 하는 글을 쓸 때에도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06 (라)의 사례 속 학생은 영화를 보고 나서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평가를 보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영화의 감상평을 쓰고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을 진실하게 쓰지 않아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의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함부로 인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함부로 인용하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 측면에서의 평가 내용에 해당한다.

③ 작품을 홍보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 쓰기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④ 자신의 생각과 전문가의 견해가 다른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따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화의 감상평만 남겼을 뿐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07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글이나 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기는 것이므로,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료를 윤리적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시각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규범이다.

③, ④ 사회적 쓰기 윤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08 (바)의 사례 속 학생들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했으나, 주제와 관련 없는 자료를 대량으로 발췌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⑤ (바)의 사례 속 여학생은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이름만 바꾸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글을 사용하였다.

①, ④ (바)의 사례 속 남학생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09 (사)는 (바)의 사례 속 학생들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했음을 밝히며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를 학습했다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런데 ③과 같이 생각하면 또 다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오답 풀이 ① (바)의 사례 속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쉽게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를 학습한 뒤에는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임을 알게 될 것이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 평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②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쓰는 일은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것을 지양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⑤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하여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민 것은 표절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10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또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글을 쓸 때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1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그 글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인터넷 매체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성에서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③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올리지 않았을 때 독자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지만, 독자의 불만 표출을 우려해서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개인 주변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개인 간의 대화, 편지, 전화 등이다.

12 인터넷상에 올릴 글의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알기 위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풀이 ①, ④ 인터넷상에 올릴 글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자료의 내용을 왜곡, 과장, 축소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이 쓰는 글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그 글을 볼 수 있으므로 쓰기에 맞게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⑤ 인터넷상에 올릴 글의 내용은 오류가 없이 정확해야 하므로, 흥미를 위해 오류가 있는 내용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13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특정 독자가 아닌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이 없다.

② 내용의 공정성이 아닌 진위 여부와 관련이 있다.

④ 연령뿐만 아니라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하여 내용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14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오답 풀이 ②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③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④ 글을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삼가고,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의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자신이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태도가 필요하다.

16 이 글의 글쓴이는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책임감 있게 글을 쓴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⑤ 06 ① 07 ④
08 ㉔: 사회적 쓰기 윤리 ㉕: 지식 재산권 09 ⑤ 10 ③ 11 ①
12 <보기>는 ‘ㄱ, ㄴ’과 ‘ㄷ, ㄹ’로 나눌 수 있다. ‘ㄱ, ㄴ’은 인터넷상에 글쓰기를 하여 얻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고 ‘ㄷ, 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다. 13 ⑤ 14 ②

01 이 글은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를 설명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예를 언급하고 있을 뿐,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쓰기 윤리는 ‘글쓰기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인터넷 매체의 장점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그 단점으로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서 쓰기 윤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특히 윤리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인터넷상의 정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반면 그 정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다.

②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을 통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매체는 익명성이 있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④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다.

03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는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 성격을 지니는지,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04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원저자의 허락을 얻고, 허락을 받았다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침없이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쓸 때에는 독자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③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뜻한다.

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서 글을 써야 한다.

05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사진작가의 사진을 원저자가 모르게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오답 풀이 ①, ③ 여행 후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므로 자신의 감상을 진솔하게 써야 한다. 또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써서는 안 된다.

② 인터넷상에 올린 글은 불특정한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언어 예절을 지켜 써야 한다.

④ 읽는 사람을 고려하여 자신이 경험한 일들 중 특정 주제로 글을 쓰거나 특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다.

06 <보기>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쓰지 않아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사례이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쓴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글쓰기가 음식 맛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솔직하게 쓰지 않은 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③ 글쓰기가 블로그에 게시한 잘못된 정보를 읽은 사람은 해당 음식점이 진짜 맛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④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도 글의 조회 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상 글쓰기의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음식점에 대해 글쓰기가 블로그에 올린 평가는 글쓰기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사례이다.

07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하는 행위는,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8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하여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일종의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09 자료를 수집할 때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자의 호기심을 끌 만한 자료만을 선정하다 보면 내용의 왜곡, 과장, 축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오류 없이 정확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사실을 그대로 담고 오류 없이 정확한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글쓰기의 의도를 위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다루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②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글은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④ 인터넷 매체에서 글을 쓰면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자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10 ‘파란하늘’은 ‘맛집도사’가 쓴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

고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맛집도사’가 쓴 글을 그대로 올리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퍼뜨린 사실은 (나)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퍼뜨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맛집도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꾸며 내고 있으며, ‘모험가’의 말에 따르면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즐거우리’는 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맛집도사’가 올린 내용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

④ ‘모험가’는 자신의 사진을 ‘맛집도사’가 허락 없이 도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남의 저작물을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 표시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소나무’는 ○○ 분식 사장으로, ‘맛집도사’가 게시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 요즘 손님이 준 것 같다고 하였다.

11 ㉠은 게시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했으며, ‘사기꾼’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충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즐거우리’는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 비속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⑤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했을 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④ 예상 독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글을 쓰라는 충고는 적절하지 않다.

12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은 것(㉠)이나,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과 비슷한 관심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된 것(㉡)은 인터넷상의 글쓰기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화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낀 것(㉢)이나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경험한 것(㉣)은 인터넷상의 글쓰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13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독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에 믿을 만한 내용만을 제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④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기 전에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다.

14 국어 문제집은 특정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보기>처럼 국어 문제집을 스캔하여 학교 누리집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동의를 얻거나 하는 등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인터넷 매체에 글 쓸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③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것이다.

④ 인터넷 매체에 글 쓸 때의 언어 표현과 관련한 것이다.

대단원 평가

본문 162~169쪽

01 ④ 02 ③ 03 ② 04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05 ② 06 ⑤ 07 ④ 08 ⑤ 0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⑤ 14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⑤ 20 ㉠: 책임감 ㉡: 저작권(지식 재산권) 21 ③ 22 ④ 23 ④ 24 ④ 25 ⑤ 26 ㉠: 부여, ㉡: 형식 형태소, ㉢: 부여, ㉣: 실질 형태소 27 ⑤ 28 ④ 29 ④ 30 ① 31 ③ 32 ③ 33 ② 34 ② 35 ② 36 ② 37 ㉠ → 아는 대로: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 → 김영석 박사: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38 ④ 39 ③

01 ‘웃’을 발음하면 받침의 ‘ㄷ’ 소리가 ‘ㄷ’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겹받침 ‘ㄲ’, ‘ㄴ’, ‘ㄷ’, ‘ㄹ’, ‘ㅁ’, ‘ㅂ’,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발음한다는 겹받침 발음에 대한 설명이다.

②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③ ‘ㄱ, ㄷ, ㅂ, ㅈ’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⑤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ㄷ,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02 ‘냇익히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따라 받침의 ‘ㄷ’이 ‘ㄷ’으로 바뀌어 [냇익히다]가 된다. 이때 ‘냇익히다’는 ‘냇+익히다’로 구성된 합성어인데,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익’이므로 ‘ㄴ’ 음을 첨가(첨가)하여 [냇닉히다]가 된다. 또 한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바뀌어 [냇닉히다]가 되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고,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축약)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냇닉히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이 적용되어 발음된 것이다.

03 ㉠은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유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교체에 해당한다. 즉, ‘ㄹ’과 ‘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인 ‘ㄹ’이 생기는 첨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ㄴ’이 ‘ㄹ’으로 교체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ㄹ’과 ‘ㅎ’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음운인 ‘ㅍ’으로 바뀐 거센소리되(축약)가 일어난다.

③ ㉢은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이 된소리인 ‘ㅍ’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교체)가 일어난다.

④ ㉣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 탈락(탈락)을 보여 준다.

⑤ ㉤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ㅡ’와 ‘ㄴ’이 만나 ‘ㄴ’이 탈락하여 발음되지 않는 모음 탈락(탈락)을 보여 준다.

04 [운], [운만], [운노리]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옷’, ‘옷만’, ‘옷놀이’로 적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중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내용과 원형을 밝혀 적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중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원형을 밝혀 적는 이유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나’는 ‘나-+ -아’가 결합하여 ‘ㄴ’가 탈락한 형태로 모음 탈락, 즉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음운의 교체 이루어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국물’은 [궁물]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비음화(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③ ‘난로’는 [날로]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유음화(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④ ‘같이’는 [가치]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구개음화(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⑤ ‘갈등(葛藤)’은 [갈똥]으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된소리되기(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06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은 크게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쌀눈’과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쫓는, 덧문,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쌀눈’은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쌀문]으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쫓는’이 [쫓는]이 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것이고, 다시 [쫓는]이 된 것은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③ ‘덧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고, 바뀐 ‘ㄷ’은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④ 표준 발음법 19항의 [불입]을 보면, 받침 ‘ㄱ, ㅂ’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는데, 그 [ㄴ] 때문에 ‘ㄱ, ㅂ’은 다시 [ㅇ, ㅁ]으로 역행 동화되어 발음된다고 하였다. ‘협력’을 보면 받침 ‘ㅂ’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는데, 그 [ㄴ] 때문에 ‘ㅂ’은 다시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차례의 비음화가 일어났고, 두 개의 음운이 바뀌어 소리 난다.

07 ‘섬뜩하다’는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섬뜨카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달하다’는 ‘ㄷ’이 ‘ㅎ’과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다티다]로 발음되고, 이것이 다시 ‘ㅌ’이 모음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다치다]로 발음된다.

② ‘셋노랄다’는 ‘셋노 → [센노] → [센노]’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고, ‘랄다[라타]’에서 ‘ㅎ’과 ‘ㄷ’이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센노라타]로 발음된다.

③ ‘섬섬하다’는 ‘ㅂ’ 받침 뒤에 ‘ㅅ’이 이어지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섬썩파다]로 발음된다.

⑤ ‘흐릿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ㅅ’이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ㅎ’과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흐리타다]로 발음된다.

08 음운의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으로, ‘거센소리되기’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끝으로’는 받침 ‘ㅌ’이 연음되어 [끄트로]로 발음되는데, 연음되는 것은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좋다’는 ‘ㅎ + ㄷ → ㅌ’의 결과로 [조타]로 발음된다.

② ‘축하’는 ‘ㄱ + ㅎ → ㅋ’의 결과로 [추카]로 발음된다.

③ ‘좁혀’는 ‘ㅂ + ㅎ → ㅍ’의 결과로 [조퍼]로 발음된다.

④ ‘입학식’은 ‘ㅂ + ㅎ → ㅍ’의 결과와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이팍씩]으로 발음된다.

09 ‘신녀성’은 ‘신(新) + 여성(女性)’으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신여성’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자어 가운데 ‘리(理)’나 ‘리(里)’와 같은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리’로 적어야 한다.

②, ③ 외래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라디오’, ‘뉴스’로 적어야 한다.

⑤ 고유어 중 몇몇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녀석’으로 적어야 한다.

10 ‘정확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정확-’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히죽이’는 부사 ‘히죽’에 ‘-이’가 붙은 부사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느긋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 ‘느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고, ‘슬며시’는 그 자체가 부사이다.

③ ‘버젓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 ‘버젓-’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고, ‘도저히’는 그 자체가 부사이다.

④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은 부사이고,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은 부사이다.

⑤ ‘반드시’는 그 자체가 부사이다. ‘오뎅이’는 부사 ‘오뎅’에 ‘-이’가 붙은 부사이기도 하며, ‘말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뎅오뎅 일어서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라는 뜻의 명사이기도 하다.

11 ‘이 + 뭉’, ‘뒤 + 일’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울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이 + 뭉 → 잇뭉[인뭉]’은 뒷말의 첫소리 ‘ㄷ’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단어이고, ‘뒤 + 일 → 뒤틀[된닐]’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단어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무 + 가지’, ‘바다 + 가’는 모두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울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나무까지] / [나무가지], [바다까] / [바달까]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② ‘비 + 물’, ‘아래 + 마을’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울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빈물], [아랜마을]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ㄷ’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③ ‘깨 + 잎’, ‘나무 + 잎’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울림

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꺄넌], [나문넌]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④ ‘제사(祭祀)+날’, ‘퇴(退)+마루’는 ‘한자어+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울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제산날], [툰마루]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12 ‘올 듯하다’는 ‘오다’라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 ‘듯하다’가 붙은 형태이므로 띄어 씀을 원칙(‘올 듯하다’)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올듯하다’)도 허용한다. 하지만 ‘올 듯도 하다’는 중간에 조사 ‘도’가 있으므로 ‘올듯도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을 반드시 띄어 써야만 한다.

오답 풀이 ① ‘읽어 가다’의 ‘가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② ‘자고 싶다’의 ‘싶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③ ‘해 주다’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⑤ ‘이겨 내다’의 ‘내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3 한글 맞춤법 제48항에서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충무공’은 하나의 호이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이라 띄어 쓰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뿐’을 앞말에 붙여 ‘너뿐이다’로 적는다.

②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 ‘대로’를 앞말에 띄어 ‘아는 대로’로 적는다.

③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인 ‘그루’를 앞말에 띄어 ‘두 그루’로 적는다.

④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 ‘등’을 앞말에 띄어 ‘연필 등’으로 적는다.

14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를 적용해 보면 ‘천(수사)▽리(의존 명사)▽길도(명사+조사)▽한(관형사)▽걸음부터(명사+조사)’로 띄어 써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적용한 띄어쓰기 규정을 2개 이상 서술하였다.	상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적용한 띄어쓰기 규정을 1개만 서술하였다.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썼으나, 적용한 띄어쓰기 규정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5 ‘만큼’은 〈보기〉에서 제시한 대로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의존 명사는 앞말에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의 ‘만큼’은 문장에서 체언 뒤에서 조사로 쓰인 것이므로 앞말에 붙여 ‘너만큼은’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문장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 ‘1’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③ 이 문장에서 ‘만큼’은 조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⑤ 이 문장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 ‘2’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16 ‘흠어져’는 용언의 어간 ‘흠-’에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흐터져’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어법에 맞도록 ‘흠어져’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웃을’은 명사 ‘웃’과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웃을’로 써야 한다.

② ‘얼음’은 ‘액체나 물기가 있는 물체가 찬 기운 때문에 고체 상태로 굳어 지다.’라는 뜻의 용언 어간 ‘얼-’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이라는 뜻의 명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얼음’이라고 써야 한다.

③ ‘열었을 때’에서 ‘열었을’은 동사이고 ‘때’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의미하는 명사로 각각 단어이다. 문장에서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므로 ‘열었을 때’라고 띄어 써야 한다.

⑤ ‘우리집’과 같은 한 단어는 없다. 대명사 ‘우리’와 명사 ‘집’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우리 집’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7 ‘율/률(率)’을 표기할 때 모음 다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이 옳므로 ‘지지율’이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띄우다’는 ‘뜨다’의 사동사로, 이 문장은 수정과 위에 잣을 뜨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띄워서’가 적절하다.

② ‘결단(決斷)’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의미하고 ‘결판’은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결단’이 적절하다.

③ ‘기어’를 발음할 때 ‘ㅣ’ 모음이 첨가되어 [기어(원칙) / 기어(허용)]와 같이 발음할 수 있지만, ‘ㅣ’ 모음 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기어’로 표기해야 한다.

④ ‘드러나다’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나다.’를 의미한다.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뜻인 ‘들다’와는 의미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드러나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보기〉의 학생은 독도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인터넷의 자료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짜깁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자기 것인 양 속이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흠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며, 표절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이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독도에 대한 자료들을 짜깁기하려는 것이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③ 독도에 대해 알리는 목적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여 짜깁기해서 올리려는 것이다.

④ 학생이 독도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⑤ 학생이 짜깁기하려는 내용이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내용 인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9 인터넷상에 올리는 글은 불특정한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글의 길이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절한 언어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⑤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비속어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차별적인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글을 읽는 사람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그 파급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저작권(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1 ㉠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의 예이며, ㉡은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의 예이다. ㉢은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거나 유음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비음화)의 예이다.

22 ‘술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는 다음, ‘ㄷ’이 ‘ㅎ’과 만나면서 새로운 한 개의 음운(‘ㅌ’)으로 바뀌며, 음운의 수가 줄어든다. 즉, 음운 교체(ㄱ) 및 음운 축약(ㄴ) 현상이 나타난다. ‘피었다’는 용언의 어간 ‘피-’에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서 반모음이 추가되고,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피엌따/피엌따]로 발음한다. 즉 음운 교체(ㄱ) 및 음운 첨가(ㄷ) 현상이 나타난다.

23 ‘닫히다’는 ‘ㄱ, ㄷ, ㅂ, ㅅ’과 ‘ㅎ’이 만나면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다티가]가 된 후,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히’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놓다’는 ‘놓’의 ‘ㅎ’ 받침과 ‘-다’의 첫소리 ‘ㄷ’이 만나 거센소리인 [ㄷ]으로 발음된다. 즉,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노타]로 발음된다.

② ‘활이다’는 ‘활’의 ‘ㅌ’ 받침이 연음되어 [할티다]가 되었다가 구개음화

현상에 의해 [할치다]로 발음된다.

③ ‘접히다’는 ‘접’의 ‘ㅂ’ 받침과 ‘-하-’의 첫소리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ㅈ]으로 발음된다. 즉,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저피다]로 발음된다.

⑤ ‘셋노랑다’는 ‘노랑’의 ‘ㅎ’ 받침과 ‘-다’의 첫소리 ‘ㄷ’이 만나 [ㄷ]으로 발음된다. 즉,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샌노라타]로 발음된다.

24 ㉠은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단어들로, 음운 교체 현상의 예에 해당한다. ㉡은 발음할 때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서 ‘ㅎ’이 탈락하는 단어들로, 음운 탈락 현상의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은 두음 법칙에 따라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단어들로 음운 교체 현상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의 ‘닫다’는 ‘ㄷ’과 ‘ㄷ’이 만나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으며, ‘발달’은 ‘ㄹ’과 ‘ㄷ’이 만나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다. ㉡의 ‘날아’와 ‘좋아서’의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 ‘ㅎ’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 ㉡은 모두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의 ‘닫다’와 ‘발달’은 표기상 음운의 개수와 발음상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지만, ㉢의 ‘날아’와 ‘좋아서’는 발음할 때 ‘ㅎ’이 탈락하면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은 음운 교체 현상이 일어난 단어들이다. ‘입고’는 ‘ㅂ’과 ‘ㄱ’이 만나 뒤 음절의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된다. 즉, 음운 교체 현상에 따라 [입꼬]로 발음되는 것이다. ㉤은 음운 탈락 현상이 일어난 단어들이다. ‘기빠서’는 어간 ‘기쁘-’와 어미 ‘-어서’가 만나면서 ‘-’가 탈락하게 된 것으로, 음운 탈락 현상이 일어난 단어에 해당한다.

㉥ ㉤과 ㉥은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은 두음 법칙에 따라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25 ‘백록담’은 표준 발음법 제19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백록담]으로, 제18항에 따라 [백록담]이 되었다가, 제23항에 따라 [백록담]으로 발음된다.

26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소리가 그대로 연음되어 ‘부엌에’는 [부어케]로 발음한다. 반면에 ‘부엌 안’과 같이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의 받침소리가 대표음으로 바뀌어 연음된다. 즉, ‘부엌’의 받침 ‘ㄱ’은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부어간]과 같이 발음한다.

27 받침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떡물[명물]’은 ‘ㄱ+ㄹ → ㅇ+ㄹ’으로 소리가 바뀌어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④ 받침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되고,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급류’는 [금류]로, ‘격리’는 [경리]로 발음해야 한다.

②, ③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종로’는 [종노]로, ‘담력’은 [담넉]으로 발음해야 한다.

28 ‘머물렀습니다’는 [머물렀습니다] → [머물렀습니다] → [머물렀습니다]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머물렀습니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의 ‘ㅌ’이 [ㄷ]으로 바뀐 것이고, [머물렀습니다]는 받침의 ‘ㄷ’과 뒤에 ‘ㅅ’이 만나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머물렀습니다]는 받침의 ‘ㅂ’이 ‘ㄴ’ 앞에서 비음 ‘ㄹ’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9 ‘답가’, ‘예뻐’, ‘슬퍼도’는 모두 모음 ‘ㅡ’가 탈락된 것이며, ‘흔치’는 ‘흔하-+지’에서 모음 ‘ㅏ’가 탈락하고 ‘ㅎ+ㅈ→ㅊ’으로 자음이 축약된 것이다. ‘써서’는 모두 모음 ‘ㅡ’가 탈락된 것이다.

30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안기다’는 어근 ‘안-’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기 때문에 된소리되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의지할 데’에서 ‘데’는 [떼]로 발음해야 한다.

③ 받침 ‘ㅂ(ㅂ, ㅃ, ㅄ, ㅅ)’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값지게’는 [갑찌게]로 발음해야 한다.

④ ‘ㄴ, ㄹ’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는 [신꼬]로 발음해야 한다.

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갈증’은 [갈쑹]으로 발음해야 한다.

31 한자어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어야 하며,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한다. 즉, ‘신여성’은 두음 법칙에 따라 ‘신여성’으로 표기해야 한다.

32 ‘산등성이’는 ‘산(山)’이라는 한자어와 ‘사람이나 동물의 등마루가 되는 부분.’이라는 뜻을 지닌 ‘등성이’라는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앞말인 ‘산’의 끝소리인 ‘ㄴ’이 올림소리이고 뒷말인 ‘등성이’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여서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였으며 [산등성이]로 발음된다. 따라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거리’는 [거리]로 발음한다. 즉,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② ‘좁히다’는 [조피다]로 발음한다. 즉,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로,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넘어’는 [너머]로 발음하는 단어로, 어간 ‘넘-’과 어미 ‘-어’가 결합한 말이다. 즉,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⑤ ‘읽다’는 활용할 때 ‘읽지’는 [익찌]로, ‘읽고’는 [일꼬]로, ‘읽는’은 [잉는]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읽-’은 발음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한 것이다.

33 ㉠의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며, ㉡은 ‘건다’의 어근 ‘건-’에 ‘-음’이 붙은 형태이다. 즉, ㉠, ㉡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반듯이’는 [반드시]로 발음되는, 표기와 소리가 다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③, ④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에서 파생된 말이지만, 본뜻과 무관하게 ‘틀림없이 꼭’을 뜻해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⑤ ㉢의 ‘거름’은 어간 ‘결-’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말이다. ‘결다’는 ‘흙이나 거름 따위가 기름지고 양분이 많다.’라는 뜻으로, ‘거름’은 ‘결다’의 본뜻에서 뜻이 멀어져 ‘거름’과 같이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의 ‘결음’은 ‘건다’의 어간 ‘건-’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어근의 본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4 ㉠에 쓰인 ‘대로’는 의존 명사 ‘대로’가 아니라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에서 ‘척’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과 ㉡을 바탕으로 의존 명사를 앞말에 붙여 써도 된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5 ‘씩씩’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지만,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씩씩’과 같이 된소리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36 한글 맞춤법 제19항은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에 대한 규정이다. 하지만 ‘젊은이’는 ‘젊다’의 어근 ‘젊-’과 관형사형 어미 ‘-은’, 사람을 이르는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게 된 말로, [일찌기]로 발음되지만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즉, 한글 맞춤법 제25항과 관련 있는 단어이다.

③ ‘급히’는 ‘급하다’의 어근 ‘급-’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단어로, [그피]로 발음되지만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즉, 한글 맞춤법 제25항과 관련 있는 단어이다.

④ ‘많이’는 ‘많다’의 어간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단어로, [마니]로 발음되지만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즉, 한글 맞춤법 제19항과 관련 있는 단어이다.

⑤ ‘깨끗이’는 ‘깨끗하다’의 어근 ‘깨끗-’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단어로, [깨끄시]로 발음되지만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즉, 한글 맞춤법 제25항과 관련 있는 단어이다.

37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하며, ‘박사’는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을 이르는 호칭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한글 맞춤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찾아 알맞게 고쳐 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한글 맞춤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찾아 고쳐 썼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한글 맞춤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만 찾았거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하

38 ‘인사+말’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며, 한자어와 고유어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지 않아, [인사말]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인사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39 ㉢의 ‘가요’는 어간 ‘가-’에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로(결합 과정에서 ‘-아’는 탈락함),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합한 표현이다.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72~175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① 09 ④ 10 ④ 11 ④ 12 ⑤ 13 ① 14 서준은
할머니가 사용한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자 제주도 방언을 미리 알아보고 익혀 할머니와의 대화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15 ③

01 ‘나’는 경수의 물음에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에둘러 말하면
경수가 자신의 뜻을 알아듣고 다른 옷을 고를 줄 알았다고 하였
다. 에둘러 말하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
러대는 말하기로, 간접적인 말하기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경수가 자신이 고른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본 것에
대해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에둘러 대답하였다.

② ‘나’는 솔직하게 말해 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탓하는 경수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③ ‘친구의 기분을 배려해서 말한 것도 모르고 경수가 내 탓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는 경수의 물음에 대해 경수의 기
분을 배려해서 대답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경수가 고른 옷의 디자인이나 색이 경수에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
하였다.

02 ‘나’는 경수가 입은 옷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기분을
배려하여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경
수는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옷을 샀다. 경수는 이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주지 그랬어. 나라면 사지 말라고 말했겠다.”
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사서 기분이 상했음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나’는 자신의 배려를 몰라준 경수
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을 빚는 이유는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경수가 ‘나’의 의견을 참고하여 옷을 산 행동을 통해 경수가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나’가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말한 것은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아 애매
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이다.

③ 경수가 선택한 옷이 경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경수의 공
통된 생각이므로 서로의 옷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각자의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를
보여 이것이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직접적인 갈등을 빚는 원인은 이러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03 ③에서는 우회적 말하기가 아닌 직설적 말하기가 쓰이고 있

070 정답과 해설

다. 또한 청유형 문장으로 요청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서 발화 형
식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고 있다.

04 가는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표준
어를 쓰고 있고, 나 는 집 안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대화를
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므로 지역 방언을 쓰고 있다.

05 가 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상황
이며, 나 는 집에서 가족과 지역 방언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다. 같
은 인물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비공식적이며 사
적인 자리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담
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
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준어는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② 지역 방언은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용하면 친근감이나 동
질감, 연대감 등을 형성할 수 있다.

③ 가 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그 지역 방언을 사
용하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
의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느
낄 수 있다.

④ 나 와 같이 가족이나 고향 친구들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방언 대신
표준어를 사용한다면 지역 방언을 사용할 때보다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멀
게 느낄 것이다.

06 지역 방언은 지역 고유의 향토적 정서를 나타내기에 적합하
다. 그러므로 지역 방언이 쓰인 소설을 표준어로 바꾸면 원래의 작
품에 담긴 고유의 향토적 정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와 같은 문학 작품의 성격은 공식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에 표준어를 쓴다 해도 공식성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③ 이 글을 표준어로 바꾸면 방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이나 향
토적 정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④ 이 글을 표준어로 바꾸면 이 글에 사용된 지역 방언의 사용자들이 느끼
는 친근감이 줄어들 것이다.

⑤ 이 글을 표준어로 바꾸면 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7 여자는 ‘야위다’의 경상도 방언인 ‘애비다’를 사용하여 “애비
가네예.”라고 말하였으나 남자는 경상도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여
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오랜만에 만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모의 변화나
근황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지 않는 화제를 꺼냈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여자는 남자가 야위어 보인다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가)네예’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 여자는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여자가 상대방이 남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그러’는 하계할 자리나 하오할 자리 또는 합쇼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쓰는 것으로 노년 세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
현이기는 하나,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
사이다. 따라서 ‘그러’가 노년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투리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② ‘가친(家親)’은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며, ‘춘부장(春府丈)’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이 노년 세대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③ ‘-ㄴ가’, ‘-게’ 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화자가 나이가 든 손아랫사람이나 같은 연배의 친숙한 사이에 쓰는 종결 어미로 노년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격식체 종결 어미이다.

④, ⑤ 청소년 세대는 ‘대박’과 같이 종결 어미 없이 끝나는 말이나, ‘더럽’이나, ‘고답이’처럼 은어나 줄임말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답이’는 ‘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는 것처럼 답답하게 구는 사람’을 줄인 형태로 줄임말이자 은어이고, ‘더럽’은 ‘더 러브(The love)’를 빠르게 발음한 형태로 은어에 해당한다.

09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 뒤에 짧게 덧붙이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는 의문문을 말한다. 이 대화에서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 사람은 여자로, ‘그럴 수 있죠.’라는 평서문 뒤에 붙어 남자에게 자신의 뜻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 그래요?’가 부가 의문문에 해당한다. 남자의 말에 나타나는 의문문 ‘시장하실 텐데 뭘 좀 드시겠습니까?’는 부가 의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드시겠습니까?’, ‘뵙겠습니다.’, ‘많았습니다.’ 등에서 ‘-니까’, ‘-니다’라는 격식체 종결 어미(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여자는 ‘안녕하세요.’, ‘해요.’, ‘고프네요.’, ‘할게요.’, ‘아뇨.’, ‘있죠.’, ‘안 그래요?’ 등에서 ‘-요’라는 비격식체 종결 어미(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남자는 주로 평서문을 사용하고, 여자는 ‘아, 네, 아뇨, 뭐’와 같은 감탄문이나 감탄사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③ 남자는 주로 완성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여자는 ‘아뇨, 뭐…….’에서 문장을 완성하지 않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남자는 ‘급한 일 아니면 끊어.’라고 하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명령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10 혜준의 말에 앞서 연우가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언어생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성별이 달라서 남녀의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②, ③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남자와 여자는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반영되면서 사용하는 언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알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해야 한다.

11 전문 용어는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문 용어는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어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 용어를 무조건 일반 어휘로 바꾸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전문 용어는 해당 집단 밖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 대화할 때는 전문 용어를 일상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② 전문 용어를 해당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용하면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동질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③, ⑤ 해당 분야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그 분야에서 쓰는 개념이나 대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2 (나)의 전공의는 환자 보호자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해당 집단 구성원들과 대화할 때처럼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전문 용어를 ‘부중’이라고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전공의는 환자 보호자가 자신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③ 전공의는 의사라는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환자 보호자는 상대방이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어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13 서준은 할머니가 사용한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는 서준이 사용한 청소년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와 서준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와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4 이 글에서 할머니는 ‘무신저 험시니?’, ‘이거 무신거고?’, ‘맛 좋다이.’와 같이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서준은 할머니의 질문에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께 제주도 말을 배워 할머니와의 대화에 사용함으로써 친근감을 높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었다.

15 개인적 성향이나 지역, 세대 등과 같은 집단의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람마다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과의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화제를 선택하여 대화한다 해도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②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④ 대화 참여자들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면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대화 상황과 상대를 고려하여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지역, 성별, 직업 등에 따른 언어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세대의 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 01 ③ 02 시청자는 날씨 예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비공식적인 느낌을 받거나 이질감,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1 가에서 사용된 언어는 표준어이다. 대화할 때 연대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지역 방언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상황으로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해당한다.

② 나 는 고향이 같은 가족, 친구와 대화하는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이다.

④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곳 사람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고, 각 지역의 향토적 특성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방언은 친근하고 향토적인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⑤ 말하기 상황과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02 가 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날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 에 사용된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면 비공식적인 느낌을 주고, 해당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03 나 에서 노인들은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하계할 자리에 쓰는 ‘자네’, 하계할 자리나 하오할 자리 또는 하십시오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듣는 이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보조사 ‘그러’를 활용한 ‘건강하시네그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 에서 여자는 ‘아위다’라는 말의 경상도 방언인 ‘애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자는 이 말의 의미를 ‘아버지’의 낮춤말로 오해하고 있다.

② 가 에서 남자는 여자가 사용하는 경상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 때문이다.

③ 나 에서 학생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춘부장, 가친’과 같은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④ 나 에서 노인들이 사용하는 ‘-나, -게’ 등은 격식체 중 ‘하계체’의 표현에 해당한다.

04 가 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자는 여자가 사용하는 경상도 방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지역 사람과 대화할 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 의 여자는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 의 말하기 상황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

② 여자는 남자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남자가 놀란 것은 여자의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으로 여자의 말이 부담이 가는 말이어서라고 보기 어렵다.

⑤ 남자가 여자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여자가 사용한 지역 방언 때문이며, 여자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은 아니다.

05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작하실 텐데 뭘 좀 드시겠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여자와 대화할 때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친구와 대화를 할 때에는 “어, 웬일이냐?”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냐’를 사용하여 아주 낮춤 표현인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가. 여자는 ‘요걸로’에서 알 수 있듯이 ‘로’를 첨가하고, ‘조금’을 ‘쪼끔’과 같이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고 있다.

다. 여자는 “안 그래요?”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06 <보기>의 ‘이런 언어’는 전문어를 말한다. ‘통증’은 ‘아픈 증세’를 의미하는 명사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전문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만니톨’은 뇌 부종의 치료에 이용되는 약제로 전문어에 해당한다.

③ ‘에이에이피’는 진통제의 종류로 전문어에 해당한다.

④ ‘엔시드’는 진통제의 종류로 전문어에 해당한다.

⑤ ‘멘탈 스투퍼’는 강한 자극에 반응하는 흥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전문어에 해당한다.

07 <보기>는 [A]에 사용된 전문어를 이해하기 쉬운 일상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대화의 상대가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의사라는 직업과 관련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모두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고루 사용하고 있으며 성별을 고려하여 어휘를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A]에서 사용된 전문어를 <보기>에서 일상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을 뿐, 세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A]와 <보기> 모두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 01 ⑤ 02 ② 03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09 ②
10 ⑤ 11 실현, 차분 12 ② 13 ② 14 ③ 15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 ⑤
17 ① 18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19 ⑤

01 대화할 때는 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며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른 대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원리이다.

④ 대화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면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적절한 말하기라 할 수 없다.

02 “편안히 지내셨어요?”는 문병하는 상황에서 아픈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인사말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좀 어떠십니까?”, “속히 나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속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는 몸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문병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말이다.

03 대화할 때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04 ‘안녕(安寧)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병을 간 상황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몸이 아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므로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인사말이 아니다.

05 가의 남학생이 말한 “달아.”의 형식은 명령문에 해당하고, 기능 역시 명령에 해당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와 나 남학생 모두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말하기 목적이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② 나에서 남학생은 부탁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가에 비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⑤ 나 남학생이 말한 “달아 줄래?”는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에 해당한다.

06 가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령하듯이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여학생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여학생은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 남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나 남학생은 상대방에게 명령형의 어조가 아니라 의문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요청의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나 남학생이 한 말은 공손성이 강한 발화이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먼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미안하지만 좀 줄 달아 줄래?”라고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08 부탁하는 말을 할 때나 건의하는 말을 할 때는 부탁이나 건의를 받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09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며 되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나.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각인되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마. 건의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으며 대신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돌려 말하면 건의를 받는 상대방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다의 여학생과 라의 남학생은 모두 도서관이 별관에 있어 불편하다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라의 남학생이 문제 상황을 단순히 밝히고 있는 데 반해 다의 여학생은 문제 상황을 말한 뒤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라에 비해 현재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높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라 모두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내놓는 건의하는 말하기에 해당한다.

② 다의 여학생은 도서관이 별관이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본관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며 도서관을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없애자는 제안도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이에 비해 라의 남학생은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의 여학생은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반면 라의 남학생은 먼저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라에 비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라의 남학생은 “먼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라의 남학생은 먼저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방법은 건의하는 상황에서 건의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바람직한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12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반어적 표현이다.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직설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마의 남학생이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어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③, ④, ⑤ 마의 남학생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 성의 없이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해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와, 재미있겠다.”라고 하며 공감을 먼저 표시한 후,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고 거절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말에 가는 건 어때?”라고 제안을 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거절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는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이다.

13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하여 부탁이나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의를 갖추어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직설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
③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를 한 것은 맞지만, 거절하는 입장이므로 무언가를 얻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④ 마의 남학생은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⑤ 마의 남학생이 감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14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많은 제안과 부탁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안과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므로, 거절하는 말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을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절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고 완곡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15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할 때 거절의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대답이 성의 없게 느껴질 수 있으며, 부탁이나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6 사의 남학생은 약속에 늦어 사과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더 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의 남학생은 사과하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듯이 말하고 있으므로 정중하고 공손한 말하기와는 거리가 멀다.
② 사의 남학생은 “늦어서 미안.”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사의 남학생은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④ 사의 남학생은 사과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 어렵다.

17 아의 남학생이 “정말 미안해. 길이 막히는 바람에 늦었네.”라고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④ 자신이 늦은 이유를 밝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이지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강조하거나 늦게 온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③ 아의 남학생의 말은 공손한 발화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아의 남학생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84~185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⑤
08 언어 예절 09 ③ 10 ③

01 엄마의 말을 끊으며 서준이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라는 말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린 것으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킨 표현이다.

03 ㉠에서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엄마가 서준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엄마가 서준에게 부탁하는 내용, 즉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다녀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②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③ 자신이 부탁하고자 하는 바를 “안 될까?”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04 ㉡은 직설적인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말하고 있지 않다.
②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명령하는 말이므로 동의하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명령문을 사용하여 명령의 내용을 전하고 있으므로 발화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05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 청자의 나이,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과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에서는 “수고하세요.”라는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을 뿐 부적절한 존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는 청자인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생일 축하해요.”는 “생신 축하드려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수명과 관련된 표현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수고’는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씀.’의 뜻이다. ‘수고하세요.’라고 하면 ‘남아서 더 고생을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므로 어른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녕히 계세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②와 ④의 화자 모두 청자와의 관계, 청자의 나이,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6 가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과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이때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는 것은 사과를 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07 나 의 상황은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내놓는 상황이므로 건의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건의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할 때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말을 하였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을 하였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09 나 의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때에는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하는데, ‘봉사 활동 약속’이 더 중요함을 내세워 말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때 거절의 이유는 ‘봉사 활동 약속’이 할아버지의 제안보다 우선 것임을 제시해야 하며,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같이 부탁하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처지를 먼저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④ 나 와 같이 거절하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에 먼저 공감함을 표현한 후 자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⑤ 가와 나 모두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10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어 효과적이기는 하나, 모든 상황에서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부탁하는 상황이나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건의하는 상황이나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86~191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남학생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여학생의 입장을 배려하여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다. **06** 건의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③ **13** ② **14** ② **15** ③ **16**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 줄래?”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17** ④ **18** ③ **19** ㉠는 사과를 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여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말하고 있다. **20** ③ **21** ② **22** ③ **23** ⑤

01 이 글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그림 자료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 방법을 대조하여 보여 주고 있지만, 바람직한 말하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여 상황에 따른 말하기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먼저 부탁과 건의의 개념을 밝힌 뒤 그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⑤ 부탁과 건의를 하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말하기 방법을 그렇지 않은 말하기 방법을 사용한 사례와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대화의 기본 원리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최대한 간략한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가)에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대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말하기로 볼 수 없으므로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3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문명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04 (나)는 부탁하는 말하기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왜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말하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 ㉡ 여러 가지 부탁을 한꺼번에 나열하거나 명령형 문장으로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05 나 에서 여학생은 문을 닫아 달라는 남학생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 남학생은 부탁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런 부탁을 하는 미안함을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였기 때문에 여학생이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이다.

06 <보기>는 학급 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 대출 기간을 정하자고 건의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이다.

07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건의하는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방법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먼저 인사말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건의하는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이다.

② ㉡는 문제 상황, 즉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으므로 건의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④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⑤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처럼 제시한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까지 언급하면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08 나⁴의 남학생은 먼저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자기 처지를 설명한 뒤 “문 좀 닫아 줄래?”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있다. 반면 가²의 남학생은 “문 좀 닫아.”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부탁하는 상황의 말하기이다.

②, ③ ㉢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은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미안하지만 ~ (해) 줄래?”라며 양해를 구하고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상대방에게 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은 “문 좀 닫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은 “문 좀 닫아 줄래?”라고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

09 사과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로,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야 한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도록 말을 해야 하지 상대방의 기분이 풀리도록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도록 말해야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 줄 수 있다.

③ 사과하는 상황에서 사과를 받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화자의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10 대화 내용 자체가 타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언어 예절에 어긋날 수 있다.

11 바⁴의 남학생은 거절의 의사를 발표 준비를 다 못했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아²의 남학생은 사과의 말을 우회적으로 전하지 않고 “정말 미안해.”라고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바와 아의 남학생이 한 말은 공손한 말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며, 언어 예절에 어긋나지 않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맞게 말한 것으로 이러한 말하기 태도는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2 마⁴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를 성의 없이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쉽다.

오답 풀이 ① 마의 남학생은 이유 없이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② 마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맞는 대답을 하고 있다.

④ 마의 남학생은 “시간 없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⑤ 제안을 할 때에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데, 거절할 때 어떤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진다. 가령,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거절 의사를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면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를 성의 없이 말하면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보기>에서 손주는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이번 주말에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가기로 했다고 하며 거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완곡하면서도 예절을 갖추어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③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우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공감의 표현을 하고 있다.

④ 이번 주말에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거절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대신 이번 방학 때 함께 가시는 것은 어떠세요?”라고 하며 자신의 거절로 인해 기분이 상할 수 있는 할아버지를 배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4 (가)는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 (나)는 거절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보여 준다. (가)에서는 나⁴의 남학생이 바람직한 말하기를 보여 주며, (나)에서는 바⁴의 남학생이 바람직한 말하기를 보여 준다. (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 후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마⁴의 남학생에게 필요한 태도이지만, (가)의 상황에서는 공감을 표시할 요소가 없으므로 가²의 남학생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나⁴의 남학생은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고 있다. 바⁴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③ 나⁴의 남학생은 “미안하지만 ~ (해) 줄래?”, 바⁴의 남학생은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고 말하며 완곡하면서도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⑤ 나⁴의 남학생은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자기 처지를 설명하며 문을 닫아 달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바⁴의 남학생도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며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5 가²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부탁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라고 하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설적인 명령조로 말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남학생과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남학생과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남학생의 말에는 상대방과의 일치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제시된 대화의 엄마와 서준은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서준이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엄마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한 것은 아니다.

⑤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응?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 줄래?”라고 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가의 남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16 (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부탁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 줄래?”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보기>와 같이 건의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각인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건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②, ③, ⑤ 건의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건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효과나 장점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며 자신의 말하기에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18 가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함으로써 부탁이나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각 여학생은 “이따 영화 보러 갈래?”, “이따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라고 의문문을 사용하여 남학생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② 가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④ 나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대해 “와, 재미있겠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⑤ 나에서 남학생은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주말에 가는 건 어때?”라고 말하며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19 ㉠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더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을 하고 있다. 반면 ㉢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도록 말하고 있다. 이처럼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20 (가)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곧 대화의 기본 원리라 하였다. 이러한 대화의 원리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가 있는데, ㄱ은 순서 교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 ㄴ은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ㄴ.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ㄷ. 직설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21 ‘수고하다’는 ‘남아서 더 고생을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뒷사람에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뒷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정중하게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냈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언어 예절에 맞는 말하기이다.

③ 상대방에게 늦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므로 언어 예절에 맞는 말하기이다.

④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므로 언어 예절에 맞는 말하기이다.

⑤ 공손한 태도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부탁을 하고 있으므로 언어 예절에 맞는 말하기이다.

22 ㉢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거절의 이유를 정중한 태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해야 한다. ㉠과 같은 태도는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 동생을 치과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서준이가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엄마는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⑤ 엄마는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려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손성의 원리에 맞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23 ㉠에서 서준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순서 교대의 원리에 위배되는 말하기이다.

오답 풀이 ① 서준은 엄마와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② ㉢에서 서준은 바로 전 엄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서준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④ 서준이 타당한 근거를 들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93~196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학급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06 ③ 07 ⑤ 08 ② 09 ② 10 ⑤ 11 ① 12 ① 13 (1)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2) 불벌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 ① 15 ① 16 불리어지는데요 → 불리는데요 17 ② 18 ③ 19 ④

01 가와 다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청자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버지께서'의 '께서'와 '읽으신다'의 '-(으)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니다'라는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③ 특수 어휘 '뵤다'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⑤ 가는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주체 높임 표현이고, 다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인 상대 높임 표현이며, 다는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객체 높임 표현이다.

02 '잡수시다'는 먹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말이다.

②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말이다.

③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말이다.

⑤ 객체인 '분'을 높이는 말이다.

03 '김 과장, 이리 와서 앉아요.'는 해요체 종결 어미가 쓰인 발화이다. 하오체가 쓰였다면 '김 과장, 이리 와서 앉으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앉으십시오'는 '앉으-+-사-+-ㅂ시오'의 형태로, '-ㅂ시오'는 합쇼(하십시오체)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③ '앉게'는 '앉-+-게'의 형태로, 종결 어미 '-게'는 하계할 자리에 쓰여 손아래나 허물없는 사이에 무엇을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④ '앉아라'는 '앉-+-아라'의 형태로, '-아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⑤ '앉아'는 '앉-+-아'의 형태로, '-아'는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04 간접 높임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인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 각 등을 통해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③ '엄마, 불만 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에서 '불만'은 주어인 '엄마'와 관련된 대 상으로, 이를 높여 '있으시면'이라 한 것은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 인 것으로 적절한 높임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이 아닌 옷의 사이즈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높임 표 현이 아니다.

② 사람이 아닌 사물인 음료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높임 표현이 아 니다.

④ '말씀'은 '사장님'과 관련된 것이지만, '계시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 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를 의미하는 '있다'의 높임

말이기 때문에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주어를 간접 높이는 경우에는 '있으시다'라고 해야 한다.

⑤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학원에 빨리 가야 하는 주체인 유 민이를 높여 '가시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높임 표현이 아니다.

05 가와 같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여 말하고, 나와 같이 학급 회의라는 공 식적인 상황에서는 친구 사이여도 공식적인 말하기를 해야 하므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것이다.

06 ㄷ은 청자인 '엄마'를 '-어요'라는 해요체를 통해 높이고 있으 므로 상대 높임법이 쓰인 것이며, 자기를 부른 주체인 '엄마'를 '-시-'라는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 도 사용되었다. ㄹ은 '할아버지'라는 행위를 받는 대상을 '께'와 '드 리다'라는 높임말을 통해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이 쓰인 것 이며, 청자인 '정희'를 '-라'라는 해라체를 통해 낮추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법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ㄷ과 ㄹ 모두 상대 높임법이 쓰 인 것은 맞지만 객체 높임법은 ㄹ에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ㄱ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께서'라는 조사와 '편찮으시 다'라는 높임말을 통해 직접 높이고 있다. ㄴ은 주체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눈'을 '밝으시다'라고 높여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모두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④ ㄷ은 청자인 '엄마'를 '-어요'라는 해요체를 통해 높이고 있다.

⑤ ㄹ에서 '정희'는 할아버지께 떡을 갖다 드리는 행위의 주체이고, '할아버 지'는 정희가 떡을 갖다 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부사어에 해당하므로 문장의 객체로서 높임을 받고 있다.

07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닌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전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은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이고 이러한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을 시간 표현이라고 한다. 제시된 문장에 는 '어제, 지금'과 같은 부사어와 '-았-', '-는'과 같은 어미가 시간을 나타내 는 언어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②, ③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고, '-겠-'은 미래 시제 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이들은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이다.

④ '어제, 지금, 내일'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08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사건시)이 말하는 시점(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은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 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놓이는 것은 미래 시제이다. ㉠의 '괴로웠다'는 '괴롭-+-어+하-+-였-+-다'로 분석되 는데, '-였-'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과제 시제이다. ㉡의 '걸어가야 겠다'는 '걸-+-어+가-+-야+하-+-겠-+-다'로 분석되 는데, '-겠-'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미래 시제이다. ㉢의 '스치운 다(스친다)'는 '스치-+-ㄴ-+-다'로 분석되는데, '-ㄴ-'을 사용 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시제이다. ㉠은 과거 시제에 해당하므로 사 건시가 발화시에 앞선 것이고, ㉡은 미래 시제에 해당하므로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며, ㉢은 현재 시제에 해당하므로 사건시 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09 ‘간밤의 비로 지금도 강물이 많이 불었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강물이 많이 불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었다’의 ‘-었-’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이 문장들에 쓰인 ‘-았-/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과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문장은 농사를 앞으로 잘 짓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지었다’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이므로 ㉢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10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한 것이다.

②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③ 혼자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을 묻는 것이다.

④ 자신이 말해도 되느냐고 상대의 의중을 완곡하게 묻는 것이다.

11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 ‘발생하여’는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주차되어’는 ‘-되다’라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③ ‘잡히지’는 ‘-히-’라는 피동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④ ‘그을렸습니다’는 ‘-리-’라는 피동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⑤ ‘추정되고’는 ‘-되다’라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12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기자가 개인적·주관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 즉 방송 보도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② 능동 표현을 쓸 경우의 효과에 해당된다.

③, ④, ⑤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의 효과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13 (1) ‘불길에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는 피동 표현인 ‘잡히지(잡-+히-+지)’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가 된다.

(2) ‘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는 피동 표현 ‘추정되고(추정+되-+고)’가 사용되었다.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가 된다.

14 ‘뒹다’는 피동형으로 만들 때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므로 ‘뒹혔다’가 아니라 ‘뒹였다’라고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잡다’의 피동사는 피동 접사 ‘-히-’가 결합된 ‘잡히다’이다.

③ ‘물다’의 피동사는 피동 접사 ‘-리-’가 결합된 ‘물리다’이다.

④ ‘사육하다’의 피동형은 ‘사육’에 ‘-되다’가 결합된 ‘사육되다’이다.

⑤ ‘밝히다’의 피동형은 ‘밝히-’에 ‘-어지다’가 결합된 ‘밝혀지다’이다.

15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담화 상황에 따라 피동 표현이 필

요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한다고 하였다.

16 ‘불리어지는데요’에는 ‘-리-’라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데,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덧붙이고 있으므로 ‘불리는데요’로 고쳐야 한다. 이와 같은 피동 표현으로는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나 ‘-아지다/-어지다’, ‘-게 되다’ 등이 있으며, 일부 체언 뒤에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도 있다.

17 ㉠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 ‘-되다’와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 표현이고, ㉡와 ㉢은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은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 ㉡, ㉢을 묶은 ②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⑥ ‘열어’는 능동 표현이다.

⑦ ‘보인다’는 ‘보다’에 피동 접사 ‘-이-’가 붙은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게 쓰였다.

18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큰따옴표는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뀌며 종결 어미도 문장의 종류에 따라 바뀐다. 그리고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도 바뀐다. ③ ‘그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라는’은 ‘는’이 되고 인용절의 종결 어미가 바뀌어 ‘그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인용절 ‘내가 먼저 연락할게.’는 평서문으로 종결 어미 ‘-게’를 ‘-다’로, 인칭 대명사 ‘내’를 ‘자기’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② 인용절 ‘같이 공부할래?’는 청유의 의미이므로 종결 어미 ‘-래’를 ‘-자’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④ 인용절 ‘거기 앉으세요.’는 명령의 의미이므로 종결 어미 ‘-요’를 ‘-라’로, 지시 대명사 ‘거기’를 ‘여기’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⑤ 인용절 ‘저도 청소를 해야 하나까?’는 의문의 의미이므로 종결 어미 ‘-까’를 ‘-냐’로, 인칭 대명사 ‘내’를 ‘자기’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19 ㉠과 ㉢을 비교해 보면, ‘너’라는 대명사가 ‘나’로, ‘예뻐’라는 문장 종결 어미 결합형이 ‘예쁘다(고)’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97~198쪽

01 ④ **02** ③ **03** ④ **04** ‘선생님이’, ‘오시례’가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조사와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잘못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너’를 높여 표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서(오라고 하세요.)’로 고쳐야 한다. **05** ① **06** ③ **07** ④ **08** ‘모여진’과 ‘쓰여질’이 잘못된 피동 표현이다. 이 둘은 ‘모이다’,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인 ‘모이다’, ‘쓰이다’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또 겹쳐 이중 피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 ‘모인’, ‘쓰임’으로 고쳐야 한다. **09** ⑤ **10** ③

01 다에서는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라는 높임의 의미를 지닌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는 조사 '께서'와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나에서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⑤ 다에서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한 어휘 '보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02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를 높임의 정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하십시오체 → 하오체 → 하계체 → 해라체'이다. ㉠는 '하계체', ㉡는 '해라체', ㉢는 '하십시오체', ㉣는 '하오체'이다.

03 ㉠에서는 '께서'라는 조사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귀'의 상태를 어미 '-(으)시-'가 붙은 '밝으시다'로 서술하여 주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에서는 '께서'라는 조사,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인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다.

㉢ 주체를 높이는 어미 '-사-'를 사용하여 사물인 '구두'를 높인 잘못된 주체 높임 표현이므로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04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조사 '께서'를 사용해야 하며,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서술어 '하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오다'라는 행위의 주체인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05 '나는 시인이 되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 선어말 어미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된 예이다.

③, ④ 선어말 어미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된 예이다.

⑤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된 예이다.

06 ㉠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의 '지금', ㉣의 '아까', ㉡의 '내일'은 시제를 표현하는 시간 부사어이다.

②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지금', 현재 시제를 뜻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다.

④ ㉢의 '읽는'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의 '먹은'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사용되었다.

⑤ ㉣의 '맛있었어.'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의 '내리겠습니다.'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다.

07 ㉣는 온 마을이 홍수에 의해 쓸림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피동문이다. '휩쓸렸다'는 '휩쓸다'라는 동사의 어간 '휩쓸-'에 피동 접

미사 '-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주어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을 표현한 능동문이다.

②, ③, ⑤ 주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함을 표현한 사동문이다.

08 '모이다', '쓰이다'는 '모오다', '쓰다'에 각각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피동사를 써도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동사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또 겹쳐 이중 피동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09 ㉠에서 '잡히지'는 기본형인 '잡다'의 어간에 피동 접사 '-히-'를 붙여 만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가 된다. 따라서 피동문의 '모기에게'는 능동문의 주어가 된다.

② ㉢에서 '물렸다'는 기본형인 '물다'의 어간에 피동 접사 '-리-'를 붙여 만든 것이다.

③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소방관이)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한다.'가 된다. 따라서 피동문의 주어 '불길이'가 능동문의 목적어가 됨을 알 수 있다.

④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 그 주체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0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뀐다. 또한 의문문은 종결 어미가 '-냐'로 바뀌며, 인칭 대명사 '저'가 '자기'로 바뀐다.

오답 풀이 ① 인칭 대명사 '저'를 '자기'로 바꾸어야 한다.

② 인칭 대명사 '저'를 '자기'로 바꾸어야 하며,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④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⑤ 종결 어미를 '-냐'로 바꾸어야 하며,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대단원 평가

본문 199~205쪽

01 ① **02**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03** ① **04** ② **05** ② **06** ③ **07** 사람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8** ⑤ **09** ⑤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다. 부사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15** ⑤ **16** ⑤ **17** ② **18** ④ **19** ② **20** ④ **21** ④ **22** ⑤ **23** ① **24** ① **25** ② **26** 직접 인용 표현에 쓰인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뀌고, 직접 인용 표현의 종결 어미 '-ㄴ게'가 '-ㄴ다'로 바뀐다. 또한 직접 인용 표현에 쓰인 인칭 대명사 '나'가 '자기'로 바뀐다. **27** ① **28** ⑤

01 (가)의 왼쪽 그림은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상황, 즉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가족과 대화를 하는 상황, 즉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황이 공식적이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황이 비공식적이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③ (나)는 소설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그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나고 토속적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 친근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④ (다)에서 남자는 여자가 사용하는 지역 방언의 의미를 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가)~(다)를 통해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지역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2 공식적인 상황이나 다른 지역 사람과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친척들이나 고향 친구와 대화할 때,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연극, 문학 작품의 대사를 처리할 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상황이나 상대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관계를 서로 보충해 주는 관계 등으로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3 〈보기 1〉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고, 〈보기 2〉는 이를 강원도 방언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원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기 2〉는 강원도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보다 잘 느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두 작품 모두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변용하여 다시 제시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을 취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시를 바꾸어 써서 새롭게 얻은 효과로 볼 수 없다.

③ 〈보기 1〉에서는 ‘-오리다.’를, 〈보기 2〉에서는 ‘-기래요.’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얻은 효과로 볼 수 없다.

④ 두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두 작품 모두 시작 대상에 대한 견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김소월, 「진달래꽃」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감상: 이 시는 이별의 정한을 토속적 시어와 민요적 가락을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전통적인 여인을 화자로 내세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와 관련된 정서를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임을 떠나보내지만 임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헌신적인 사랑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된 화자의 분신이다.

04 〈보기〉는 사회 방언에 대한 설명이다. ‘정구지’는 ‘부추’의 방언(경상, 전북, 충청)이고, ‘무싱거깡’은 ‘무엇입니까?’를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따라서 ②에는 〈보기〉의 방언이 사용되지 않았고, 지역 방언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에이에이피’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직업과 관련된 사회 방언이다.

③, ④ ‘춘부장, 가진’과 같은 말은 노년 세대가, ‘대박, 더럽, 고답이’와 같은 말은 청소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⑤ ‘누님’, ‘시집’, ‘장가’와 같은 말로 보아, [A]는 남자가 한 말이고, [B]는 여자가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조금씩 다른데 이 또한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05 노년 세대에서는 격식체를 주로 사용하고, 한자어와 에스런 표현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 세대가 꼭 지역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②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발표나 강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같은 지역 사람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④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을 해당 직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⑤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은 성(性)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언어생활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06 ‘나’가 경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에 대해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예들려 표현한 것을 경수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07 (가)는 신조어가 생겨나 세대 간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대화 참여자들이 각각 제주도 방언과 청소년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나)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태도를 모두 서술하였다.	상
(가)와 (나)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만을 서술하였다.	중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녀야 하는 태도만을 서술하였다.	하

08 거절하는 말을 할 때에는 바의 남학생과 같이 상대방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행동이 우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바의 남학생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거절 의사만을 밝히는 것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②, ③, ④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상황이므로 거절 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따라서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면서도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09 바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한 후,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⑤는 ‘오랜만에 음악

회라니 참 즐겁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고, ‘하지만 내일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말은 어떨까?’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공감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④ 새로운 대안 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10 ‘내 실수로 물을 엔질렀네. 미안해.’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있으나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약속도 나타나지 않는다.

11 부모상을 당한 회사 동료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고 상주를 위문하는 문상(問喪) 상황에 맞는 인사말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웃어른에게 ‘절 받으세요.’라는 명령형의 인사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른의 생신이므로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말해야 한다.

④ 문병이라는 상황에 적합한 인사말이 아니다.

⑤ 어른에게는 애를 쓰다는 의미의 ‘수고하세요.’ 대신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에서는 자기의 처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고 있고, ㉡에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다시 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과 ㉣은 모두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를 지킨 것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어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지 않고 있다.

㉡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령하듯이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13 ‘드리럼’은 객체를 높이는 ‘드리다’와 ‘상대방(청자)’을 낮추는 해라체의 ‘-럼’이 결합된 말로, 청자를 높이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께’는 부사어에 해당하며 ‘할머니’가 곧 객체이다.

② 어머니가 승찬에게 하는 말이다.

③ ‘가져다’는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도 아니고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인 말도 아니다.

⑤ ‘께’와 ‘드리다’를 활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4 주어진 문장에서는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로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고, ‘묻다’ 대신 특수 어휘인 ‘여쭙다’를 사용하고 있다.

15 ㉡의 문장은 문장의 객체인 ‘교장 선생님’을 조사 ‘께’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인 객체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교장 선

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가신다고’, ‘나가셨어요’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시-’는 생략된 주어진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다.

③ ‘편찮다’와 주체 높임 표현을 만드는 선어말 어미 ‘-으시-’가 함께 쓰여 생략된 주어진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④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신가’에서 ‘나이’의 높임말인 ‘연세’와 선어말 어미 ‘-시-’는 생략된 주어진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다.

16 ㉡은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사물인 ‘상품’을 높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그 크기의 상품은 다 떨어지셨네요.’를 ‘그 크기의 상품은 다 떨어졌네요.’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세요’는 문장의 주체이자 청자인 ‘손님’을 높임 표현이다. 그러나 간접 높임 표현이므로 ‘발’에 ‘께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② 비격식체 중 ‘해요체’는 청자를 두루 높이는 표현이다. 생략된 주어는 손님 자신이며, 높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문장의 주어 ‘신발’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대화하는 상대방인 ‘종업원’에게도 높임의 표현인 ‘요’를 사용해야 한다.

17 ‘주무시다’는 ‘주무다’라는 말에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각각 주어의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에 ‘-시-’를 붙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을 사용한 말이다.

④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다.

18 병은 갑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격식체 중 두루높임 표현인 ‘해요체’에 해당한다. 한편 갑은 정에게 “그간 안녕하십니까, 사모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격식체 중 아주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이 정에게 한 말이 상대를 더 높인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병은 갑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은 갑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 표현은 모두 비격식체 중 ‘해요체’에 해당한다.

② 을은 갑에게 “어서 오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계체’에 해당한다. 을은 정에게 “당신도 인사 나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오체’에 해당한다.

③ 갑은 을에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갑은 병에게 “정훈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격식체 중 ‘해체’에 해당한다.

⑤ 을은 갑에게 “어서 오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격식체 중 ‘하계체’에 해당한다. 또한 을은 병에게 “인사드려.”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격식체 중 ‘해체’에 해당한다. ‘하계체’와 ‘해체’ 모두 상대방을 낮추는 표현이다. 한편 을은 정에게 “당신도 인사 나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격식체 중 ‘하오체’에 해당한다. ‘하오체’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다.

19 ㉡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와 조사를 잘못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아닌 ‘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사물인 ‘구두’를 잘못 높인 말임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③ ‘-되다’와 ‘-어지다’를 함께 사용하여 이중 피동이 된 경우이다. 자기 생각, 판단 등을 말할 때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 ‘-되다’를 붙

여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나 '생각합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믿겨지지'는 '믿-'이라는 어근에 피동 접사 '-가-'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겹친 이중 피동이므로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데려다'를 높임의 특수 어휘인 '모셔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0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거나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마친'은 동사의 어간 '마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사의 어간 '읽-'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동사의 어간 '먹-'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형용사의 어간 '뜨겁-'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⑤ 형용사의 어간 '빠르-'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1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의 '지금', '읽는(-는)', ㉡의 '현재', '한다(-ㄴ)'로 볼 때 ㉠과 ㉡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 ㉢의 '떠날(-ㄹ)', '곧', '따라갈게(-ㄹ게)', ㉣의 '내일', '내리겠습니다(-겠-)'로 볼 때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 ㉥ ㉦의 '어제', '뒤었다(-았-)', ㉦의 '아까', '먹은(-은)', '맛있었어(-었-)'로 볼 때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22 ㉡에서 '-었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② ㉢에서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③ ㉣에서 '-았-'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④ ㉤에서 '-다-'는 과거의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 말하는 장면으로 옮겨 와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3 <보기>는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사건은 이미 나에게 잊힌 일이다.'라는 문장에서 피동 표현은 '잊힌'이며 이는 어근 '잊-'에 피동 접사 '-히-'를 붙인 것이므로 <보기>에서 지적한 피동 표현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불리운다'는 잘못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불린다'로 써야 한다.
 ③ '생각되진다'는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써야 한다.
 ④ '쓰여질'은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쓰일'로 써야 한다.
 ⑤ '믿겨지지'는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믿기지'로 써야 한다.

24 '추운 날씨가 확 풀렸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무엇이 추운 날씨를 확 풀었다.'가 된다. 그러나 이 능동문에서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를 정하기가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능동문으로 바꾸면 '개는 그의 팔을 물었다.'가 되며 주어는 '개'이다.
 ③ 능동문으로 바꾸면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가 되며 주어는 '눈'이다.
 ④ 능동문으로 바꾸면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가 되며 주어는 '경찰'이다.
 ⑤ 능동문으로 바꾸면 '그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가 되며 주어는 '그'이다.

25 제시된 문장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교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체 측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

26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뀐다. 또한 종결 어미,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등이 달라진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ㄹ게'라는 종결 어미가 '-ㄴ다'로,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자기'로 바뀐다. 따라서 '수호는 자기가 먼저 간다고 말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조사, 종결 어미, 대명사의 측면에서 달라지거나 바뀌는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조사, 종결 어미, 대명사 중 두 가지 측면에서만 달라지거나 바뀌는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조사, 종결 어미, 대명사 중 한 가지 측면에서만 달라지거나 바뀌는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27 ㉠은 경비원의 말을, ㉡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한 표현이다.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③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붙여 사용하고, 간접 인용 표현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경우 문장의 종결 어미도 바뀐다.
 ⑤ ㉠과 ㉡은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한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28 ㉡에서 '교환되지'는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업체 측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② 선어말 어미인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영수를 교무실로 오라고 한 주체는 '선생님'이다.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였다.
 ④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방법이다.

시험 직전, 최종 실전 평가

본문 208~211쪽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⑤
07 인간의 신체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면
을 그렸기 때문에 08 ⑤ 0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가): □ (나): ㄱ

01 (가)의 학생의 글은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1문단은 소개할 내용 안내, 2문단은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의 구성 요소, 로봇 공학을 이루는 세부 공학 분야, 3문단은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4문단은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 당부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라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가 제목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내용에 해당할 뿐이다.
③ 로봇 제작을 담당하는 분야와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3문단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⑤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2문단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02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되,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수집한 자료 중 활용할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 공정한 자료, 믿을 만한 자료, 전달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 예상 독자의 요구나 기대 및 관심이나 배경지식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가)의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선지와 (가)의 글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서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가)의 글은 로봇 공학과 로봇 공학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로봇 공학을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정보와 그 대학에서 배우는 주요 학습 내용은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는 (가)의 주제와도 맞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로봇 공학의 전망을 다룬 동영상참고하여 4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에 대한 책을 참고하여 2문단의 앞부분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을 설명한 백과사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2문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소개한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3문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03 (가)의 글쓴이는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있는 학생이다. 로봇 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발표한 논문은 어렵고 전문적이어서 글

쓰이의 수준에 적절한 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가 독서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로봇 공학 분야와 관련된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로봇 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은 추천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므로 읽어 볼 만하다.
④ 로봇 공학 분야의 세부 업무를 소개한 책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로봇 공학 분야의 각종 정보를 담은 잡지는 해당 분야의 최신 소식과 화제의 인물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4 어떤 글을 읽은 독자가 글에 대한 반응을 댓글로 쓸 때에는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밝힐 수 있다. (나)에서 독자가 쓴 댓글이 글쓴이에 대한 요청, 격려, 권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글쓴이의 반응을 예상하며 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인터넷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② 인터넷상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소통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의 요구나 의견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수용하여 글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자신이 쓴 글을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취향이나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과 만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05 (마)는 서양에서 측면 상으로 표현하는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뚜렷이 살아난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⑤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파리 테르트르 광장에서 화가들이 인물의 옆얼굴만 그리는 풍경을 통해 옆얼굴이 얼굴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사람의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이라는 프로필의 개념을 밝히고, 서양에서는 프로필이 발달하였으나 동양에서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제시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몇몇 동물들의 예를 나열하면서 동물마다 각인된 전형적인 면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눈썹으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 그림에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을 통해 인간은 옆면과 앞면의 두 개의 경쟁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06 읽기 전 과정에서는 읽기 목적을 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 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배경지식, 제목, 사진, 그림 등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읽은 글을 읽어 볼 것을 권하는 것은 글을 모두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⑤는 읽기 전 과정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제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② 글을 읽는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③ 글의 내용과 글에 담긴 시각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 적절한 활동이다.
④ 읽기 전 과정에서 제목의 생소한 용어에 대해 알고 싶다고 느끼고 궁금증을 가졌다면 읽는 중 과정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07 인간은 진화하여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되었는데, 「높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인물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으로 그려졌다. 이는 곧 인간의 신체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면을 그린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부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였고 문장의 형식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부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내용은 정확히 서술하였으나 문장의 형식을 <조건>에 맞지 않게 서술하였다.	중
문장의 형식은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08 (가)에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럽에서, 특정 시기에만 발달했다고 하였고 (나)에서 이러한 시각적 재현은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각 상은 특수한 표현이고, 촉각 상은 보편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촉각 상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방식이므로 일부 지역에서만 발달했다고 볼 수 없고, 이 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⑤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미술의 일차적 기능을, (나)에서 미술의 보편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지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라는 고대 이집트인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고유 인식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고대 이집트인이 사람을 그릴 때는 정면과 측면을 통합하거나 정면이나 측면 중 어느 한쪽에서 본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고대 이집트인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의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촉각 상을 바탕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각적 사실이 아니라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답 풀이 ① ‘그 전통’은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전통을 말한다.

② ‘시각적 사실의 재현’은 곧 시각 상을 중시하며 그린 것이다.

③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은 시각 상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⑤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은 시각 상으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10 이 글은 시각 상과 촉각 상이라는 개념과 특징을 고대 이집트 벽화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드러내는 예술이라는 미술의 정의(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림을 대하는 방식은 미술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③ 촉각 상이 보편적인 표현 현상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촉각 상을 바탕으로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다)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을 그린 그림과 신분이 높은 사람을 그린 그림을 대조하며 그림마다 고유한 표현 기법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미술의 정의를 제시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⑤ 미술이 공간 예술이라는 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 예술로서의 성격만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가 아닌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11 (가)에서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 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자동차에 생명 공존 문화를 접목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그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자동차에 생명 공존 문화를 접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 위험과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등 보행자가 운전자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말하면서 보행자에게 불평등한 자동차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나)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어머니가 처음 구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고 하면서 「왕자와 거지」를 읽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영국의 헨리 8세, 중세 궁정의 풍속도,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책을 읽는 일 이야말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고 하며 독서를 통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의 만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2 (가)는 논설문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그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나)는 수필로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글쓴이가 관찰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담고 있다.

③ (가)의 글쓴이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어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나)에 타인의 입장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나)는 글쓴이가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는 현재 자동차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3 (가)는 논설문이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면 읽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나)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므로 글의 주제를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ㄴ. 설명문을 읽을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ㄹ. 글쓴이의 입장이 자신과 다를 경우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거나 왜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글쓴이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본문 214~219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③ 05 ④ 06 ② 07 ④
08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에 아들이 아닌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아들의 환생으로 보고 충격을 받아 졸도한 것이다. 09 ① 10 ④ 11 ⑤ 12 ② 13 ③ 14 ④
15 '전단'은 지소가 월리를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기 위해 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의 개임을 알게 되자, 지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전단을 감춘 것이다. 16 ④
17 ⑤ 18 ⑤ 19 ④ 20 ④ 21 ③ 22 ⑤

01 (가)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데 그 대상은 고향의 평화롭고 따뜻한 정경과 함께 아버지와 누이, 그리고 아내의 모습도 있다. (나)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으므로, (가)와 (나)의 공통점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음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질화로'를 통해 볼 때 현대가 아닌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 (나)는 '아파트, 승합차'로 보아, 현대를 배경으로 하므로 동일한 시대 배경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는 각 연이 독립된 장면으로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 것이 아니다.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있다.

④ (가)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중심이고, (나)는 주인공인 지소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 중심이다.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만 '실개천,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 향토적 소재를 통해 현장감을 주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 (가)의 화자는 고향을 떠난 상태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반면 화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는 (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각 연의 끝에 후렴구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1~5연은 각각 고향 마을, 아버지, 화자의 유년 시절, 누이와 아내, 고향 집 등을 중심 소재로 하여 독립적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③ '옛이야기 지줄대는, 해설피, 함추름' 등 아름다운 우리말을 구사하여 전개하고 있다.

④ '파아란 하늘빛(시각)',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청각)', '따가운 햇살(촉각)', '금빛 게으른 울음(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03 (가)의 '별'은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의 '별빛'은 갈등의 해소 후 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오답 풀이 ② (가)의 '별'은 화자가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떠올린 고향 집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요소이며, (나)의 '별빛'은 과거가 아닌 현재 인물이 있는 곳의 배경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과거 회상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별'은 화자의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며, (나)의 '별빛'은 주제와 직접 연관되기보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별'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뿐, 단란했던 고향 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별빛'은 지소 가족이 갈등을 끝내고 화목한 가운데 이와 어울리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물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할 뿐,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별'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에서 지소는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별빛'을 향해 그 소망을 기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은 '울음(청각적 이미지)'을 '금빛(시각적 이미지)'으로 전이시켜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진 공감각적 표현이다. 반면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금으로 타는 태양(시각적 이미지)'을 '울림(청각적 이미지)'으로 전이시켜 시각의 청각화가 이루어진 공감각적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풀벌레 소리(청각)'를 '가득 차 있었다(시각)'라고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이다.

② '울음(청각)'을 '꽃처럼 붉은(시각)'으로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지는 표현이다.

④ '벌레 소리(청각)'를 '젖어 흐른다(시각)'라고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지는 표현이다.

⑤ '가벼운 웃음(청각)'을 '흩어져 있었다(시각)'라고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이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이옥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비애

감상: 이 시는 미국땅에서 죽음을 맞은 아버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비애를 절제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② 서정주, 「문둥이」

주제: 천형(天刑)의 운명과 인간 존재의 비극성

감상: 이 시는 문둥이를 통해 세상과 합일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③ 박남수, 「아침 이미지」

주제: 생동감이 넘치는 광명의 아침의 모습

감상: 이 시는 어둠이 온갖 물상(온갖 사물)을 낳는다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아침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④ 신석정, 「대숲에 서서」

주제: 지조를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

감상: 이 시는 대나무 숲을 보면서 대나무처럼 굳게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⑤ 김광균, 「외인촌」

주제: 현대인의 고독감

감상: 이 시는 이국적 정취를 바탕으로, 화자의 고독감과 우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상화하고 있다.

05 ㉔는 정현이 차에서 살며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빠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소가 알아차린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말이므로,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정현을 바라보고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아이들을 찾은 후의 안도감과 속상함이 뒤섞인 마음에서 등을 때리며 하는 말이고, 이후 지소를 끌어안는 것으로 보아 원망이 담긴 것은 아니다.

② 엄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자신의 신세 한탄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반응이므로 신세 한탄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지소가 자신(정현)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음을 아는 상황이므로, ㉔는 무덤덤하기보다는 지소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담긴 행동이다.

06 (나)에서 '나'가 작대기를 든 것은 갑자기 나타난 구렁이에 대해 어린이로서의 순수한 적의와 파괴욕 때문이지, 할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렁이가 할머니를 해친 것이 아니고 구렁이가 삼촌이 죽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한 할머니가 그 절망감에 줄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고 점쟁이가 예언한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무 날'이 중요하다고 아들의 귀환을 굳게 믿고 있다.

③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 이승의 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침착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건네며 달래고 있다.

④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외할머니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화해를 하고 있다.

⑤ '나'도 할머니를 용서하며 화해를 한 것은 '나'가 정신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07 <보기>의 시점의 기준을 보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작품 밖에서 서술하는 3인칭 시점이고, 인물의 내면 파악이 가능하므로 전지적 시점이다. 이에 따라 서술자는 전지적 위치에서 인물의 심리와 행동 등에 대해 서술할 수 있으므로, (나)에서 외할머니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짐작할 수 없도록 '엄한 꾸지람' 등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의 의도나 사정 등을 전부 다 알고 서술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는 외할머니가 '나'의 작대기를 뺏은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지적 시점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② 전지적 시점이므로 가족 등 다른 인물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③ 3인칭 시점으로 바뀌므로, 1인칭의 서술자 '나'는 작품 속 이름으로 등장해야 한다.

⑤ 1인칭 관찰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 서술자가 달라지므로, 할머니가 줄도하는 상황을 작품 밖의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면 '나는 목격했다.'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08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에 아들 대신 구렁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일 내로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은 할머니로서는 구렁이를 아들의 환생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머니는 이에 충격을 받아 줄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할머니의 줄도' 이전 및 이후 상황을 바탕으로, 구렁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구렁이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만을 바탕으로 하여 '할머니의 줄도'의 이유를 서술하였다.	중
구렁이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을 포함하지 않고, '할머니의 줄도'를 단순히 구렁이와 연관 지어 서술하였다.	하

09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하며 상대가 처한 상황을 상기시키고 있으며(ㄱ),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겼네만."이라고 말하며 상대의 심정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ㄴ). 그리고 집안 식구나 노친(할머니)의 마음을 언급하며 주변인들의 심정을 짐작하게 하여 떠나도록 유도하여(ㄹ)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상대를 걱정하며 달래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구렁이에 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ㄹ. 가족이나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하게 밝혀 전달하는 내용은 없다.

10 할머니는 점쟁이가 말한 시간에 삼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하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자기 눈에 물 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자신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뜻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좌정관천(坐井觀天)은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다는 의미이다.

③ 오비이락(鳥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⑤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11 (마)에서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문장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서술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민족의 불행을 상징하는 길고 지루한 장마가 끝났음을 언급하면서 형식적으로 한 줄 띄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끝맺음을 통해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장마는 축축하고 지루하여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작품의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장마는 오랜 기간 많은 비를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장마는 이 작품에서 가족이나 민족의 불행을 상징하므로, 이와 같은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곧 가족과 민족을 둘러싼 갈등이나 암울한 분위기 역시 견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③ 장마는 가족이나 민족의 불행을 의미한다. 그것이 끝났다고 하였으므로 작품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가족의 갈등이나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④ 이 작품에서 '나'의 가족이 겪는 비극이자, 당대 우리 민족의 비극은 곧 육이오 전쟁을 의미한다.

12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이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시나리오에는 신(Scene)을 구성단위로 하며, 편집 등에 의해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④ 시나리오는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연기로 재현하므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현재형으로 제시된다.

⑤ 시나리오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과 달리,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여 영화 촬영에 필요한 공간이나 인물의 수, 시간 등에서 제약이 거의 없다.

13 [A]는 지소의 내레이션이다. 지소는 월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사례금을 받아 생일 파티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소의 내면 갈등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지소의 생각이 드러나는 내레이션 부분이다. 따라서 희곡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무대 위의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방백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④ 지소는 개를 훔쳤고, 사례금을 오백만 원 요구할 것이고, 이후 집을 구하여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14 인서트(Ins.: insert)는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과 화면 사이에 삽입하는 화면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S# 84'에 'S# 66'의 일부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관객이 월리와 '윤서오'라는 화가의 관계를 빨리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그러나 'S# 66'의 전체 장면이 아닌 일부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S# 66'의 사건의 진행을 축약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S# 66'을 삽입함으로써 이 장면을 보여 주지 않을 때보다 사건이 늦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월리의 방울 목걸이를 떼며 보았던 이름표의 인물과 화가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목걸이의 이름을 떠올린 지소나 인서트 장면을 본 관객이 월리의 주인이 '윤서오'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노부인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⑤ 'S# 66' 장면이 없다면, 관객들이 월리와 윤서오의 관계를 빨리 연관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서트 기법을 통해 관객이 사건의 흐름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5 '전단'을 발견하는 것은 지소가 집을 구하기 위한 계획에 꼭 필요한 단계이다. 개를 찾는 전단이 붙고, 그 전단에 사례금이 명시되어야 월리를 돌려주고 돈을 받아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소가 전단을 들고 노부인을 찾아온 것은 사례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지소는 노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가지고 온 전단을 감춘다. 이를 통해 지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과 이후 지소가 월리를 돌려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전단의 의미를 밝히고, 전단을 감춘 이유(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인 윤서오의 개임을 알고 지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임.)를 서술하였다.	상
전단의 의미를 밝히지 않고, 전단을 감춘 이유만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
전단을 감춘 이유를 서술하지 않고, 전단의 의미만을 서술하였다.	하

16 (다)에서 지소는 자신의 잘못을 노부인에게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노부인이 이에 대해 확인하듯이 묻자 지소는 다시 한번 자신이 월리를 훔쳤다고 고백하고 있으므로, ㉠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처럼 말하기가 어려워 긴장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심정을 나타내는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이므로 발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므로 원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체념할 이유가 없다.

③ 긴장되고 초조하기는 하지만,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⑤ 지소가 많이 망설이다가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무 일도 아닌 척 말하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17 노부인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여 상심하고 있었는데 월리가 돌아와 내심 기뻐하고 있으므로,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지소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월리는 집을 나간 거야."라는 말을 통해 노부인이 월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월리는, (혼잣말로)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라는 말을 통해 노부인이 월리가 자신을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하여 상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지소는 노부인과 아들, 그리고 월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노부인에게 월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노부인에게 소중한 존재인 월리를 돌려보내면서 지소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아빠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다)에서 월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채워 주면서 말하는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소는 월리를 훔친 뒤 월리 목에 달려 있던 방울 목걸이를 떼었는데, 월리를 돌려주며 방울 목걸이를 다시 월리에게 달아 주는 모습에서 월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것처럼 월리의 모습을 처음과 같이 매만져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글이므로, 소설과 같이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하기보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서술한다.

오답 풀이 ①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②, ③ 글쓴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된 소재로 하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며,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④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글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19 (라)에서 글쓴이는 험벗은 참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참나무를 보러 산에 올라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참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원한 그늘을 내주고 미소를 짓거나 무어

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는 데서 '나'가 참나무에게서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았다는 것은 참나무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봄에 대못을 빼냈던 상처가 겨울이 되어서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⑤ 첫 번째 문장에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며 자기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며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20 이 글의 '혈벗은 나무(참나무)'가 찬바람 속에서도 무연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 주는 존재인 반면, <보기>의 '붉은 꽃'은 백일홍이 폭풍이라는 시련을 이겨 내고 맺은 결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대상의 의미는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의 '혈벗은 나무'와 의미가 통하는 대상은 <보기>의 '백일홍'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이 글의 '겨울(찬바람)'과 <보기>의 '여름(폭풍)'은 각각 참나무와 백일홍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이다. 또한 참나무와 백일홍은 각각 시련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존재이다.

⑤ 이 글의 참나무와 <보기>의 백일홍이 시련에 굴하지 않은 모습을 각각 '무연히 서 있었다.'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이성복, 「그 여름의 끝」

주제: 시련 극복을 통한 생명력의 실현

감상: 이 시는 자연물과 화자를 대응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곧 화자는 폭풍에 쓰러지지 않고 여름을 무사히 이겨 낸 백일홍을 통해 자신의 시련과 절망도 극복했음을 드러내면서 깨달음이란 고통 없이 오지 않는 것이라는 통찰을 표현하고 있다.

21 ㉠의 '작'은 '~기 짝이 없다'는 식으로 쓰여, '비할 데 없이 대단하거나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반갑기 짝이 없었다.'와 같이 비할 수 없을 만큼 반갑다는 의미로 쓰인 ㉢이다.

오답 풀이 ① '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아무'의 뒤에 쓰여, 소용되는 바를 뜻하는 말이다.

④ 단번에 벌어져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⑤ '무슨'의 뒤에 쓰여, 모양새나 형편을 낮추는 말이다.

22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하였다. 참나무는 겨울에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근 채 찬바람 속에서 무연히 서 있으며, 이런 계절의 변화나 아물지 않은 상처에도 아무 말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본 글쓴이는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원망하지 않았는지,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글쓴이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기대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희로애락의 인간의 감정을 일체 드러내지 않겠다는 내용은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②, ④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겉모습을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3. 영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본문 221~225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06 ⑤ 07 ④ 08 ④ 09 ⑤ 10 ②, ④ 11 ③ 12 재민네 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3 ① 14 ④ 15 (가)는 글쓴이의 주장을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며, (다)는 참여자 간의 협의(협상)를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16 ② 17 ㉠: 부정적 ㉡: 긍정성 18 ⑤ 19 ③

01 이 글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드러내고 있다.

③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김새롬 군의 이야기를 구체적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

⑤ ‘스마트폰의 두 얼굴’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이후 전개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나)를 보면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은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 밤을 새우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요즘 청소년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나)~(다)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득과 폐해를 모두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가)의 사례에 나온 김새롬 군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교우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듣고 음악이나 영화도 감상하며 유용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

② 스마트폰에 푹 빠지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부모님은 학습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김새롬 군은 공부 외의 다양한 측면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

⑤ 누리소통망(SNS)에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며 재미를 느끼는 김새롬 군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04 입시와 학교 공부로 바쁘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고, 친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해결 방안이다.

오답 풀이 ①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스마트폰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해결 방안이다.

③ 문제 해결의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면 적절한 반응이지만 <보기>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일을 할 때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요술 방망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3여절의 중심 내용과 함께 서술하였다.	상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중심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스마트폰이 요술 방망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만 서술하였다.	하

06 ㉠은 숫자 9의 모양과 같이 스마트폰을 할 때 고개 숙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고, ㉡는 무엇인가에 얽매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을 통해 대상의 외형적 특징을, ㉡를 통해 대상의 내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나인’이라는 명사에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 무리를 뜻하는 접사 ‘-족(族)’을 붙여 만든 신조어를 제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 아닌 ㉢가 신조어이다.

②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에 반영되어 있다.

③ ㉠은 숫자가 맞지만, ㉡는 숫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 ㉡는 모두 대상의 장점과는 관련이 없다.

07 협상은 일정한 절차로 진행된다. ‘시작 단계-조정 단계-해결 단계’의 단계를 밟는데 (가)는 시작 단계, (나)는 조정 단계, (다)는 해결 단계에 해당된다. 조정 단계는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단계이므로 ④의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에 적절하다.

② 조정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나)에 해당된다.

③, ⑤ 시작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에 해당된다.

08 이 협상에서 정연과 재민은 둘 다 대회 준비를 위해 음악실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는 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그동안 음악실의 청소는 밴드 동아리가 담당해 왔다.

② 외부 대회 참가자만 음악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나)의 재민의 말(‘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 권리가 있어.’)을 통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③ 교내 합창 대회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의 일정은 겹치지 않았다.
 ⑤ 재민네 반은 교내 합창 대회 연습을 이유로 음악실을 사용하고자 한다.

09 (나)에서 정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평가 기준은 정중한 표현과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 오답 풀이** ① ‘(흥분한 목소리로)’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파악하여 말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발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④ 밴드 동아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10 (다)에서 재민과 정연은 협상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재민은 주말에는 음악실을 밴드 동아리가 사용하게 되어 주말에 연습할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여 교실에서 연습하기 위해 밴드 동아리에게 전자 피아노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정연은 주중에 재민네 반에게 음악실을 양보한 상태에서 음악실 청소까지 하면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며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재민네 반이 맡아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재민이다.
 ③ ‘서로 잘해 보자.’라고 한 것은 음악실 사용 문제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며, (다)에서 재민과 정연이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다)에서 정연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협의할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 ㉠에서 재민은 각 대회의 참가 시기만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을 뿐, 대회의 위상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재민은 ‘우리가 음악실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잖아.’와 같이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자며 협상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의 ‘너도 알다시피’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의 ‘(흥분한 목소리로)’를 통해 자신이 나가는 대회가 더 위상이 높은 대회임을 밝히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는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진정하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1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주중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정연의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평일 시간대의 활용 방법, 주말 시간대의 활용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평일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의 활용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3 (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성인의 2배 정도라고 했을 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27.6퍼센트라고 하였으므로 총 31.6퍼센트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외모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⑤ (나)의 ‘정상 체중인 여학생 중 34.7퍼센트가 자기가 살찐 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외모에 대한 집착과 한국 여학생의 신체 왜곡 인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4 (가)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인원의 비율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나) 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을 조사 자료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15 (가)는 논설문, (다)는 협상 담화로, 둘 다 우리 삶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가)는 글쓴이의 주장을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며, (다)는 협상 참여자 간의 협의(협상)를 통해 해결 방안(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다)의 해결 방안 제시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가)와 (다)의 해결 방안 제시 방법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6 (가)에는 스마트폰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한편 제시된 자료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를 추가하려 할 때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은 제시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제시된 자료에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제시된 자료에는 아동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중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17 제시된 해결 방안에서는 대중 매체에서 외모를 희화화하지 말고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중 매체에서도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외모의 가치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해결 방안의 내용이 어느 한쪽 측면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고 그 대신 평일 특정 시간에는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한다는 대안은 재민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은 재민의 대안을 정연이 받아들인 것이다.

19 ㉠은 상대방의 말뜻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표현이고, ㉡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은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본문 228~231쪽

01 ㉔ 02 ㉑ 03 ㉓ 04 ㉕은 기본형이 ‘안다’로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오는 경우이므로 된소리인 [안따]로 발음한다. ㉔은 기본형이 ‘알다’로 된 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다]로 발음한다. 05 ㉔ 06 ㉕: 음절의 끝소리 규칙 ㉔: 난나치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인사말,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㉔: 배갯잇,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12 ㉔ 13 ㉔ 14 ㉔ 15 ㉔ 16 ㉑ 17 ㉕ 18 ㉔ 19 ㉕ 20 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진실하게 써야 하는데 거짓으로 썼으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 ㉔: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

01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02 ‘못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㉔)에 따라 받침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몬하다]가 된다. 이후에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의 한 개 음운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㉔)가 일어나서 [모타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㉔ ‘산새’는 [산새]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된소리되기 현상(㉔)이 일어난 결과이다. 표준 발음법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ㅈ, ㅊ’을 된소리로 발음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㉔ ‘내복약’은 비음화(㉔)에 따라 [내봉약]이 되고, 이후에 ‘ㄴ’이 첨가(㉔)되어 [내봉낙]으로 발음된다.

㉔ ‘웃 한 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㉔)에 따라 받침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온한벌]이 된다. 이후에 ‘ㄷ’과 ‘ㅎ’이 합쳐져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㉔)가 일어나 [오탄벌]로 발음된다.

㉔ ‘직행열차’는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㉔)가 일어나 [지캉열차]로 발음된다. 이후에 ‘ㄴ’이 첨가(㉔)되어 [지캉널차]로 발음된다.

03 ‘따라’는 어간 ‘따르-’에 ‘ㅌ’ 모음이 결합하면서 ‘ㄴ’ 모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따라서 ‘ㅌ’ 모음이 아닌 ‘ㄴ’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풀이 ㉑ ‘밥물’은 [밥물]로 소리 나는데 파열음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비음화 현상이다.

㉔ ‘꽃혀’는 [꼬쳐]로 소리 난다. 이는 받침 ‘ㅈ’이 뒤에 오는 ‘ㅎ’과 결합하여 ‘ㅊ’의 하나의 소리로 축약되어 소리 나는 것으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해당한다.

㉔ ‘해돋이’는 [해도지]로 소리 나는데 끝소리가 ‘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 ‘ㅈ’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구개음화 현상이다.

㉔ ‘전라도’는 [절라도]로 소리 나는데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 것이다. 이는 유음화 현상이다.

092 정답과 해설

04 <보기 1>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은 ‘ㄴ, ㄹ’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ㅈ, ㅊ’인 어미가 올 때이다. <보기 2>의 ㉕은 기본형이 ‘안다’로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오는 경우이므로 된소리인 [안따]로 발음한다. 이것은 ㉕이 된소리되기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㉔은 기본형이 ‘알다’로 여기서의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다. 즉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다]로 발음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㉕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와 ㉔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㉕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와 ㉔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만을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㉕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와 ㉔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그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05 ‘갈등(葛藤)’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이 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갈똥]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㉑ ‘주꾸미’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주꾸미]로 발음해야 한다.

㉔ ‘동그라미’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동그라미]로 발음해야 한다.

㉔ ‘관건’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관건]으로 발음해야 한다.

㉔ ‘교과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교과서]로 발음해야 한다.

06 ‘날날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의 ‘ㅌ’이 ‘ㄷ’으로 바뀌어 [난날이]가 된다. 이것이 끝소리가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와 만나는 구개음화의 환경을 충족하여 [난나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를 통해 [난나치]로 발음된다.

07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란/난(欄)’은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한다. 고유어와 외래어 명사 뒤에서는 ‘난’으로, 한자어 명사 뒤에서는 ‘란’으로 적는다. ‘독자란(讀者欄)’과 같이 ‘欄’이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란’이라 적는다. 그러나 ‘어린이 + 난(欄)’과 같이 ‘欄’이 고유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어린이난’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㉑ 한자 ‘숨길 닻(匿)’은 이 규정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익명(匿名)’처럼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은닉(隱匿)’처럼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㉔ 이 규정에 해당하는 예로는 ‘양심(良心)’, ‘역사(歷史)’, ‘예의(禮儀)’ 등이 있다.

- ④ ‘백분율’에서 ‘률’은 ‘ㄴ’ 받침 뒤에 이어지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율’로 적어야 한다.
- ⑤ 두음 법칙은 ‘라디오’, ‘뉴스’ 등과 같은 외래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08 ‘나갔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의 ‘ㄷ’이 ‘ㄴ’으로 바뀌어 [나간네]가 된다. 이후에 ‘ㄴ’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를 거쳐 [나간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넋이’는 겹받침 ‘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결합되므로 ‘ㄴ’이 연음되어 [넉시]가 되고,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ㄴ’이 오므로 된소리되기에 의해 [넉씨]로 발음된다.

③ ‘단팔이’는 끝소리가 ‘ㅌ’인 형태소가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ㅌ’이 구개음 ‘ㅈ’으로 발음되므로 [단파치]로 발음된다.

④ ‘늑지도’에서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므로 [늑지도]가 되고,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ㄴ’이 오므로 된소리되기에 의해 [늑찌도]로 발음된다.

⑤ ‘밤났으로’는 홀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홀받침은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제 음가대로 발음되므로 [밤나즈로]로 발음된다.

09 ‘단히다’가 [다치다]로 발음되는 것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구개음화에 따른 것이다. ‘제12항-1’은 거센소리되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단히다’는 [다치다]로 발음되기 전 ‘ㄷ’이 ‘ㅎ’과 만나 ‘ㅌ’이 되어 [다티다]로 발음되는데, 이것이 거센소리되기의 결과로 ‘제12항-1’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거센소리는 숨이 거세게 나오는 자음으로 국어의 ‘ㄷ, ㅌ, ㅊ, ㅍ’이 있다.

③ 음운의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으로, 표기와 달리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한 개가 줄어든다.

④ ‘ㄸ’ 뒤에 ‘ㄴ’이 결합하면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ㄸ]으로 발음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예이다.

⑤ ‘ㅎ’과 ‘ㄱ, ㄷ, ㄴ’이 결합하여 [ㅋ, ㅌ, ㄴ]으로 발음된다고 한 것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운으로 소리 나는 현상, 즉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10 ‘앞으로[아프로]’는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한 경우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라 발음한 것이다. ‘값을[갑술]’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한 경우로,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발음한 것이며 ‘ㅅ’은 규정에 맞게 된소리로 발음하였다.

오답 풀이 ① ‘뉘대[뉘따]’는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른 것이고, ‘웃이[오시]’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른 것이다.

② ‘닭은[달글]’과 ‘할애[할타]’ 모두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른 것이다.

③ ‘절어[절머]’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른 것이고, ‘있대[일따]’는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른 것이다.

⑤ ‘뉘이대[더피다]’와 ‘꽃을[꼬출]’ 모두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른 것이다.

11 ‘인사말’은 ‘한자어(인사(人事)) + 고유어(말)’로 된 합성어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고 [인사말]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베갯잇’은 ‘고유어(베개) + 고유어(잇)’로 된 합성어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 [베갸넛]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두 단어 모두 올바르게 표기하고,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상
두 단어 모두 올바르게 표기하였으나, 그 이유는 하나만 〈조건〉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중
두 단어 중 하나만 올바르게 표기하고, 그 이유도 하나만 〈조건〉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하

12 ④의 밑줄 친 부분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야단 법석’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깍 두기’로 적는다.

②, ③ ‘ㄴ’ 받침과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잔뜩’과 ‘살짝’으로 적는다.

⑤ ‘해쓱하다’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해쓱하다’로 적는다.

13 ‘꾸준히’는 형용사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일찍이’는 ‘일찍’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뜻을 더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슬며시’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리대로 ‘슬며시’라고 적는다. [붙임]의 규정에 적용되는 예로, ㉠과 ㉡ 모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느긋이’는 형용사 ‘느긋하다’의 어근 ‘느긋-’에 ‘-이’가 붙어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한 태도로’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② ‘어렵듯이’는 형용사 ‘어렵듯하다’의 어근 ‘어렵듯-’에 ‘-이’가 붙어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이므로 [붙임]의 규정에 따라 소리대로 ‘갑자기’라고 적는다.

③ ‘정확히’는 형용사 ‘정확하다’의 어근 ‘정확-’에 ‘-히’가 붙어 ‘바르고 확실하게’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이다. ‘깨끗이’는 형용사 ‘깨끗하다’의 어근 ‘깨끗-’에 ‘-이’가 붙어 ‘사물이 더럽지 않게’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이다. 둘 다 ①의 예로 적절하다.

⑤ ‘더욱이’는 ‘더욱’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 ‘그러한 데다가 더’라는 뜻을 지닌 부사가 된 경우로 그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하므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낙낙히’는 형용사 ‘낙낙하다’의 어근 ‘낙낙-’에 ‘-히’가 붙어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조금 크거나 남음이 있는 정도로’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14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르면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그가(대명사+조사) ∨ 떠난(동사) ∨ 지도(의존 명사+조사) ∨ 벌써(부사) ∨ 삼십(수사) ∨ 년이(의존 명사+조사) ∨ 흘렀다(동사).’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5 ‘아는이름’에서 ‘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그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아는 이름’으로 적는 것이 올바른 띄어쓰기이다. 의존 명사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으므로, 보조 용언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8항에서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이철 수 씨’이라고 띄어 쓴다.

③ ‘가마니’는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라는 뜻의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두 가마니’라고 띄어 쓴다.

④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청군 대 백군’이라고 띄어 쓴다.

⑤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으므로, ‘할 수밖에’라고 띄어 쓴다.

16 ‘깨 + 잎’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인 환경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 [꺄닙]으로 발음된다. 이는 1-(3)의 조항에 부합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꺄잎’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깨 + 잎’과 관련된 조항은 1-(2)가 아니라 1-(3)이다.

오답 풀이 ② ‘해 + 수(數)’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이에 2-(1)을 적용하면 [해수/해수]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해수’로 적는다.

③ ‘배 + 길’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이에 1-(1)을 적용하면 [배길/배길]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꺄길’로 적는다.

④ ‘제사(祭祀) + 날’은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이에 2-(2)를 적용하면 [제산날]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제산꺄’로 적는다.

⑤ ‘예사(例事) + 일’은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이에 2-(3)을 적용하면 [예산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예산꺄’로 적는다.

17 (가)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고 했을 뿐, 인터넷 매체가 사회적 여론을 공고하게 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지니고 있다.

②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며, 이럴 경우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가 어렵다.

③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는 등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④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18 (다)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이러한 쓰기 윤리의 규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사회적 윤리라고 한다.’를 통해 쓰기 윤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문헌 자료, 사진이나 그림, 음성이나 음향,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자료는 윤리적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쓰기 윤리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인터넷 매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매체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9 <보기>의 광고는 인터넷상에서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인터넷 매체는 익명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고 하면서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남몰래 숨어서 쓰는 나쁜 말’이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보면, 인터넷 매체에서는 글쓴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어 예절을 지켜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익명성이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므로,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터넷 매체는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사용자가 누구이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③ 광고 문구 중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는 서로 얼굴을 마주해도 할 수 있을 만한 예의 바른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광고를 포괄하는 내용이 아니다.

④ (가)에서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보기>는 올바른 언어 표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보기>의 글쓴이는 글을 쓸 때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 ㉠에서는 자신이 가지 못한 백록담에 대해 아름다웠다고 기록하였으므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침없이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한다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또한 ㉢에서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처도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 ㉢에서 <보기>의 글쓴이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와 그 근거를 모두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 ㉢에서 <보기>의 글쓴이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는 정확히 밝혔으나 그 근거는 하나만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 ㉢에서 <보기>의 글쓴이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는 정확히 밝혔으나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본문 234~237쪽

01 ① 02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이 나 향토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등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08 ③ 09 엄마는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하고 있고, 서준은 거절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하고 있다. 10 ② 11 ③는 과거 시제이고, ⑤는 미래 시제이며, ⑥는 현재 시제이다. 따라서 ③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고 ⑤는 사건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이며, ⑥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12 ② 13 ⑤ 14 ①은 ①보다 말을 직접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며, ④는 ①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15 ⑤

01 가는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다. 지역 방송이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이므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에서는 같은 사람이 대화 상황과 상대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나에서는 같은 지역 사람과의 대화 상황이라 지역 방언을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다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④ 같은 지역 사람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에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다.

⑤ 가는 방송 보도라는 공식적인 상황이고, 나와 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02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향토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효과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제시된 지문에 국한하여 서술하였다.	하

03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性)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언어생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여자는 ‘-요’와 같은 비격식체와 ‘요걸로’, ‘안 그래요?’ 등의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남자는 ‘-브니까, 브니다’ 등의 격식체와 ‘급한 일 아니면 끊어.’와 같이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령조로 말하고 있다.

③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통해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각각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남자는 ‘-브니까, 브니다’ 등의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완결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여자는 ‘-요’와 같은 비격식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뇨, 뭐 …….’처럼 미완성형 문장으로도 대화를 하고 있다.

04 이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 용어로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전문 용어의 사용 목적이 해당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과시하거나 존경심을 이끌어 내기 위함은 아니다.

③ 해당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하면 의미 전달이 어려워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④ 해당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전문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해당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다.

05 바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고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완곡한 표현이 애매모호한 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었으므로 거절을 유보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 풀이 ① 나 의 남학생은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자기 처지를 설명한 후,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 줄래?’라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② 다 의 여학생은 ‘본관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라 의 남학생은 ‘먼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⑤ 사 의 남학생은 ‘늦어서 미안’이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근데 왜 여기서 보자고 그랬어? 길 막히는 데인지 몰랐어?’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다.

06 가, 다, 마, 사는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말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등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움 알 수 있다.

07 나와 같이 부탁하는 말을 할 때나, 라와 같이 건의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나와 라의 남학생이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나와 라의 남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점을 맞게 썼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시험 직전, 최종 실전 평가 095

08 대화의 원리 중에서 순서 교대의 원리는 대화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은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말하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상대방이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고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을 뿐,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거나 상대방의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④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⑤ 상대방이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09 엄마는 서준에게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다녀오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준은 엄마의 부탁에 거절하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엄마와 서준의 말하기 상황을 각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엄마와 서준의 말하기 상황을 한쪽 입장에서만 서술하였다.	중
엄마와 서준이 처한 상황을 서술할 뿐 명료하게 각각의 말하기 상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0 나에서는 ‘-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④ 다는 ‘되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가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 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1 ㉠은 과거 시제로 말하는 시점에 비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앞서고, ㉡는 미래 시제로 말하는 시점에 비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나중이며, ㉢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일치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의 시제를 모두 맞게 쓰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서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의 시제를 모두 맞게 쓰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 두 가지만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의 시제를 제대로 쓰지 못하였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 한 가지만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2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는 물건값이 전에 올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드러나므로, 「2」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영희가 잠든 것은 말하는 시점보다 전의 일이므로 「1」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③ 코스모스가 이미 피었고, 지금도 피어 있는 상태이므로 「2」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④ 비가 와서 내일은 소풍을 갈 수 없다고 미래의 일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말하고 있으므로 「3」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⑤ 이대로 공부하면 대학에 붙는 것은 확실하다는 의미이므로 「3」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13 제시된 방송 보도문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객관성이 약화되어 기자의 주관적 의견을 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모두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 그 주체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거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14 ㉠은 직접 인용 표현이고, ㉡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직접 인용 표현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전하는 듯이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간접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보다 생생한 느낌은 덜하지만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과 ㉡의 표현 효과를 비교하여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과 ㉡의 표현 효과 중 일부만을 서술하였다.	하

15 ‘생각되어진다’는 ‘-되다’라는 피동 접사와 ‘-어지다’라는 피동을 만드는 표현을 중복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이 되지 않게 ‘생각된다’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은 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된다’가 아니라 ‘생각한다’로 고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자기 스스로 하는 생각, 예상, 판단, 짐작 등을 말할 때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판단된다’도 이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② 주어가 능동적으로 극복할 일인데도 ‘극복되다’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하며 ‘극복하다’로 써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모여지다’는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중복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고, ‘믿겨지다’는 피동 접사 ‘-기-’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중복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요즘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일이 많다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한 이해이다.